



8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8호

(루계 제 730 호)

◇◇◇◇◇◇◇◇◇◇

## 차 례

◇◇◇◇◇◇◇◇◇◇

조국통일주제의 문학작품을 더욱 활발히 창작하자 .....	3
노래하세 8월 25일 .....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5
미리 내다보신 조국해방의 해 .....	5
한장의 조선지도앞에서 .....	6
아버지의 추억 .....	6
세월은 그날에서 .....	7
주체문학의 대강 .....	8
특이한 《보약》 .....	8
오늘도 올려오는 수령결사옹위의 총성 .....	9
병사의 군복속에 수첩이 있네 .....	9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	10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예술적탐구 .....	10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	13

공화국기를 처음 보던 날에 .....	14
조국이여 믿어다오 .....	15
우리 맞고 보낸 날과 날들이 .....	15
가풍 .....	16
《촉지법》 이야기 .....	26
위인의 형상과 생활반영의 진실성 .....	27
홍남의 봄 .....	28
우리 가정 이야기 .....	29
아들이 왔다 .....	35
한생의 모습 .....	37
별나라 .....	43
불이 흐르는 강 .....	44
일요일의 랑만 .....	44
가을날 들이 말해주리 .....	45
구월산의 청춘샘물 .....	45
세월의 물음앞에 .....	46
풍요한 가을에로 .....	56
얼굴 좀 들려마 .....	59
금방석 .....	60
고려의 악부시와 리제현 .....	66
대조영 .....	68
불살라버리자 리명박패당을 .....	74
영국이 죽인 영국의 두 아들 .....	75
아침에만 일하는 리유 .....	78
시에서 울리는 전선편지의 구절구절들 .....	79

## 조국통일주제의 문학작품을 더욱 활발히 창작하자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이다.

인간의 운명문제를 반영하는 우리 문학에서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은 시대와 역사, 온 민족앞에 지닌 문학의 중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엄숙한 책임적인 과업의 하나이다. 더우기 오늘 미제의 사측을 받는 남조선의 리명박괴뢰역도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주제의 문학작품창작을 더욱 활발히 벌려 온 겨레와 민족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지닌 숭고한 애국위업이다.

지금 남조선의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해나가면서 광기를 부리고있다. 리명박역도패당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전면부정하고 외세와 한쪽이 되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으며 동족대결으로 줄달음치고있다.

리명박역도가 《대통령》감투를 쓰자마자 《비핵화를 최우선원칙으로 하고 실용주의에 립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단느니뭐니 하고 떠벌인 사실 하나만 놓고도 역도의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너털하고 파렴치한 매국노이기에 리명박은 미국과 일본을 행각하면서 《동맹강화》를 부르짖고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으며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 깊이 밀어넣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리명박패당은 민족우에 외세를 올려놓고 민족을 팔아 외세를 살찌우는 극악한 매국역적이며 미국의 철저한 전쟁하수인, 돌격대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를 치솟는 분노와 격분으로 단호히 단죄규탄하고있으며 역도들을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시대와 역사의 대변자이며 정의와 진리의 옹호자이며 선각자들인 우리 작가들은 오늘의 현실을 놓고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에 끓어오르는 적개심과 분노를 터치면서 역적무리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릴 문학작품창작에 분발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 기간 숭고한 민족애와 애국심을 발양하여 겨레와 민족의 최고속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적극 창작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뿐아니라 《불멸의 향도》에속하는 장편소설들인 《푸른 하늘》과 《별의 세계》를 비롯한 수많은 장중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으며 최근년간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60여편의 장편소설들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조국통일위업수행으로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적극 고무하였다. 서사시 《살아서 만나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시문학작품들과 아동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심장속에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주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오늘 우리작가들앞에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이 내외의 원썬들에 의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는 엄숙한 시각에 조국통일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적극적으로 창작해야 할 중대한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화는 조국통일위업을 중요한 주제적과제로 내세워야 한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은 오늘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이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구현해야 할 문제는 당과 수령의 조국통일사상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통일위업의 개척자이시고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운동의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하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나라의 분렬이 시작된 첫시기부터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에 따라 조국통일위업을 끝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지침으로 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민족의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으로서 우리 민족이 통일운동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해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 하심으로써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으 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의 리정 표로 세워주신 6.15공동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여 있다. 6.15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뜻과 마음을 합쳐나가는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펼쳐 놓았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지난해 력사적인 10.4 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위업의 이 모든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온 겨레가 투쟁으로 이룩된 고귀한 성과들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수없는 6.15북남공동선언의 전취물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더우기 남조선에 새로 등장한 리명박《정권》이 친미사대와 반통일대결을 정책화하고 6.15통일시대의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엎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정세하에서 6.15의 정신을 박력있게 구현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작가들은 예리한 형상의 붓으로 리명박패당이야말로 꾀물만 한 동족의식조차 찾아볼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반동들이라는것을 폭로하고 준렬히 규탄배격하는 격조높은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은 그 어느 하나의 형식에 국한할것이 아니라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다양하게 실현되여야 한다.

여기서 특히 힘을 넣어야 할것은 리명박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을 날카로운 조소와 야유로 폭로탄

죄하는데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정치라고는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몽매한 리명박역도놈이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감히 날뛰고있는 물꼬를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풍자로 조소하고 철추를 내리는 작품들을 적극 창작함으로써 분수없이 놀아대다가는 부나비신세가 되고만다는것을 강도높이 보여주어야 한다.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는 북과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을 고수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것이다. 이리하여 이미 마련된 6.15의 고귀한 전취물들을 고수하고 오늘의 자주통일시대를 중국적승리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공동선언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온 겨레의 가슴마다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근본핵으로서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높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의 기치이다. 6.15의 전취물을 말살하기 위한 리명박패거리들의 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말살하기 위한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사상정신적무기로 하여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하는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책동, 반통일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문학작품이 노는 역할은 크다.

우리 작가들은 숭고한 애국심과 민족애의 념원을 지니고 겨레와 민족의 운명을 제 하나의 권력욕에 용해시켜 통락하려는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행을 힘있는 형상의 위력으로 분쇄해버리는 쇠소리나는 작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할것이다.

## 가사

### 노래하세 8 월 25 일

박세일

병사마다 기쁨넘친 8 월 25 일  
초소마다 노래넘친 8 월 25 일  
장군님 선군령도 첫자욱 새기신  
우리 군대 명절일세 내 나라의 명절일세

군공으로 빛내이세 8 월 25 일  
백승으로 펼쳐가세 8 월 25 일

장군님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드신  
우리 군대 명절일세 내 나라의 명절일세

원썩들이 무서워하는 8 월 25 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8 월 25 일  
장군님 선군의 업적을 전해가는  
우리 군대 명절일세 내 나라의 명절일세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훈련기지에 날아온 그 순간부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모두 흥분된 기분으로 조국에 돌아갈자비를 하였습니다. 스무해동안이나 라향의 이슬비를 맞으며 살아온 나도 고향으로 한시바빠 돌아가고싶었습니다.》

《배전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망망대해를 바라볼 때 이상스럽게 가슴이 뛰던 일을 좀처럼 잊을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열네살때 건느던 압록강이 떠올랐습니다. 망국의 한으로 쾅쾅 얼어붙었던 그 압록강과 조국의 일만강들이 해방열에 모조리 녹아 이 바다를 펼쳐놓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혈육들과 친지들, 동지들을 이국의 고향으로 남겨두고 스무해만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설명할수 없는 일희일비의 심정이였습니다.》

### 백두산전설

## 미리 내다보신 조국해방의 해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조국땅 방방곡곡에서는 물론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이역의 곳곳에서도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며 터져올랐다.

그때 왕청땅 자피거우라는 마을의 조선사람들의 감격은 남달리 뜨거웠고 경탄의 목소리는 류달리 높았다.

《과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칠혹같이 암담하던 그 세월에 어떻게 오늘을 환히 내다보실수 있었던 말인가!》 그것은 주체30(1941)년 여름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예언을 두고 터뜨리는 탄복이었다.

그해에는 봄부터 매일같이 불길한 소식만 날아들었다. 하루빨리 망해야 할 일제가 어느 나라와 화친을 했다느니, 파쑈도이쉴란드군대가 어느 도시를 타고있었다느니 들려오는 소문은 다 흉흉하였다.

마을의 한 로인은 이러다가 고향에 가보지 못하는것 아닌가고 한탄을 하였다.

그럴수록 **김일성** 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다.

조국이 해방될 날을 아실분은 **김일성** 장군님 한 분뿐이시라는것을 칠석같이 믿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꿈결에도 뵈고싶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마을에 모시게 된 이 고장 사람들은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 그이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올리었다.

《장군님, 우리 조선이 언제쯤 해방됩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의 날을 하루를 천년맛잡이로 기다리는 그들의 절절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확신에 찬 어조로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예언하신대로 그때로부터 4년이 되는 해에 정말 조국이 해방되었으니 마을사람들의 탄복과 환희는 실로 한량없이 컸다.

앞날에 대한 예언은 위인의 비범한 예지의 소산이라는 말이 있다.

주체30(1941)년 당시로 말하면 파쑈도이쉴란드가 유럽땅을 짓밟으며 침략전쟁의 총포소리를 크게 울리고 《쏘일중립조약》을 체결한 일제침략자들이 아시아를 통채로 삼킬듯 기승을 부릴 때였다.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그 발전추이,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타산하신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예언을 내놓으신것이였다. 그것은 또한 기어이 3~4년간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야말 확고한 결심의 표현이시였다.

그 예언이 꼭 맞았던것이다.

이 사실은 널리 퍼지면서 우리 수령님은 진정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또 하나의 혁명전설로 되였다.

한글호



# 한장의 조선지도앞에서

김창호

태양의 빛발인가  
백두에서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쭈,쭈 뻗어간 붉은 화살표  
보고 또 보는 마음속에  
항일대전의 총성 되성쳐오누나

신평, 곡산, 토산...  
에서 백두산전구는 그 어디  
내 고향 산촌 멀리까지  
무수히 자리잡은 항일의 비밀근거지  
태양의 빛발인듯 붉은 화살표

저 붉은 화살표  
강토 삼천리를 전민항쟁의  
튼튼한 보루로 다지시며  
총검의 숲 헤치시던  
우리 수령님 거룩한 발자취는 아닌가

반일민족통일전선에  
2천만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며  
사선을 헤쳐 투사들이 걸어야 할  
그 험산준령을 마음속으로 먼저 밟아보시던  
수령님 눈빛어린 그 길이던가

곳곳마다에 빛나는 저 붉은별  
조국광복회 10 대강령 투쟁의 불씨로  
겨레의 가슴마다 필승의 총탄을 채우며  
백두산을 우러러 잠 못 들던  
투사들의 체취어린 비밀근거지들이거니

무장에는 무장으로!  
일제의 무장을 빼앗아들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던  
조선의 자랑스런 모습  
여기 또한 어려있거니

아 혁명의 성산 백두에 높이 서시여  
온 조국땅을 하나의 백두전구로 다지시며  
조국해방의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던  
위대한 백두산장군의 불호령소리  
찌렁찌렁 울리는듯싶은 한장의 조선지도여

우리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는 인민의 한마음  
여기에 다 있구나  
백두산을 길이길이 안고 살  
우리 맹세 여기에 함께 있어라

# 아버지의 추억

박현철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내린 나의 아버지  
8.15 해방을 맞던 그해에 7 살이었다  
지금의 내 아들 또래였어도  
가정에선 그때의 유일한 목격자이며 체험자  
8 월이 오면 자주 말씀했더라  
그날의 그 기쁨 그 감격을

해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더라  
다만, 물목이 콕— 터진듯  
마을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에서  
홀잡뱅이, 몽당치마, 두루마기들...  
사람마다 목청껏 두손들어 만세부르며  
읍으로 네거리로 쏟아져나왔더라

울면서 웃는게 해방인게다

만세를 부르는게 해방인게다  
철모르며 할아버지 따라섰던 읍으로 70 리길  
그날은 어른들과 똑같이 달렸어도  
힘든줄 모르고 배고픈줄 몰랐더라

먼지이는 신작로따라  
어른들속에 섞여 읍으로 달려간 그날  
왜놈에게 짓밟히고 뜯기우며  
제 이름 석자마저 빼앗겼던 그 세월이  
하루아침에  
갈아엮은 밭고랑처럼 뒤번져졌거니

정녕, 그날엔 미처 다 몰랐더라  
악몽과도 같던 일제통치가  
그 하루아침이 아니라

장장 20 성상—  
 피뿌리며 목숨바친 혈전끝에 뒤집혔음을…  
 7 살!  
 그 나이에 어찌 다 알수 있었으랴  
 피바다, 불바다  
 수령님 진두에서 헤쳐오신 백두의 혈전만리…  
 그이따라 꽃다운 생명도 웃으며 바쳐싸운  
 선렬들의 붉은 피로 안아온 해방인줄

크며 자라며… 그것을 알았을 때  
 아, 더없이 소중한 8월 15 일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조국  
 만약, 우리 민족이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망국노로 짓밟혔으리  
 수령님은 진정 해방의 은인

수령님은 진정 영원한 조국

마지막엔 아들, 손자, 며느리 둘러보며  
 아버지 언제나 의례히 하는 말씀  
 그러나 언제나 심장에 와닿는 말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을 지키자면  
 오직 한분  
 장군님만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

아, 조국해방!  
 우리 수령님 안아오신 8.15 는  
 내 조국이 암흑에서 광명으로 치솟은  
 반만년 민족사의 사변이었으니  
 그때 아버지나이는 어리였어도  
 지금도 추억은 생생하고 정확하였다!

## 세월은 그날에서

리영철

압록강 두만강물결이  
 백두산천치에 그 시원을 두고있듯이  
 이 땅에 흐르는 세월에도  
 우리 삶의 행복과 미래가 담보된  
 그런 날이 있어라

내 조용히 그날을 노래하려니  
 눈앞에 어려오는것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장군님앞에  
 정렬한 근위 서울 105 탱크사단의 모습인가  
 일당백병사들의 만세의 환호성에  
 조국과 민족이 받아안은 그 행운인가

빨찌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  
 백두의 총대를 추켜드시고  
 무적필승의 혁명장군을 이끌어  
 거룩한 선군령도의 첫자욱을  
 초소에 새기신 날이어

그날이 있어  
 내 생의 고고성 터친 요람은  
 봄의 꽃피는 락원  
 그곳에서 내 자라 지금껏  
 푸른 하늘만을 머리우에 이고 살았어라

핵전쟁의 불구름이  
 떠도는 분렬된 이 강토에  
 그날이 없었다면

불빛은 우리 집 창가에  
 단 하루인들  
 평화와 안정이 깃든 날 있었으랴

우리의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광풍을 총대로 쳐갈기시려  
 장군님 남기신 력사의 그 자욱 있어  
 나의 꿈 나의 희망 어느때나 꽃피는  
 우리 삶의 세월이 이어져왔거니

강물이 흘러흘러 바다로 가듯이  
 나에게 있는 소중한 모든것  
 기쁨도 웃음도 추억도 생활도  
 그날에서 시작되고 그날속에 있어라

가슴 헤쳐 노래하노라  
 내 눈길들어 바라보는 저 푸른 하늘  
 금나락 무르익는 풍요한 대지  
 장군님빛내시는 선군이 있기에  
 이토록 아름다운것 아니냐  
 내 운명의 밝은 길로 열려진것 아니냐

선군! 그 위대한 이름과 함께  
 선군! 이 위대한 시대와 더불어  
 아, 1960 년 8 월 25 일이어  
 승리와 행복의 세월을 이 땅우에 실고서  
 영원토록길이 빛나라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민족문화유산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여놓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아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는것은 과학적으로도 옳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지위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합리적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조선민족모두에게 필요한 재부이며 전체 조선민족이 대를 이어 가며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유산이다.》**

## 혁명일화

### 특이한 《보약》

위대한 선군혁명력사의 갈피에는 우리 인민군 병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특이한 보약을 먹고 놀라운 약효를 본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주체90(2001)년 1월 조선인민군 한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태양열온실에 들리시였다.

여러 종류의 싱그러운 남새냄새가 풍기는 온실안은 볼수록 희한하였다.

먹음직스레 익은 도마도며 주렁주렁 매달린 오이, 푸르싱싱한 배추...

밖에서는 찬바람이 뽀뽀하게 일었지만 온실안의 풍경은 그 모든것을 순간에 잊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마음이 상쾌하신듯 2층 박막을 친 온실이 그만하면 괜찮다고, 이만한 온도면 얼마든지 남새를 키울수 있을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온실을 돌아보시며 도마도나 오이 같은것을 수확하면 병사들에게 먼저 먹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던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생산하는 남새량이 많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잠시 동안은 두시였다가 부대지휘관을 몸가까이로 부르시였다.

부대지휘관은 그이께서 온실남새농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줄로만 알고 수첩을 펼쳐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앉고있는 군인이 없는가를 물으시는것이였다.

팔뚝같은 오이들에 눈길을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의 의문은 더욱 컸다. 앓는 군인이 한명도 없다고 보고드리는 부대지휘관도, 동행한 일군들도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며 다시금 감기에 걸린 군인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부대지휘관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지금은 없지만 때로 감기에 걸리는 병사들도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는 겨울철에 감기에 걸린 군인들에게 온실에서 생산한 도마도를 먹여본 일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사실 이곳 부대의 태양열온실에서 생산하는 도마도량은 그리 많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뜻깊은 날들에만 그것을 특식처럼 식탁에 놓아주곤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료해하시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감기에 걸린 군인들에게 온실에서 생산한 도마도를 먹이면 그들이 보약처럼 생각하면서 좋아할것이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앓는 자식에게 더 원심을 쓰는 친부모의 심정이 뜨겁게 숨배인 은정깊은 가르치심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를 다녀가신 후 지휘관들은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앓는 군인들에게 도마도를 먹이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감기는 물론 다른 병에 걸린 군인들도 인차 원기를 회복하였다. 놀라운 일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특이한 **《보약》**으로 된것이다.

보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뜸 몸의 전반적기능을 잘 조절해주고 유기체의 저항성을 높여주는 데 특효가 큰 산삼이나 록용, 산꿀 같은것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보약들의 약효를 다 합친들 병사들에게 베푸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혈육의 정 넘치는 사랑에 어이 비길수 있으랴.

세상에 보약은 많아도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보다 더 진귀하고 값진 보약은 없다.

인민군군인들이 한목소리로 터치는 이 심장의 고백은 조국의 초소들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김동철

## 오늘도 울러오는 수령결사옹위의 총성

주체25(1936)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송현성전투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의 귀감을 남김없이 보여주셨다.

무송은 백두산주변의 여러 성시들가운데서 적들이 특별히 중시하고있던 군사요충지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주타격방향을 담당한 7련대의 앞장에 서시여 적들을 제압하며 영웅적으로 싸우시였다.

성안의 적들은 그때에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습격한다는것을 알고 무력을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여나섰다.

전투가 오랜 시간 계속될것을 예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를 부르시여 녀대원들을 데리고 동산포대 가까이에 있는 잘루목에 가서 식사준비를 하면서 그곳을 지키는데 대한 전투임무를 주시였다.

잘루목은 적들로부터 빼앗은 동산포대를 지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였을뿐아니라 시내에 돌입한 부대들이 산으로 철수하는 경우에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통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을 이끄시고 재빨리 잘루목을 차지한 다음 그곳을 지키기 위한 전투조직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인전술에 걸려든 적들이 성밖으로 쏘어나왔을 때 한개 소대의 적들이 잘루목을 차지해보려고 은밀히 접근하여왔다. 정황은 매우 위급하였다. 놈들을 그대로 둔다면 사령부와 전부대에 돌이킬수 없는 위험이 닥칠수 있었다.

이것을 포착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결사전을 각오하시고 즉시 녀대원들에게 사격명령을 내리시면서 적기관총수놈부터 단방에 꺼꾸러뜨리시

였다.

백두산녀장군의 총성에 일제히 화답하여 녀대원들도 적들에게 명중탄을 안기였다.

뜻밖에 불의의 타격을 받은 놈들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충질을 하였다. 그러나 유격대의 인원이 적다는것을 곧 알아차린 놈들은 일시에 소리를 지르며 돌격해왔다. 놈들의 총탄이 김정숙동지의 주변에 우박치듯 날아와 떨어졌다.

그러나 탄알이 귀전을 스치는 위험한 순간에도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먼저 생각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녀대원들을 고무하시면서 앞에서 돌격하는 놈들을 순식간에 네뎃놈 쏘눅히시였다. 녀대원들이 수류탄벼락을 안기는것과 동시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무뒤에 숨어서 긴칼을 휘두르며 졸병들을 돌격으로 내몰던 적장교놈을 단방에 요정내시였다.

이날 김정숙동지와 녀대원들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잘루목을 차지하려던 놈들은 전멸되였으며 무송현성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날 무송현성전투에서 세우신 김정숙동지의 위훈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때 김정숙동무가 잘루목을 지켜내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을것이라고, 그는 아주 이악한 녀성혁명가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그이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높이 올리신 수령결사옹위의 총소리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도 높이 메아리쳤다.

백영미

### 가사

## 병사의 군복속에 수첩이 있네

병사의 군복속에 수첩이 있네  
자그마한 수첩에 다 담겨져있네  
고향의 당부도 군기앞에 다진 맹세도  
심장의 박동처럼 언제나 울려주네

한생에 잊지 못할 복무의 날들  
땀에 젖고 보물진 갈피마다 새겨지네

영웅의 그 시도 적혀있는 수첩 작아도  
언제나 걸음걸음 위훈으로 떠미네

귀중한 청춘시절 병사로 사는  
수호자의 긍지가 어려있는 수첩이여  
준엄한 그날 오면 어머니조국 위하여  
병사는 너를 품고 결전으로 나아가리

최성혁

##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예술적탐구

박춘택

우리 문학을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선군문학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창조와 건설에서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고수하고 옳바로 구현한다는것은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민족생활을 자기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리익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자기 인민의 자주위업실현에 참답게 복무하도록 창조발전시킨다는것이며 민족성을 견지하고 옳바로 살린다는것은 문학을 자기 인민의 민족적인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창조발전시킨다는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민족문학의 생명이고 얼굴이며 정신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만 우리의 선군문학은 순결성과 혁명성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으며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강유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주체성과 민족성은 각기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구현된다.

### 1

문학창작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예술적탐구에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자기 나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의 기본문제는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현실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내는것은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기본요구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현실에 대한 진실한 반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현실생활은 문학작품의 모체이며 작품창작의 원천이다.

자기 나라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고서는 문학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도 자기 나라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리해관계에 맞게 풀어나갈수 없으며

문학이 자기 나라 혁명에 더 잘 복무할수 없게 한다.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는 그 나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들이 있다. 이것을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로 내세우고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 투쟁의 길을 가르쳐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기본형상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진실하게 형상하는데 예술적탐구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관계이다.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리해할수 없고 그 본질을 밝혀낼수 없다. 문학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관계를 화폭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령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흡,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진 혈연적누대로 되고있으며 수령을 아버지로 모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로 되고있다.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일심단결된 이 위대한 사회적대가정속에서 새로운 인간전형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한 새로운 인간관계가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우리 문학은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관계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인 《총검을 들고》, 《강계정신》, 《봄의 서곡》 등은 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실현된 사회,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아버지로 따르는 한없이 공고한 세계야말로 우리 나라의 현실이며 선군조선의 참모습임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소설들에는 이러한 현실이 진실하게 그려져 주체성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작품들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풍모와 숭고한 인간적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으며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를 한마음한 뜻으로 따르며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부강조국건설에 한몸바쳐 투쟁하는 시대의 영웅들, 선군혁명선구자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우리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예술적탐구를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문학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삼기 위하여서는 작가가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옹호하는 립장에 튼튼히 서 있어야 한다.

창작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긍정하고 옹호한다는것은 문학작품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을 절대화하고 높이 내세우며 로동계급의 당을 칭송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인민대중을 찬양하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하는 문제는 수령, 당, 대중의 형상을 통하여 실현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수령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하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문학의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으로 되는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으며 수령의 혁명활동과 투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있는것과 관련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문학의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문학은 마땅히 수령을 제일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하며 수령형상을 창조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높은 예술적정지에서 창조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에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로서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이 빛나고있다.

문학창작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주체성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인민대중의 형상이다.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지향을 옳게 반영하여

그에 맞게 형상을 창조할 때 문학에는 주체성이 뚜렷이 구현되게 된다.

우리 문학의 주체성은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인 선군시대의 새 인간, 선군혁명선구자의 형상속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된다.

선군시대의 인간, 선군혁명선구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전위투사들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선군시대의 인간전형창조에 의하여 문학작품의 주체성이 구현되게 되는것은 선군시대의 새 인간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인간이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문학이 형상해야 할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이 지닌 성격적특질은 무엇보다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것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야 할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오직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상도 운명도 뜻도 같이하려는 신념을 간직한 인간이 우리 문학이 창조해야 할 시대의 전형이며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인간답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포부와 래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사회주의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불굴의 인간, 락천적인간이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주인공이다.

이런 인간의 전형은 많은 장중편소설, 시들과 함께 최근년간에 창작된 단편소설 《스물한발의 <포성>》, 《94시간》 등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창작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의 전략과 전술이 담겨져있다. 따라서 문학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한다. 당의 의도는 곧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작가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가치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가 시

대의 명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작가가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민족최대의 상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수령님의 유혼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지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옹계 반영하였기때문이다.

## 2

문학창작에서 민족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문학창작에서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기본은 성격창조에서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기질과 성품을 뚜렷이 그려내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특성을 살리는데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민족적성격은 오랜 생활과정에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매개 민족의 고유한 특질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위대한 민족으로 되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충실성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역사적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진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민족의 모든 우월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비롯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도덕적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높이 발현되고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예로부터 강의한 의지와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이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폐절이 밝고 겸손한 민족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성격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우리 문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유한 성격적특질과 민족의 우수성을 체현한 민족적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내어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것은 최근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과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들, 력사소설들과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소설들만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에는 우리 인민의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적특질을 체현한 선군시대 참된 일군들의 형상이 있다.

여기서도 특히 자기 령도자의 구상과 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고 자기 령도자앞에서 솔직하고 순박하며 숭고한 도덕의리심, 인간미를 체현한 강태혁의 형상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우수성, 정신도덕적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결백하게 살아왔다. 의로운것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정의와 배치되는 부정의와 용감히 싸운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의 발현이다.

장편소설 《축복》, 《돌아오다》 《새벽하늘》 등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에서는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량심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고결한 품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량심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품성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한 장편소설 《높은 목표》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도 찾아보게 된다.

문학창작에서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성격과 함께 오랜 역사적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 미풍량속과 우리 인민에게 낮익은 아름다운 자연풍경도 실감있게 그려내야 한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의 아름다운 생활기풍과 도덕품성, 세태풍속을 문학작품에 진실하게 그리는 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성을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에서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적극 탐구하고 실감있게 그려야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작품에 민족성을 생동하게 살릴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민족성구현의 이 요구를 구현함으로써 력사소설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민족적향기와 정서가 흐르게 하였다.

문학창작에서 민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풍량속을 잘그릴뿐아니라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

#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최고사령관기 나뭇긴다  
병사들의 가슴속에 뿜어넘치는  
결사의 맹세가 어렸는가  
원수벌 빛나는 기폭은 붉게도 타누나

백두산혁명강군이  
선군혁명의 길에 높이 추켜든  
백승의 기치  
영광의 기치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언제나 이 기발 우러르면  
병사들의 가슴은  
숫구치는 격정에 끓고  
조국수호의 한길에  
피끓는 심장을 바칠  
열망에 불란다

공지로워라  
이 기발과 함께 우리 얼마나  
보람찬 군무의 날과 달을 보냈더냐  
이 기발을 휘날려온 훈련의 산발들마다  
펼쳐 나가는 싸움군의 용맹을 키운  
병사의 위훈이 별처럼 빛난다

우러를수록 무적의 힘과 열정이  
온몸에 용솟음치누나  
경애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한 자연풍경도 실감있게 그려내야 한다.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훌륭히 그려낸 작품은 사  
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나라  
를 위해 애써 일할 결심을 굳혀준다. 때문에 우  
리 작가들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뜨겁게 느끼  
고 진실하게 그려야 하며 조국강산에 대한 묘사  
를 통하여 민족의 기상이 느껴지며 민족적인 향  
취가 풍겨나오게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최근에만 하여도 단편소설 《폭  
설이 내린 뒤》, 《왜가리떼 날아들 때》, 《숲에 깃  
든 녀》을 비롯한 현실주제의 작품들에서 사회주  
의조국에 펼쳐진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훌륭히  
그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했  
고 민족의 기상이 느껴지고 민족적향취가 풍겨나  
오게 하였다.

문학에서 민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족의 고  
유한 문학형식들을 적극 탐구이용하고 민족문학  
의 고유한 표현수단과 수법을 활용하며 우리 군

김정일장군님의 필승의 기상이 넘치고  
강철의 담력과 신념이 비껴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이 기발 나아가는 곳에  
불사신의 총폭탄대오가 굽이치고  
이 기발 휘날리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력을 다진 백두산강국이  
존엄높은 위용을 세기에 떨치나니

이 기발  
진두에 높이 추켜든 대오는  
시련의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아라  
이 기폭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한숨결로 고동치는 심장들은  
가야 할 불바다 천만리라도  
승리자의 웃음으로 헤쳐가리라

아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성스런 기발  
병사들 틀어진 결사용위 총검들우에  
이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기발은 승엄히 나뭇긴다  
이 기발아래  
선군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대와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  
는 민족적형식도 끊임없이 창조하는데 깊은 관심  
을 돌려야 한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조  
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  
며 일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자존심  
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사회주  
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존엄과 슬기  
를 떨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차고 긍  
지높은 모습을 깊이있게 보여주는데로 예술적탐  
구를 지향시켜야 한다.

작가들은 문학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  
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선군문학을 우리 인민  
의 민족자주정신의 빛나는 예술적정화로 만들어  
야 할것이다.

## 공화국기를 처음 보던 날에

김영길

조국해방이라는 역사적사변을 나는 남녘땅에서 맞이하였다.

웅진땅에서 어른들이 그토록 환희와 희열에 넘쳐 맞이한 조국해방.

백두산전설과 더불어 그토록 만사람의 가슴속에 경모의 이름으로 불리워오던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소식도, 북반부에서의 제반민주개혁실시와 근로자들의 드높은 증산성파도 어른들의 이야기로 귀동냥해 들으며 나는 소년의 마음에도 북쪽땅에 대한 그리움을 누를수 없었다.

그러한 조국해방의 역사적사변을 실제적으로 온넛과 폐부로 체험하게 된 생활적인 계기가 나에게도 찾아들었다.

그때 내가 살던 웅진은 38도선이 가로막힌 남쪽땅으로서 미제와 남조선군경들의 총칼이 란무하고 복침을 위한 군사기지로 되어있었다.

평양에서 공화국의 탄생이 선포된 다음날인 주체37(1948)년 9월 10일 아침이었다.

국민학교 6학년생이던 나는 그날도 여느날과 다름없이 동무들과 함께 학교로 가고있었다.

군청앞을 지날 때였다. 오고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군청지붕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고있었다.

군청기발계양대에는 난생처음 보는 기발이 가을바람에 펄럭이고있었다.

《야, 저거 무슨 기발이가?》

《글쎄, 처음 보는 기발인데...》

《기발이 참 멋있는데!》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우리의 등뒤에서 누군가 귀속말로 속삭여주었다.

《저 기발이 공화국기다. 진짜 조선의 기발이지.》

《뭐, 공화국기?!...》

우리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렇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어제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시였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남쪽땅인 웅진에도 저렇게 공화국기가 계양되었구나.》

누군가 해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어느새 군청앞거리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야야, 물러들 가라! 물러가!》

경관들의 곤봉에 사람들은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우면서도 좀처럼 헤쳐갈념을 안했다.

경관들은 악이 나서 공포까지 쏘아대며 날뛰기만 했지 누구 하나 어찌지 못했다. 그저 불난 강변에 덴소 날뛰듯 했다.

이때 경찰서장이 달려와 호통을 쳤다.

《야, 뭇들 해?! 기발부터 내리우라.》

《서장님, 저걸 보십시오. 기발을 내리우지 못하게 국기계양줄에 수류탄을 매달아놓았습니다.》

보니 정말 울리는 줄, 내리는 줄에 수류탄이 두개씩 매달려있었다. 어느 줄이나 당기면 터지게 되어있었다.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였다.

《사격하라!》

경찰서장이 명령했다.

철갑모를 쓴 경관들이 모래가마니를 둘러메고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모래가마니로 방탄업페부를 만들고 그속으로 기여든 경관들이 국기계양줄에 매달린 수류탄을 겨냥하고 집중사격을 가했다. 총소리가 쿵북듯 했다. 마치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집중사격을 했지만 수류탄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다. 한참후에야 겨우 한발의 수류탄이 터졌다.

하지만 국기계양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경관들은 사격을 계속했으나 세발의 수류탄을 끝내 터치지 못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세발의 수류탄은 시간을 끌기 위한 눈속임으로 매단 가짜 수류탄이였다.

그날 공화국기는 군청의 국기계양대에서 오래동안 그대로 휘날렸다. 공화국의 존엄을 힘있게 시위하면서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그날 내가 처음 본 공화국기, 그것은 곧 진정한 내 나라였다.

그날의 공화국기를 보면서 실제로 나는 우리에게도 참다운 자주적삶을 누릴수 있는 진정한 향토, 내 나라 땅이 생겼음을 내 눈으로 확인하였고 조국해방과 공화국창건이라는 거대한 역사적사변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였다고도 말할수 있다.

그렇다.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 **김일성**조선을 상징하는 공화국기! 그것은 우리의 신념, 희망의 등대, 투쟁의 기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해방시켜주셨기에 우리의 존엄높은 공화국기도 탄생할수 있는것이다.

적들은 인민의 마음속에 철의 신념과 의지로 간직되고 그 가슴마다에서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그 어떤 총칼로도, 교수대로도 절대로 내리울수 없었다.



그날의 공화국기를 진정한 조국으로 가슴에 새긴 남녘의 인민들,미체의 총검을 박차고 투쟁에 일떠선 제주도와 지리산의 인민유격대원들,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정든 고향땅을 뒤에 두고 용약 싸움길에 나선 의용군용사들, 옥중에서 청춘을 보낸 비전향장기수들...

참으로 그들은 진정한 조국,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국기를 지켜 싸운 참된 애국투사들이 아닌

가!... 세월은 많이도 흘러 60년의 년륜을 새겼지만 처음에 공화국기를 바라보던 때의 그 감정은 변함이 없다. 신뢰감, 긍지, 자부심...

만민의 신뢰를 받은 우리의기발은 장장 60년을 승리의 한길우에 휘날려왔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의 공화국기발은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기치이다.

## 조국이며 믿어다오

김철혁

손자애를 업은 어머니의 모습  
왜 이리도 눈곱에 뜨거워오는가  
생각되어라  
보이어와라  
저 잔등에 업혀 자란 어릴적 내 모습

엄혀 울보채기도 하고  
저 잔등 척척히 적시기도 했으련만  
어머니에겐 그것이 짐이 아니었다  
어머니만이 맛보는 락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이며 어머니시여  
다 자라서도 구실 못하는 자식이야말로  
그대에게 참으로 무거운 짐

조국이며  
침상에 누웠다고 내 그렇게는 살수 없구나

내 그대의 짐을 더는 전장에서  
두다리를 바쳤건만오늘도 그날의 총대처럼  
붓대를 틀어쥐었나니  
그대의 맑은 하늘가에  
사랑하는 인민의 가슴에  
행복의 노래 투쟁의 시를 엮고저

믿어다오 조국이며 어머니시여  
바치는 이 아들의 심장의 언약을  
그대의 짐을 덜기 위해  
오늘도 이마음 전호가에 산다고

## 우리 맞고 보낸 날과 날들이

송재하

달려가보노라면  
백리물길은 켜지고 푸른 물결 흘러들어  
미처 알아볼 사이도 없다

생각에 잠기노라면  
아득한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바뀌어져  
잠시 그러볼 사이도 없다

얼마나 벅찬 오늘인가  
잠시 생각하는 그사이에도  
이 땅의천리마는 하늘높이 솟구치고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그날은  
하루하루 우리앞으로 다가오거니

하늘도 땅도 놀래우며  
비약하고 비약하고 또 비약하는  
위대한 내 조국의 날과 날들은  
동무여 너와 나  
더 큰 위훈과 혁신으로 부르고있어라

그렇노라, 조국 위한 헌신에는  
젊고 늙음이 따로 없거니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이 나날에  
벽돌 한장이라도 더 쌓자  
흙 한짐이라도 더 지자

아낌없이 바치는 오늘이 있어  
더 좋은 래일이 있는것  
비약과 전진의 날과 날이 없이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환희의 그날이 있을수 있으랴

동무여, 너와 나  
백날 천날을 하루같이  
용암처럼 솟구치는 열정을 바칠 때  
애국가는 더 장중하게 울리고  
공화국기는 더 높이 더 세차게 펄럭이리니  
바치자 피끓는 심장까지도  
그러면 온몸을 불태우며 맞고 보낸  
그 헌신의 날과 날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리라  
우리는 태양의 영원한 축복을 받으리라



량정수

1

그대여 머리 흰 어머니들  
무심히 무심히 생각마시라  
허리띠 조이며 폐허 헤치며  
땀에 젖은 치마폭에  
너와 나도 키워오신 우리들의 어머니  
...

밖에는 화가들이 즐겨찾는 10월의 정원풍치가 볼머이 있게 펼쳐져있었으나 성준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들으며 팔짱을 낀채 사무실의 창가에 서있었다. 이미 반백에 가까운 머리가 보기 좋게 벗겨진 이마밑으로 큼직큼직한 이목구비가 자리잡고있어 얼핏 보기에 퍼그나 과묵한 인상을 주는 그였다. 심각한 사색을 할 때면 늘 그러하듯이 불편에서 량쪽 입귀로 두가닥의 굵직한 주름살이 뚜렷하게 흘러내렸다.

성준은 정원의 해묵은 아름드리 느티나무 뒤켠으로 사열받는 열병대오마냥 줄지어 그꼴하게 자란 수삼나무의 붉고 누른 잎새를 지켜보며 몇시간 후면 만나게 될 어머니를 그려보았다.

도당에서 사업을 시작하던 그해 봄에 어머니는 바로 저 수삼나무모를 자동차에 싣고 그를 찾아왔었다.

《임자 생각은 어떨런지 몰라두 난 어째서인지 이수삼나무가 좋더구만. 어디에 심어도 굵는 법이 없고 곧게만 자라구 별레도 안 탄다네.》

나무를 다 심고나서 밑그루를 톱으로 다져주면서 어머니가 외운 말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못 잊어서 그러는지 예순이 넘어 일손을 놓게되자 곧 나무모기르기에 애착을 가진 어머니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당청사의 마당으로 짙은 곤청색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잠시후 조심스러운 문기척소리가 울리고 운전사가 들어섰다.

《과장동지, 떠날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행할 의사와 간호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성준은 팔짱을 풀어 피곳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무엇인가 결심을 내린 모양으로 결괏있게 돌아서며 책상우에 놓인 손가방을 들었다.

《가가요.》 운기가 자르르 흐르는 복도를 지나 총계를 내리면서 성준은 마음에 무겁게 매달려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불현듯 깨달았다.

지금 그가 막 떠나가려고 하는 생양리에서 관리위원장으로 사업을 하고있는 막내동생 달성이가 며칠전에 도당에 불려와있는것이다. 그동안 한번쯤은 나타날 법도 하련만 지금껏 얼씬 안하는 동생이다.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알아볼수도 있었으나 성준은 단호하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당일군의 처신에서 그것은 금물이였다. 이제라도 나타나면 함께 어머니에게 가련만... 별안간 해별에 눈이 부셨다. 현관을 나선것이다.

승용차결에서 의사, 간호원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뒤 성준의 일행은 출발하였다.

차창밖으로 활기있는 시가지의 풍경이 비껴오는가싶더니 이어 시외의 풍요한 가을풍치로 바뀌었다. 도로의 좌우켠에 벼가울이 한창인 취야벌이 시원하게 띄여있었다. 벌판에서는 겉싸게 벼포기를 누벼나가는 농장원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일손을 다그치고 벼단을 골박아실은 트랙포르들이 논길마다 뚱깃거리며 꼬리를 이었다. 바쁜 걸음만 아니라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논판에 뛰어들어 어깨가 시도록 한바탕 낫가락을 휘두르고싶을만큼 마음조차 흐트란 광경이었으나 마주오는 도로의 한끝에 물끄러미 시선을 준 성준의 심중은 개운치 않았다. 일이 공교롭게는 됐다. 래달에 열리게 될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대표로 어머니가 선출되게 된 이 마당에 와서 하필이면 꼭 어머니를 모시는 막내동생이 파오를 범할것은 뭐란말인가.

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립시로 조직된 도당

상무에 동원되어 분망한 나날을 보내던 지난달에 어머니의 대표선출문제가 상정되자 누구보다 커다란 긍지를 느꼈던 성준이다.

세상에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랴만 부모없는 열일곱남매를 데려다가 친자식 이상으로 키워낸 어머니에 대한 성준의 마음은 남달리 지극했다. 오래전에 일손을 놓고 이마적에는 백발을 무겁게 떠인 인생의 황혼기였으나 자식들에게 얹혀 가정잡사에 파묻힌 촌놈은이가 아니라 로인들로 본조를 무어가지고 산림리용반 나무모본조장이 되어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어머니였다.

지금도 봄가을 식수철이 오면 아들, 딸, 손자들은 물론하고 붉은넥타이를 팔랑거리는 소년들과 나무모를 심군 했다. 성준이를 비롯하여 어머니가 키워낸 그날의 열일곱전제고아들이 지금은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부문들마다에서 어엿한 일꾼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몫을 차지하고있다.

성준의 눈앞에는 어머니가 대회에 참가하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하던 형제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최전연에서 련대장을 하는 경수의 부리부리한 두눈, 618 건설돌격대에 나가있는 우람한 체격의 셋째 병국이, 평양시당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순희의 서글서글한 얼굴 그리고 군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는 수남이, 수산사업소 지배인 명철이, 무역선을 타고 대양을 넘나드는 광호... 한명 또 한명 형제들의 모습을 떠올릴수록 그들모두를 그늘없이 키우느라 허리띠를 조이고 밤을 지새우며 아글타글 마음을 기울인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에 그들땀하게 차오른다.

때문에 도당 상무에서는 어머니를 대표로 선출할것을 내정하고 80 가까운 나이를 고려하여 현지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할데 대한 임무를 성준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는 달성이가 파오를 범하였으니 어머니의 심리적타격이 여간 아니였을것이다. 혹시 몸져눕기라도 했다면 큰일이 아닐수 없었다.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잘 모신다는것이 무엇이겠는가. 앓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것이며 근심걱정 없도록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준이도 그의 안해 복순이도 오는 인편가는 차편마다 계절맞춰 옷가지도 보내고 로환에 좋다는 약들도 장만하여 두었다가 꼭꼭 떨구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지금도 승용차의 뒤좌석에는 의사로 일하는 성준의 안해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겨울내의와 여러가지 보약꾸레미가 의젓하게 자리잡고있다. 게다가 성준은 아들로서 사사용무가 아니라 부모를 모신 자식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희소식을 가지고 가는 결음이다. 장년의 사나이도 기쁜 소식을 안고 어머니한테로 달려가는 마

음은 결코 세사롭지만은 않는것 같다. 오늘처럼 마음이 울렁거린 때가 언제였던가. 성준은 저도 모르게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날이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

몰라보게 변화해진 도소재지의 모습은 군복차림으로 역나들문을 나선 성준이를 한동안이나 어리둥절하게 했다. 복무의 나날 한순간도 잊은적 없는 고향이건만 너무도 달라진 그 모습앞에 서고보니 커다란 감회와 함께 그 어떤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하였다.

배움의 꿈을 안고 들어섰던 대학교정을 뒤에 두고 《푸에블로》호사건으로 조국앞에 닥쳐온 전쟁의 불구름을 가시려고 용약 초소로 달려갔던 그날로부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세월이 언뜻 흘러간것이다. 성준은 배낭을 추슬렀다.

문득 어디선가 《성준이 왔니!...》하는 어머니의 반가움에 폭 젖어든 목소리가 들려올듯만싶었다.

그의 배낭속에는 어머니에게 드릴 옷감 한벌이 소중히 들어있었다. 술한 자식들을 키우느라 언제한번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하고 늘쌍 단벌치마저고리차림이었던 어머니가 마음에 뻗혀 전우들이 마련해준 제대기념품들을 다 마다하면서도 어머니의 옷감만은 받아들었다.

한번이라도 좋은 옷을 입은 어머니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싶은 자식의 소박한 마음이였다.

그가 막 사람들이 봄비는 역전을 향해 걸음을 내짚을 때였다. 여러대의 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 수화물이 나드는 철문을 지나 역구내로 들어서는 모양이 그의 눈에 띄었다.

적재함의 옆구리에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를 로력적성파로 맞이하자는 내용의 프랑카드가 펄럭이고 차곡차곡 쌓은 흰 마대들이 가득 실려있었다.

성준은 서둘러 걸음을 그리로 옮겼다. 화선병사의 열정이 살아오른것이였다.

무엇으로든지 고향땅에 돌아온 제대병사의 도찰을 의의있게 장식하고싶기도 했던터였다. 역구내에서는 벌써 화차방통으로 짐을 옮겨심는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대뜸 배낭을 벗어놓은 성준은 일판에 뛰어들어 어깨를 들이밀고 지워주는 마대를 연방 저날랐다.

한개는 성차지 않아 두개씩 덧지고 달리다싶이 했다. 적재함우에서 짐을 지워주던 두 처녀가 《군인동지, 힘들텐데 한개씩 메십시오.》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걱정해주었다.

《괜찮소. 어서 한개 더!》성준은 씩씩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제품이요? 보아하니 무슨 옷 같은데?... 꽤 많구만.》

호들갑스런 웃음이 터졌다.

《애개개, 요게 뭐가 많아요? 오늘만 해도 벌써 다섯탕째예요. 우린 오늘까지 연간계획을 150프로나... 아, 아... 가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그만 두번째 마대가 세멘트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기겁한 처녀들이 냉큼 뛰어내렸다.

《아이, 이걸 어쩌니?... 비서어머니가 애기처럼 다루라고 신신당부한건데...》

처녀들은 울상을 짓고 성준을 뵈히 건너다보았다. 《애기라니?!...》

《이건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입힐 옷...》

갑자기 파란 수건을 쓴 처녀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두눈을 깜박거리며 성준을 뚫어저쳐 쳐다보다가 두손뼉을 딱 마주쳤다.

《어마나, 이게 누구예요?》

《애, 넌 왜 그러니?》

몸이 실한 결의 처녀가 영문을 몰라 제 동무를 툽 친다.

《어머니, 어머니!...》

파란 머리수건의 처녀는 부끄러움도 잊은듯 소리쳐 부르며 사람들사이를 비집고 어디론가 뺨다 달려갔다.

성준이는 처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것을 느끼며 서둘러 마대를 둘러메었다. 작업은 거의 결속되어가고있었다.

문득 그의 앞으로 파란수건처녀와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여인이 허둥지둥 다가왔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어머니였다. 틀림없이 어릴적부터 망막에 익혀두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어머니!》

성준은 손에 들었던 병사배낭을 툴렁 떨어뜨리고 몇걸음 내짚었다.

《성준아! 네가 돌아왔구나. 어디 보자. 그래 언제 왔느냐. 밥은 어디서 먹구?...》

어머니의 목소리는 알릴듯말듯 가늘게 떨리었고 두눈곱에는 물기가 반짝이였다.

《금방 들어서는 길입니다.》

성준은 부러 활달하게 대답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비서동지, 축하합니다. 늘 외우시더니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군요.》

여기저기에서 반가운 상봉을 축하해주는 목소리들이 울렸다.

《인사하거라. 우리 공장 사람들이다.》

그러니 어머니는 권직물공장 당비서인것이였다.

군인답게 제격 정황판단을 한 성준은 의젓하게 거수경례를 했다.

《안녕들하십니까?》

《비서동지가 오늘은 명절이외다. 연간계획도 앞당겨 끝냈겠다, 아들까지 돌아왔으니 잔치를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얼굴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잔치를 차려야 할가봐요. 참, 내 정신 좀 봐라. 성준아, 복순이다. 이때껏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성준은 어머니가 내세우는 파란수건처녀가 한 집안에서 자라던 단발머리소녀였음을 그제야 가까스로 알아보았다.

청춘의 10년이란 그런것이다.

《자, 얼른 마지막제품을 운반해옵시다.》

누군가의 선동에 사람들이 와 흠어져가고 빈차들이 역구내를 빠져나갔다.

성준은 어머니와 어깨나란히 걸으며 스스럼없이 배낭을 앗아든 복순이의 활짝 붉어진 얼굴을 자주 결눈질해보았다.

사내가 고작 어머니의 옷감 한벌 달랑 들고 돌아왔다는것을 복순이가 알게 되면 까르르 웃어떨 것 같았다. 글썽 당의 신임속에 어머니는 큰 기업소의 당비서가 되어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입힐 옷을 만든 기쁨에 웃고있지 않는가.

그날 저녁 성준은 어머니앞에 옷감을 내놓았다.

《어머니, 이건 그저 제 성의입니다.》

어머니는 생각깊은 표정으로 옷감을 쓸어보며 말했다.

《원, 녀석두... 옷감은 무슨 옷감이란 말이나. 나야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옷이 있지 않느냐...》

그때로부터 어언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성준은 달리는 승용차가 더딘것만 같았다.

그런데 동생은?!... 에이, 못난것 같으니...

## 2

《아니, 삼촌. 아직 확정된건 아니구 어머니건강 상태를 검진해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 다나 봐요.》

《아무튼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수다. 어머니 건강이야 별다른게 없으니까 일이야 다 된거나 같지요.》

달성은 흥분하여 제잡담 두손을 썩썩 마주 비볐다. 남편이 떠난 뒤 한참 못미처 시동생을 맞은 복순은 사기가 오른 달성의 얼굴을 어이없이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차, 이거 내가 이럴새가 없지.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쯤 어머니한테 거진 다 갔겠는데... 제격 따라잡아야지.》

《글썽 떠난지 두시간이 채 안됐어요. 그런데 삼촌, 그 무슨... 파오를 범했다는건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젊은 시절의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있

는 복순은 자기의 입밖으로 나가는 말마디가 아  
짜아짜한 시한탄이라도 되는듯 조심조심 물었다.

《처벌을 받았지요. 정신이 번쩍 들게 비판도  
받구요. 내 그래서 지금 그 봉창을 하자구 잡도  
리를 단단히 했습니다. 되는데로 일하는 하루살  
이식일본새를 똑 빼버리자는겁니다. 자, 형수. 난  
그럼 가겠습니다.》

달성은 벌떡 일어서며 벗어놓았던 모자를 머리  
에 쓰고 미처 어쩔새없이 작별인사를 했다.

《아니, 삼촌. 그렇게 훌 가버리면...》

복순이가 난색을 지으며 서둘러 따라일어섰건  
만 달성은 출발선에 다가서는 룡상선수모양으로  
신발신은 발을 탕탕 굴러보더니 부릉거리는 자동  
차의 운전칸으로 쑥 들어가앉았다.

《형수님, 잘있습다.》

멀어져가는 자동차의 적재함우에서 전기줄타래  
며 비닐관들이 가득 실려 들썩거렸다.

《원참, 성미두...》

복순은 종시 안심치 않은 낫색으로 밍지 않게  
눈을 흘기며 중얼거렸다.

《운전사동무! 냅다 뺏소. 어서...》

도당에서 비판을 받던 때의 무거운 기분은 씻  
은듯이 가서지고 마음이 절로 부풀어오른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회에 참가하게 됐단 말  
이지. 잘된셈이야.)

기쁜 마음 같아선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던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싶다. 나라에서 마련하는  
큰 대회에 어머니가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여서인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있는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든다.  
부모없는 철부지들을 말아안고 이날이때까지 대  
바르게 키우느라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많은 어머  
니인가.

달성이의 이번 걸음도 사실은 어머니가 든 아  
픈 《매》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앞에 한개 리의 살림을 책임진 호주가 제  
어미 고생을 덜겠다구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  
다니, 그게 어디 당한 일인가? 논벌에 흘러드는  
물길을 돌려 나무모발판수를 해서 농사에 지장을  
주었으니 내 어깨에서 골백번 물지게를 벗어놓은  
들 마음이 편하겠나. 잘된 일 같지 않네. ...》

경우가 대쪽같은 어머니였다.

땅꺼지게 한숨을 쉬며 달성을 지켜보는 시선  
은 서늘했다. 이제는 년세도 많으신데 일손을 놓  
고 그만 쉬십시오 하고 그만큼 만류했건만 굳이  
나무모 기르는 일을 하고있는 어머니이다.

레년에 없는 무더위때문에 시들어가는 나무모  
를 살려내겠다고 애쓰는 어머니를 돕자고 한 노  
릇이 그토록 심각하게 번져질줄은 전혀 뜻밖이었  
다.

《예로부터 충효는 난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부  
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나라앞에 죄되는 일을 해도  
된다는 법은 없었네.》

잘못을 범하면 대범하게 처신할줄도 아는 달성  
이어서 두말없이 상급당조직에 자기의 잘못을 스  
스로 드러내놓았던것이다.

(늘쌍 말썽이란 말이야. 짜개바지시절부터 어머  
니를 위해드린다면... 내 원참...)

달성은 스스로 자신을 질책했다. 정말 그랬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락하산사건》이 바로그  
러하다.

언제인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어머니를 마중하  
겠다고 떠났던 달성은 그만 장난질에 빠져버렸었  
다.

잔뜩 흐려지는 하늘에서 금시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 가지고떠났던 우산으로 락하산을 만들어  
타고내리면 얼마나멋있으랴.

높직한 양수장지붕우에서 뛰어내렸지만 그만  
우산이 뒤집어지면서 흙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어깨동무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  
다.

승기가 오른 그는 우산살끝을 모조리 실로 동  
여매어 손잡이에 감아쥐고 다시 뛰어내렸지만 애  
꿎은 우산은 망가지고 다리뼈가 떨어져 엉덩  
음을 터뜨렸다. 때마침 나타난 어머니가 쏟아지  
는 비를 흠뻑 맞으며 달성을 업고 병원으로 달  
려갔고 형제들은 입을 모아 그를 나무랐다.

어머니를 마중갔으면 똑바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장난질을 하느냐고...

그리고 또 있다. 그것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을 산불사건이었다.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했던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집안을 들끓게 했다.

형제들이 저마끔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겠다고 좋은 일을 찾아할 공론들을 펼쳤다.

달성은 두눈을 감박거리며 궁냥에 골똘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언제인가 자기들의 밥상을 차려준 뒤 자기들이  
어머닌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가고 물었을  
때 외우던 말이 떠올랐던것이다.

《어머니 말이나?... 어머닌 고구마를 제일 좋아  
한단다.》

달성은 대회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에게 군고구  
마를 대접해드릴 결심을 굳혔다. 누구든지 짝패  
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형제들을 한명한명  
더듬어보던 끝에 한뜨래 원철이를 짚었다.

(됐어. 부업반 박아저씨한테 부탁하면 고구마는  
줄것이고...)

달성은 슬그머니 원철이를 눈짓하여가지고 집  
을 나섰다.

그로부터 한것이 지나 《불이야!... 불이야!...》  
하는 웨침이 동네에서 터져나왔다. 뒤산 술술에  
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확 퍼지는 불길  
을 띄어본 마을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장달음을 놓  
았다.

다행히 화재는 제때에 제압할수 있었으나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불에 그슬리거나 까맣게 타버렸다.

현장조사를 하던 안전원(당시)들이 고구마구이를 하던 흔적을 찾아내었으나 달성이와 원철이는 뽕소니를 쳐 탈곡장 뒷북데기속에 틀어박혀 숨어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집에 들어갈념을 못하고 생강냉이알을 훑어먹으며 잔뜩 겁에 질려 오만가지 걱정만 하였다. 이제 대회에서 돌아온 어머니 앞에 어떻게 나선단 말인가. 걱정끝에 그들은 그만 한지잠을 자버렸다.

다음날 그들은 어른들이 모여앉아 떠들썩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집마당에 슬며시 끼여들었다.

《어이구, 임자가 정말 수령님을 만나뵈왔단 말이지.》

《젊은 아낙이 술한 애들을 모아안구 고생도 많더니만 오늘같은 기쁜 일이 있을려구 그랬구만.》

여기저기서 감탄과 찬사의 목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울려나왔다. 늙은이들이 연송 눈굽을 찍어내며 저마끔 어머니의 뉴퐁치마저고리와 왼손 무명지에서 반짝이고있는 금반지를 만져보곤 했다.

어머니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고 목소리는 도간도간 끊기었다.

《예. ...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에게 이 치마저고리와 금반지를 안겨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몇번이구 당부하셨습니다. ...》

이윽하여 동네어른들도 돌아가고 식구들만이 남았다.

드디어 만누이 금옥이가 달성이와 원철이를 발견하고 달성이네의 죄행을 어머니에게 낱낱이 알려바쳤다.

어머니는 무거운 낫빛으로 불충이 나고 검댕이가 게발린 그들의 차림새를 하나하나 여겨보고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나보다. 고구마 몇알하구 술한 나무들과 바꾸다니...》

어머니의 눈길은 마치도 푸른 숲 가녁에 거뭇하게 드러난 뒤산 화재터로 가있었다.

《말이야, 어서 달성이하구 원철이에게 옷을 갈아입혀라. 밥도 먹이구...》 그들은 형제들의 눈총속에 어머니의 분부를 따랐다.

《이제는 모두 나오너라.》

어머니는 자식들모두를 불러내더니 앞서 걸기 시작했다. 프락을 벗어나고 마을을 지나 어머니는 한번 뒤돌아보는 법도 없이 묵묵히 걸기만 했다.

형제들은 즐거운 날에 어머니의 마음을 흐려놓은 장본인인 달성이네를 쫓아보고 가만가만 욕하면서 한견으로는 어디로 무엇때문에 가는가 하는 의문때문에 머리를 기웃거렸다.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의 발길이 가닿은곳은

뜻밖에도 안전부마당이였다. 근무를 서던 나이지긋한 안전원이 사람좋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맞았다.

《아이구, 종순아주머니가 어떻게 여길 다... 대회에 갔다가 오늘 왔다니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으나 그것은 어설피기 그지없는 표정으로 서서히 사그라졌다.

《허... 너희들도 왔구나. 모두 얼마나 좋겠나. 어머니는 수령님을 뵈옵구 대회에까지 참가했으니... 그런데 어떻게 왔습니까?》

안전원은 사람 좋게 웃으며 사연을 물었다.

《아하... 이녀석들이 나타났다가?!... 음... 그래 어젠 어딜 뽕소니쳤댔지?》

그는 달성이와 원철이의 폭 펄근 뒤터수기를 썩썩 쓸어주며 물었으나 열입곱형제들은 영문을 몰라 어머니의 별안간 초췌해진 얼굴색만을 살펴볼뿐이였다.

《사실은... 우리 애들이 산불을 놓았다기에...》

어머니의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제야 사연을 알아차린듯 안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기쁜 날에 무슨 그런 일때문에 왔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안전부에서 토론이 있었습시다. 산불이 난건 사실이지만 크게 번져지기 전에 수습한데다가 애들이야 아이들이 아닙니까? 처벌 적용대상이 아닌 미성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겠습니까. 단단히 타일러주고 말아야지요.》

《아닙니다. 나라의 귀중한 산림을 불태웠으니 누구든 책임을 지구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 애들의 어머니입니다.》

《아니, 그럼... 허 야단인즉... 야단이 났군. 그러니...》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에 그만 달성이와 원철이가 왕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법의 요구이기에 앞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할 처벌입니다.》

어머니의 강경한 요구에 안전원은 난처한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결론을 받은듯 조서를 작성하고 무엇인가 성급하게 뚝뚝 써내려가더니 드디어 《수표하십시오.》 하며 문건종이를 어머니에게 내어밀었다.

달성은 어마지무 황겁한 심정으로 어머니가 또박또박 수표를 하는 조서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조서우에 또렷이 새겨지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다.

자기의 가슴속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지는듯... 다시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위한다고 하면서 재구를 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달성이는 선택한 마음으로 이렇게 맹세했었다.

그후 어머니는 스스로 무보수로동을 하였다. … 그런데 머리가 희어진 이마쪽에 와서까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린다면 노릇이 또다시 과오를 범하였으니… 달성은 다가오는 생양리로 빨리 가고싶었다.

《뽕소. 뽕으라니까.》 그의 독촉에 운전사는 싱긋 웃으며 변속지레대를 당겼다.

세월은 흘렀어도 추억들은 마치도 달성의 마음 속에 귀중한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어떤자옥처럼 새겨져 잊혀지질 않았다.

### 3

설봉기슭에 자리잡은 로인분조의 양묘장에서는 한창 일손들이 바빴다. 분조장 한종순과 로인들을 도와 리당비서가 휘둥해가지고는 청년분조의 처녀총각들이 2년생 나무모들을 겨울나이용 움집에 옮겨넣느라 분주하게 오고갔다. 한견에서는 한창 기운이 올라 발기우리한 수삼나무모를 떠내어 스무그루씩 단을 묶고 또 한견에서는 그 나무모단들을 날라서 움집에 차곡차곡 기대여 눕히면서 뿌리사이로 모래와 흙을 알맞춤히 다져넣는다.

서너정보 잘되게 펼쳐진 나무모밭은 윈견에 무성한 종자숲을 끼고 둘레에 키높은 수삼나무와 키작은 산뽕나무, 떨기나무들로 여러겹의 방풍림을 둘렀다. 소소리 높직이 자란 수삼나무는 이 가을에 자기의 특색있는 자태를 더욱 웅건하게 드러내고있는데 마치도 하늘을 향해 곧추 세워놓은 활촉이나 거대한 비파형단검처럼 보인다.

나무모밭의 한견구석에 종자창고를 비롯한 건물네동이 아담하게 들어앉고 전주대들이 서있는 옥계천쪽으로는 새로 일떠세운것이 분명한 양수장과 그옆으로 인공못이 두개나 자리잡고있었다.

달성이가 도당으로 출발하기 전에 꾸려놓은 나무모밭의 관수시설이었다. 양지바른 곳에 뿔을 지어 길죽하게 만든 움집들은 마치 고지를 사수하려고 파제긴 전호처럼 보였다.

《비서동지, 한가지 제기할만 합니까? 휴식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를 닮아 눈망울이 부리부리하고 어깨가 꺾 벌어진 청년분조장 철진이가 리당비서와 종순어머니가 일손을 잡고있는 곳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어머니, 어떻습니까?》

당비서는 함께 일하는 종순어머니에게 친근한 어조로 의논하듯 물었다.

《어떻게 있나요. 쉬었다 하겠는데… 나도 반대없습다.》

그의 말에 철진이가 병싯 웃으며 작업장을 향해 소리쳤다.

《휴—식! 동무들, 휴식합시다. 모두 여기로 모이시오. 오락회대장 선녀동무, 어디 있소?》

그 소리에 새벌논에 남실남실 웃음이 넘쳐나는 키가 쏙 빠진 처녀가 날듯이 달려와 철진이와 마주서더니 뒤편따라 속살거린다.

《어머니, 멋진 한쌍이 아닙니까?》

《저녀석이 제대되어오자부터 벌써 눈치가 다른 것 같더니… 나무도 심고 사랑도 하고… 좋구만요.》

종순어머니는 젊은 리당비서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소리없는 웃음을 머금었다. 잠간새에 청년분조원들이 로인분조원들을 빙 둘러싸고 모여 앉았다.

그앞에 나선 선녀가 새물새물 웃음을 띄운 얼굴로 무슨 말인가 고르는듯 하더니 꽃잎같은 입술을 놀렸다.

《오늘 오락회시간에는 우선 중요한 소식부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열리게 될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우리 고향의 한종순영웅할머니가 참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성이 터져오르고 짹짹그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영웅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는것을 제기합니다.》

또다시 박수와 호응소리가 뒤따랐다. 이 마을에서 한종순영웅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무렴 온 나라가 다 아는 모성영웅이 아닌가.

《할머니, 어떻게 되어 열일곱남매의 친어머니로 될수 있었는지 말해주십시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종순어머니는 뜻밖에도 화제가 자기에게로 집중되자 그만 난처해져 손사래를 치며 결의 리당비서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길을 주었다.

《어머니, 제 생각에도 우리 청년들이 참 좋은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들이야말로 이 땅의 래일을 책임진 기둥감들인데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는게 어떻습니까?》

종순어머니는 랑패한 기색을 짓더니 마음을 고쳐먹은듯 조용히 자리에서일어났다. 허리가 조금도 굽지 않은 몸매는 꼳꼳하였고 무겁게 떠인 백발이 10월의 해별아래 성성하게 빛났다.

《내 한생의 공지가 있다면 영웅이 된것도, 대가정의 어머니가 된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직접 뵈온것이랴오. …》

그는 추억한 눈길로 청중을 둘러보고나서 푸른 숲이 소슬한 바람결에 설레이는 설봉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도 때로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하지요.

어떻게 돼서 제 한몸조차 보존하기 어려운 전쟁판에서 남의 자식들까지 말아안을 생각을 다 했느냐구, 또 전후의 어려운 나날에 그 술한 자



식들을 어떻게 끝까지 키울수가 있었느냐구 말이 웨다.》

로인의 두눈이 가늘게 쪼프려지고 세월의 년륜 인듯 그물같은 주름살이 얼굴을 온통 뒤덮었다.

하많은 만단사연이 담긴 어머니의 목소리에 모인 청년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

…1950년 10월이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소용돌이는 전선원호로 들끓던 안악군 농촌마을의 아늑한 농가에도 어김없이 덮쳐들었다.

아직은 이렇다할 표상조차 없는 후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라는 귀설은 말이 섬찍한 느낌을 끼치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건잡을수없이 부산스럽고 황황한 속에서도 애기어머니들에게 우선권이 차려졌다.

한중순은 첫머리를 돌쳐업은채 보파리 하나를 쫓겨들고 다른 애기어머니들과 함께 자동차의 적재함우에 빼곡이 좁혀앉았다. 행복한 신혼살림의 꿈이 보금자리를 틀었던 나지막한 초가집이 점점 멀어져가더니 드디어 황토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 등성이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미처 거두지 못한 벼단과 벼동가리들이 떠엄떠엄 널려있는 들판 한가운데로 길게 뻗어나간 도로를 따라 자동차며 달구지들과 대오를 지은 형형색색의 후퇴대렬이 어디론가 흘러가고있었다. 사정없이 들추어대는 적재함우에 쪼그리고앉은 한중순은 이틀낮 하루밤을 쉬임없이 달리는 속에 굵이굵이 흘러온 길지 않은 인생의 단편들을 더듬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바라지 않던 생명의 출생을 놓고 한숨만이 가득찬던 머슴군 가정의 다섯째딸로 운명의 고고성을 터친 때로부터 소풍구리처럼 구질게 흘러간 유년시절과 영문도 모른채 소리높이 만세를 부르며 그리도 두렵던 황지주의 개화장이 동강나는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8.15조국해방 그리고 얼굴이 불깃한 때과의 삼복철 옛가락같은 혼사말로 꼭지를 떼여 온 동네가 들썩하게 모여든 혼례식장에서 숫저운 마음으로 결눈질해본 남편의 기쁨넘친 얼굴, 꿈같은 밀월의 신혼생활과 첫아기의 출생, 아득한 영원에도 잇닿아진것만 같던 그 행복이 전쟁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나간것을 가슴아프게 추억했다.

소박하고 꿈많은 농촌의 새각시였던 중순의 생활은 거창한 격류에 휘말려 어디론가종잡기 어렵게 흘러가기 시작한것이였다. 중순은 전선으로 달려나간 남편과 헤어지던 때의 일이 가슴아리게 떠올랐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그날부터 어디인가 나돌아다니면서 집에도 들리는듯마는듯하던 남편이 군복차림으로 불쑥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진 중순은 오돌오돌 떨리는 다리를 감추지 못하며 말끄러미 쳐다보고있었다. 해방전에 품팔이, 철로군, 금쟁이… 하여튼 남북조선 안 가본데가

없다던 남편이 오늘은 안해와 아기와 깨 쏟아지던 살림을 남겨두고 떠날것이라는것을 불안하게 눈뵈는 심장의 박동이 똑똑히 알려주고있었다.

《여보, 전쟁이요. 이 집과 장군님께서 주신 내 땅을 잘 지키자면 미국놈들을 때려부셔야 하요.

인츰 돌아올테니 너무 걱정마요. 기껏해야 몇 달 걸리겠지. …》

보고들은것이 많아서인지 남편은 그저 순박하고 어리무던한 촌농사군이 아니였다. 중순은 눈물이 가랑가랑해져서 평소에 어렵기만 하던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걱정말래두. 그깟놈들이야 도적놈들인게구 나야 주인이 아니요. 당신은 남으로 도망간 황지주가 나타나면 또 중살이를 할테요?》

남편은 다소 엄하게 물었다.

《몸성히 기다려주. 애기랑 집안살림을 잘 돌봐야 해. 그리구 전선원호사업에도 앞장에 서구…》

남편은 중순의 등에 업혀 쉼쉼 꼬집에 빠진 자식의 여윈 볼을 다독여주고는 소겨리반 일보러가듯 대범하게 떠나갔다. 그후 전선에서 두번 편지가 왔었는데 남진하고있다는것과 승리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이 담겨있었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는 당부가 씌여있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그 남편과 남편이 말기고 간 귀중한 땅과 살림살이를 뒤에 내버린채 평생 단 한번도 와본적 없는 낯선 곳으로 자꾸 가고있다. 끝없이 계속될듯하게 지루한 후퇴의 걸음이 자강도땅에 접어들자 급격한 기후의 변화가 피부로 절박하게 감촉된다.

아스라하게 소소리높이 솟은 낯선 산악이 울창한 수림을 두르고 연줄연줄 이어지며 위압적으로 굽어본다. 갈가마귀떼처럼 때없이 덮쳐드는 적폭격기들이 떨군 폭탄때문에 여지없이 파헤쳐진 도로의 량컨으로 불타는 마을과 폐허로 된 공장의 정경이 스며드는 추위속에 어수선하게 안겨왔고 무엇이 불타는지 몽게몽게 타래치는 연기가 간단없이 서려들었다. 나이지긋한 운전사가 뿔어넘치는 팽각기에 물을 보충할적마다 하늘을 살피며 습관처럼 외우던 그 《원썹놈의 비행기…》들과 개고개(당시)어방에서 맞다들었다. 하늘을 까맣게 메우며 덮쳐든 폭격기편대의 맹폭격을 만났던것이다. 놈들은 인명은 물론 개고개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듯 번갈아 내리쏘이며 줄폭탄을 떨구고 촘촘히 기총사격을 들이댔다. 모든것이 폭격과 기총사격의 대상이였다.

소이란에 불이 달린 차에서 허공뛰어내린 중순은 업었던 애기를 가슴에 돌쳐안으며 허둥지둥 길옆의 진대나무밑으로 기여들어갔다. 낭자가 풀린 머리칼이 산산이 흐트러져 앞을 가리우고 손발과 무르팍에 피가 터지는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매연에 가슴이 터질듯 한 즐기침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사방에서 평음을 지르며 터지는 폭탄에 쓰러진 사람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려고 두눈을 꼭 감았다. 오직 품에 끌어안은 아기의 가슴에서 팔딱거리는 박동소리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강구었다. 맹폭격의 돌풍은 터질 때와 같이 한순간에 급격히 사라졌다. 뼈가 저려들게 하던 썩새기의 급강하소음이 씻긴듯 가셔진 현장에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혈육을 잃은 사람들의 곡성과 절구가 울렸다. 치떨리는 참상이 벌어진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도와 희생자들의 시신을 매장하고자 종순은 기운이 빠져 쓰러지듯 주저앉아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오?》

《글쎄 일행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텐데...》  
하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들이 웅성거리며 귀전을 울린다. 가까스로 눈을 뜨고 살펴보니 함께 차를 타고오면서 낮을 익힌 네 아이가 쿨썩쿨썩 울고 있는 모양이 보였다.

젖먹이가 하나, 두살짜이가 둘, 세살짜이가 하나... 말도 채 익히지 못한 어린것들이 《엄마... 엄마야...》를 갈린 목소리로 가까스로 외우며 꺾꺾 흐느껴울었다. 폭격에 어머니를 잃은 애들이었다.

종순은 한달음에 와락 달려가 서러운 눈물에 젖은 아이들을 와락 그러안았다. 끄스름과 눈물, 코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애들의 주제는 처참했다.

《자, 이러구 있을새가 없소. 빨리 떠나야 하오.》

책임자인듯 한 구레나룻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대오를 수습하느라 경황없이 오갔다. 무슨 공장의 후퇴대렬인듯싶은데 기름냄새가 풍기는 사람들의 잔등이 모자라게 목직한 상자들을 골박아지고있었다.

《개고개를 넘자면 서둘러야 되오. 날이 어두우면 맹수들이 날친다오. 아이들을 한명씩 말소. 아주머니, 눈물을 거두시오. 어서 북으로 가야 합니다.》

주저앉았던 종순은 펄쩍 정신을 차렸다. 서둘러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포대기에 싸인 젖먹이를 띠개로 짊어안았다. 그런데 나머지철부지들이 문제였다. 폭격에 놀랐는지 낯선 사람들이 다가서자 도무지 결을 주려 하지 않고 기겁한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발바둥질을 쳤다. 아무리 일리고 타일러도 그냥 몸부림을 하며 종순을 향해 빨강게 언 두손을 내어뻘쳤다. 자기때문에 일행의 출발이 지체되는것 같아 종순은 창황중에도 송구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어서 먼저들 떠나세요. ... 우린 암만해도... 쉬엄쉬엄 뒤따라가야 할거봐요.》

주저주저 조심히 의견을 내는 그의 말에 잠시 궁냥을 해보던 책임자가 마지못해 결심을 내렸

다.

《그럼 날랜 젊은이들로 고개마루까지 짐을 저다놓게 하고 지름길로 마중 내려보내겠수다. 큰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슈. ...》

대오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굵어진 령길을 따라 사라졌다가는 나타나기를 거듭하며 점점 멀어져 갔다. 외로이 남은 종순은 막막한 생각에 다섯 아이를 둘러보았다. 망망한 어둠의 바다에 홀로 내던져진것 같은 고독감이 엄습했다. 점차 바늘끝같은 추위를 머금은 어둠이 사방에서 조여든다. 한발자욱 또 한발자욱... 종순은 청얼거리는 어린것들을 데리고 걸음을 내짚는다. 산골의 어둠은 왜 이다지도 빠르나. 짙어지는 어둠속에 어린것들은 그의 치마말기를 꼭 부둥켜쥐고 지척지척 따른다.

앞서 갔다는 젊은이들이 어서 마중왔으면...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걱정마오. 그깃놈들 도리깨질하듯 잡아치우고 곧 돌아올테니까. ...》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린다. 이 어둠, 가는 앞길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 그 끝에는 또 무엇이 기다릴까. ... 소이탄때문에 화재가 일었는지 불어치는 찬 바람속에 화광이 어롱어롱하며 어둑시니같이 잔뜩 솟구친 벼랑과 바위들이 금시 덮쳐들듯이 멀어지고 다가들고 한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얼어든 두볼로 흘러내린다. 소리를 죽여가며 속울음을 울었다. 자기마저 우는것을 알면 어린것들이 덩달아 아우성치듯 울것 같아 폐부로 헉헉 흐느꼈다.

문득 령길의 저 멀리에서 숨가쁜 자동차의 기관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가싶더니 차츰 커지기 시작한다. 행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손을 흔들었지만 썩하니 찬바람을 끼었으며 지나쳐버렸다. 한대, 또 한대... 종순은 단념했다. 또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전조등이 확 비쳤다가 사라진다.

뻑— 아츠러운 제동마찰음소리... 차에서 내풍기는 화끈 단 열기가 얼어든 몸을 반갑게 휩쌌다.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엄하면서도 우렁우렁한 음성이 그의 귀전을 울렸다. 종순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 못하며 하늘에서 울리는가싶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돌아섰다.

어둠속에서 후리후리한 키클을 지닌 어떤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것을 느꼈다. 어찌된 일인지 외로움은 불시에 사라지고 반가움이 확 솟구쳐올랐다.

누굴가, 대체 뉘시길래 이 험한 세월에 볼데 없고 거칠데 없는 궁상꾸러기 아낙네와 주접스러운 아이들을 불러주시는것인가.

또다시 고마움에 울컥 솟구치는 눈물...

그분께서는 벌써 한쪽무릎을 굽히시고 오돌오

돌 떨어뜨린 어린것들을 외투자락에 감싸안으시었다.

《...미국놈들 폭격을 만나 사람들은 몽땅 흩어지고 대렬은 떠나갔는데... 저 애들의 어머니들이 그만 숨졌습니다. 그냥 애들을 버려두고는 차마 떠날수가 없어서...》

토막토막 이어지는것은 말소리라기보다 바로 설분에 가까웠다.

《가만, 한지에서 이러구 있을수 없지. 성호동무, 상길이를 데리구 뒤차에 옮겨 타야겠소. 애들이 모두 쫘쫘 얼었구만.》

《알았습니다.》

어둠속에서 누구인가 재빠르게 달려간다.

《자, 어서 오르십시오.》

누군가 맥이 탁 풀린 종순을 부축하여준다.

어린것들을 품에 안으신 그분께서도 차에 오르시었다. 차안은 뻘뻘해졌다. 승용차는 달렸다.

차창밖으로 그토록 무섭게만 느껴졌던 미궁같은 어둠이 부드러운 공단처럼 미끄러져지나간다.

종순은 그분께서 물으시는대로 조리없이 후퇴경위와 폭격맞은 이야기를 말쑥올렸다. 이야기가 어린것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들이 숨지는데까지 이르자 으득 어금이를 억누르는 소리가 울렸다.

힘한 령길을 뚫아오르는 자동차의 기관소음마저 불시에 작아진것 같았다. 차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종순은 가볍게 떨리는 그분의 손이 어린것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것을 보았다.

《미국놈들때문에 이 어린것들이 고아가 되다니...》

마디마디 절통한 아픔이 질게 습배인 목소리였다.

그 아픔이 종순의 가슴에도 옮겨왔다.

어떤분이신데 부모없는 어린것들을 두고 저리도 가슴아파하실까. 종순은 송구스러워났다. 괜한 말쑥을 드린게 아닌가싶었다. 저 아픔을 덜어드리고 나누어 가질수만 있다면...

《집과 부모를 잃고 헤매이는 어린애들을 볼 때면 내 가슴이 몹시 아팠는데 이렇게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올리는 그분의 말쑥에 종순은 그만 몸둘바를 몰랐다.

전시에 더우기 지금같은 때에 어머니라면 누구든 부모없는 아이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는 법이다. 자기도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모성의 본능으로 잠시 말은것이 아닌가. 그런데 고맙다니...

차안에도 차창밖에도 어둠뿐이어서 종순은 잠시 그분의 모습을 알아볼수 없어 안타까웠다. 그 밤으로 차는 쉬임없이 달려 송원, 고인, 전천, 성간을 지나 강계땅에 들어섰다. 동틀무렵 종순은 그분과 헤어지게 되었다.

《아주머니, 승리한 다음 다시 만납시다. 이애들

과 함께 말입니다. ...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습니까?》

종순은 새벽의 미명속에 그분의 우렷한 영상을 우렷했다.

《아무것이나 다...》

《힘들겠지만 이왕 이 아이들을 말은바 하고는 잘 키워주십시오. 친어머니가 돼달라는것입니다. 내 나라의 태일이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량팔에 껴안으신 애들을 굽어보시었다.

《제가... 제가 말아서 꼭 잘 키워줍니다.》

초물같이 진한 눈물이 그냥 발치에 툭툭 떨어진다. 어쩌면, 어쩌면 그리도 친어머니 같으실까.

그분께서는 수첩장에 무슨 글인가를 써서 그의 손에 쥐여주시며 거듭 당부하신다.

《전쟁이 끝나면 이 애들을 모두 데리고 평양으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승용차는 떠나갔다. 종순은 새벽의 찬 대기속에 차창밖으로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는 그분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수그렸다.

《자, 아주머니. 우리도 떠납시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아마도 자애로우신 그분한테서 분부를 받은 군관이리라. 종순이네 일행이 탄 승용차는 향하리의 재등마을에 들어섰다. 멀리로 우뚝 솟은 장자산이 바라보이고 앞곡에 맑은 개울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자리잡은 농가에 들어선 그는 편뜻 정신을 차리고 그분께서 남겨주신 종이쪽지를 펼쳐 보았다.편지에는 이 편지를 소지한 애기어머니를 잘 도와주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수령님의 존함 수표까지 써여져있었다. 해방후 성인학교에서 익힌 우리글인지라 종순은 어렵지 않게 편지의 내용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두번세번 곱씹어 읽어보고나서야 종순은 밤새도록 함께 차를 타고온 그분이 다름아닌 **김일성장군**님이심을 깨달았다.

불현듯 어둠이 가셔지고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이 비친듯 눈앞이 밝아졌다.

아, 그분이시였구나!...

나라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각에 분초가 새로웁건만 종순과 아이들을 위해 차를 세워주신분, 승리한 그날에 다시 만나자고 다정한 약속을 남겨주신분, 힘겨워도 전채고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분, 그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였구나!...

그때로부터 전쟁 3년간 최고사령부에서부터 종순이네가 자리잡은 초가집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쌀과 옷가지를 실은 차와 우마차들이 오고갔다.

종순의 한생에 언제나 집과 부모를 잃고 헤매이는 어린애들을 볼 때면 내 가슴이 몹시 아팠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

종순로인의 이야기는 끝났다. 정오무렵의 태양이 따사로운 빛을 한껏 뿌리는 나무모발의 휴식장은 소리 하나없이 조용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한집안식구가 됐어요. 그 후에도 난 부모없는 어린것들이 눈에 띄울적마다 우리 수령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모두 품에 그리안군 했수다. 말하자면 우리 가정은 수령님의 가슴아픔을 덜어드리구 함께 나누는 나날에 생겨났다고 말할수 있지요. …》

## 4

서산마루로 해가 기울자 곧 용광로의 화광인양 노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보는이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할만큼 붉디붉은 색조가 흰구름을 불덩어리처럼 물들이더니 이어 온 하늘에 저녁노을의 장관을 펼쳤다. 대지도 노을빛의 반사를 받아 마가울의 울긋불긋한 자기의 자태를 온통 붉은 빛갈 한가지로 일신하였다. 하늘도 땅도 열렬한 저녁노을의 후광에 휩싸여 이글이글 불타는듯 하였다. 노을은 하루의 총화이기 앞서 더 좋은 태일에 대한 약속이고 희망이며 념원이다. 그리고 지나간 하루에 대한 보람이며 긍지이다. 값높이 바쳐진 오늘의 노력과 랑심이 없다면 저 노을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즐겁고 그것을 대하는 신념의 눈이 어찌 티없이 맑지 않을수 있으랴.

성준은 오후 한것을 로인분조, 청년분조원들속에 섞여 나무모발 관수설비를 놓는 일에 바쳤다.

관리위원장 달성이가 도착하자 모두들 당장 해제끼자고 욕욕하는 바람에 통이 큰 일판이 벌어졌던것이다. …

작업은 끝나고 시운전도 무난하게 끝난 뒤라도 두들 흥성거리며 마을로 헤쳐갔다.

종순은 한창때의 혈기가 되살아난듯 웃동을 벗어제끼고 쉼터의자에 동생과 나란히 앉아있는 성준에게 다가가 수건으로 목덜미의 땀을 씻어주며 말했다.

《자네들이 오늘 땀캐나 뺐네그려.》

《어머니도 다리쉽을 좀 하십시오.》

《괜찮네. 이제는 저녁날씨가 제법 선선하다네.》

감기만나지 않게 옷옷을 입을걸 그러지 않나?!》

어머니는 그들의 어깨우에 옷옷을 걸쳐준다. 성준은 이윽도록 노을에 물들어 붉게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문득 자기의 직분을 의식했다. 홀륭한 이 어머니가 나라에서 부르는 큰 대회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랴. 성준은 자기의 걸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길에서는 승용차와 의사, 간호원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점

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 대답이 없다. 반기는 기색도 즐거운 표정도 아닌, 지어 엄숙하기까지 한 낮빛이다. 성준이와 달성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의아스러워졌다. 어찌된 일인가?… 혹시 못 알아들으신거나 아닌지. …

이윽고 어머니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렸다.

《옛말에 팔십늙은이가 늦게 자라는 소나무를 심어 아름답게목이 될 때까지 가꾸며 장수했다는 말이 있네. 하지만 사람의 명이 아무리 길다 해도 백년이야 못 채우지 않겠나. 마흔해전에 우리 수령님께서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 대표들과 온 나라 인민들앞에서 날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주시면서 고맙다고 치하해주셨네. 내가 한 일이 무슨 그리 큰일이라구 그렇게까지 아껴주고 내세워주신단 말인가. 수령님의 그 믿음에 떠받들려 내 한생이 빛났고 나는 임자네들의 친어머니가 될수 있는것이 아니겠나. 헌데… 오늘 내가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한다면 우리 장군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까?… 자네들을 키운 애기는 마흔해전에 수령님께 다 아뢰었으니 그 보고를 다시 또 할수야 없지 않은가 말이네. 눈썹재기만 한 일을 해놓구 계속 칭찬을 바라는 철부지는 아닌게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저녁노을이 물든 붉은 시선으로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은 불길이 이글거리는것 같았다. 성준이와 달성은 동시에 부르짖었다.

《아니, 그럼 어머닌…》

그들의 목에서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넘어가는 소리가 울렸다.

《이 늙은이를 내세워주고싶어하는 고마운 그 마음들을 내 왜 모르겠나.… 나두 한달음에 달려가 우리 장군님을 뵈고싶어. 하지만 차마 마음이 따라서질 않는구만. 수령님께서 맡겨주고 가신 내 나라, 내 조국을 한몸에 안으시고 눈오고 바람부는 거친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는 그이앞에 어찌 빈손으로 나설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날 보고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구, 이제는 그만 쉬라고 한다네. 그래 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크게 할게 있겠나.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최전연길을 걸으시면서 나무가 없는 산밭을 보시고 가슴아파 하시였던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잠이 오질 않아. 밥을 씹어도 모래알을 씹는것 같고 자리에 누워도 가시를 깔고 누운것만 같단 말일세. 우리가 어떻게 한가정이 되었나. 어버이수령님의 가슴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에 난 자네들의 친어머니가 되고 자네들은 내 친자식이 된게 아니겠나. 나를 위해주는 임자네들의 마음은 고맙네만 잠판목이 무성한 숲을 두고 〈고난의 행군〉 탓이라구 하자니 그건 나그네들이나 할 소리지 이 나라의 백성된 도리로야 어찌 입에 담을

법 한 말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장군님의 집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만 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게 있구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으로 당을 따르고 조국을 받드는 일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나.》

성준의 가슴이 쿵 울렸다. 아, 그렇구나.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고 따르는 어머니의 마음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젊어지고 더 커졌구나. 어머니는 불타는 그 마음속에, 자기의 손으로 가꾼 푸른 숲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 그날을 그리며 삶을 빛내여가고있구나. ...

노을은 더욱 선명한 붉은빛으로 대지를 물들여 갔다.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간 2003년 11월 평양에서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가슴가득 훈장과 메달들을 빛내이며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수천여명의 어머니들이 대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 시각, 한종순은 아들, 손자들과 함께 나무모를 심고있었다. 푸르러가는 숲이 가을바람에 의젓한 몸짓을 하며 더 좋은 래일을 약속하고있었다. ...

## 《축지법》 이야기

한원희

조국해방으로 들끓던 그해 가을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었네  
전설처럼 들어오던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장군님과 무릎을 가까이한  
로동자, 농민, 기업가, 상공인대표들

처음엔 어찌 감히 마주앉으랴  
황송한 마음 그지없더니  
나중엔 어려움도 있고  
한가지 청을 드렸네  
하늘땅을 주름잡으시며 왜놈들을 치시던  
《축지법》 이야기 들려달라고

—허, 축지법이라...

참 야단났군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땅을 주름잡아 달릴수는 없습니다

장군님은 겸허히 웃으시었네  
유격대는 인민들과 함께 싸웠다고  
왜놈들이 몰래 달려들 때면  
인민들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매복했다가  
왜놈들을 모조리 축쳐버렸다고

상식

### 왼쪽귀보다 오른쪽귀로 들은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은 사람이 왼쪽귀로 들을 때보다 오른쪽귀로 들을 때 더 똑똑히 기억에 남는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과학자들은 마흔네살—일흔아홉살나는 보통사람들을 몇개의 조로 나눈 다음 일련의 수자들을 불러주어 그들이 왼쪽귀와 오른쪽귀로 엇바꾸어 듣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기억에 남는 수자를 말하게 하였다.

분석결과 과학자들은 더 많은것을 기억하게 하

만약 《축지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의 《축지법》이라고  
누구나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면  
누구나 《축지법》을 쓸수 있다는  
김장군님의 그 말씀

사람들은 감격에 목메여 들었네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퇴성이 터지고  
세상을 가르는 번개의 장검이 번뜩이는것처럼  
그이는 평범한 인민이라는 하늘에서  
일제를 격멸시킨 천지지락을 안아오셨구나

김일성장군님 들려주신 《축지법》 이야기는  
지나간 일이 아니었네  
세월이 흐를수록 천변만화를 일으키며  
조선을 찬란히 빛내갈 이야기였네

아, 김일성장군님의 《축지법》이여  
인민의 위대한 수령만이 창조할수 있는  
이 세상 만능의 보검이여  
오늘은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너는 오늘도 래일도 세월의 끝까지  
영원한 승리만을 안아오리라!

려면 오른쪽귀로 듣게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것을 청각신경과 대뇌사이의 련계와 관련되는것으로 보고있다.

왼쪽귀로 들은것은 대뇌의 오른쪽부분에 전달되며 오른쪽귀로 들은것은 대뇌의 왼쪽부분에 전달된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대뇌의 오른쪽부분은 왼쪽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 위인의 형상과 생활반영의 진실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 그럴수록 철학성이 더욱 깊어지며 화폭속에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이 구현되면 될수록 진실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된다.》**

단편소설 《적동색머리수건》(황용남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7(2008)년 4호)은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현지도의 길에서 나무리벌의 한 농장에 들리시어 웅심깊고 따뜻한 어버이사랑으로 전쟁으로 인한 농민들의 마음속 상처를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속에 펼쳐보이고있는 작품이다.

소설의 우점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파정을 상세하게 펼쳐보이는 식으로 형상한것이 아니라 현지도의 로정에 깃든 잇을수 없는 사연에 모를 박고 그것을 생활적화폭으로 뜨겁게 형상한것이다.

사회주의협동벌에 처음으로 모내기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신께서 몸소 기계의 내속을 깊이 파악하시고 성능과 구조작용, 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구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의 자욱, 그 자욱이 나무리벌의 한 농장에 새겨질 때까지의 가지가지의 잇을수 없는 일들, 오랜 실농군들은 기계로 모를 내면 혹시나 모가 상하지 않을가 저어하면서 그 사용을 반대해나선다.

이러한 만단사연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사회주의시대 협동벌에 《기계파괴자들》이 나타났다고 하시며 기계의 우결함들과 동작원리들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주신다. 이리하여 기계로 모를 내어 고달픈 모내기방법은 옛말처럼 돼버리고만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이듬해에 또 다시 이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 포전으로 아이들을 안고나오는 탁아소보육원인 장길순의 수고를 헤아려보시고 유모차를 해결해 보내주도록 하시는 감명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의 높은 형상세계는 이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내용을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모를 박음으로써 어떻게 농장벌에 유모차가 나타나게 되였는가 하는 문제를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보다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치신 위인의 숭고한 내면세계로 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하기에 이 소설을 읽고나면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어버이 우리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그 높은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소설의 우점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주요상대인물들인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격식이 없이 생활적으로 잘 맞물려 진실하게 그려낸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상대인물로는 전쟁시기 갓난 어린애인 딸 준실이만 남겨놓고 일가족들을 미제놈들의 폭격으로 잃은 실농군 대복이와 역시 온 가족을 잃은 장길순(장파부)이라는 탁아소보육원이다.

작품에는 온가족을 잃고 20년이나 그 상처를 가지지 못하고 홀몸으로 지내는 장길순과 그의 갇힌 일숨씨에 마음이 동하여 누구도 몰래 적동색머리수건을 농장상점에서 사서 주는 대복이와의 관계며 마을아낙네들과의 관계를 이야기의 진전과정에 점점 심화시켜나가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로정에 자연스럽게 합류되게 함으로써 눈물도 있고 웃음과 랑만도 있게 생활을 구수하게, 재미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서 탁아소보육원 장길순은 네 아이를 가슴과등에 업고 랑팔에 끼고 농장원들이 일하는 장소에 나타나 적동색머리수건을 흔들어 유모들을 부른다.

바로 이런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승용차를 타고 지나시다가 이 고장에 들리신다. 한 탁아소보육원의 수고를 헤아려보시고 유모차를 보내주도록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그 사랑, 그 은정으로 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은 나날이 흥겨워졌고 대복이나 장파부도 선살나이에 젊음을 되찾아 새삶의 희열을 느끼게 된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상대인물들의 생활을 희열과 랑만이 있게 위대한 수령님과 관계속에서 재미있게 꾸밈으로써 적동색머리수건의 의미를 철학성있게 높이 승화시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적동색머리수건, 그것은 복받은 세월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세대의 레찬이였고 보다 아름다와질 미래에 대한 축복이었으며 동시에 슬픔과 고생의 언덕을 넘으며 시대의 변천을 직접 목격하여 오는 말년의 인간들이 간직한 생의 희열이고 보다 큰 행복의 갈망이기도했다. ...》

작품의 우점은 다음으로 소설에서 땅냄새, 흙냄새가 나게, 향토미가 있게 언어형상과 세부형상을 잘한것이다.

작가는 농촌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를 진행하여 농촌도로며 비온 뒤의 풍경, 전후로부터 그 이후의 생활풍속 등을 농촌정서를 돈굴수 있게 언어형상과 세부형상을 구수하게 펼쳐놓았다.

농촌의 기계화와 수도화의 실현과정이며 그 이후 농촌의 전변과정도 이러한 언어형상과 세부형상으로 진하게 묘사함으로써 농촌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잘 그렸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 논배미에 들어온 잉어를 잡는 세부, 적동색머리수건세부, 비온 뒤 농촌도로에 대한 묘사, 락아소보육원들이 이야기판을 벌려놓는 장면들은 참으로 이채로운 언어형상으로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다.

물론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첫 장면과 둘째 장면에서 좀더 깊이있게 그려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소설은 근래에 나온 단편소설에서 자기의 몫이 큰 우수한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심중섭

## 홍남의 봄

최명길

공화국창건 60 뼉이 되는  
뜻깊은 이해의 봄이여선가  
여기 홍남비료공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더더욱 이 가슴에 사무치누나

해방되어 처음으로 맞이했던  
못 잊을 그 봄날  
우리 비료공장을 찾아오셨던  
수령님의 자애론 영상  
지금도 눈앞에 뜨겁게 어려와라

농사를 본때있게 짓게  
비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땅의 주인된 농민들의 진정을 안으신 수령님  
종다리 우짖는 발머리를 떠난 그 걸음  
비료공장구내길로 이어오시지 않았던가

비료가 많아야 쌀더미가 높아지고  
쌀이 많아야 새 조국을 일떠세울수 있다시며  
건국의 앞장에 홍남을 세워주신 수령님  
그이의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로동계급은 어떻게 떨쳐나섰던가  
얼마나 많은 비료를 생산하였던가

생각은 깊을수록 뜨거움에 젖노라  
진정 비료가 얼마나 중하셨으면  
우리 수령님 것처럼 불철주야 하셨으랴

홍남을 찾아주셨던 그 봄날부터  
찾고 또 찾아주신  
그 심혈 우리 무엇으로 다 헤아리라

내 지금 추억의 구내길 걸노라  
그러면 건국의 그 봄날처럼  
뜻깊은 올해를 풍작의 해로 빛내려  
들끓어번지는 농장벌을 돌아보신 수령님  
그 걸음으로 다시 이곳을 찾아주시릿

하조장의 키 솟구는 비료산을 볼 때도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라시며  
한줌 비료를 손에 드신 수령님  
해빛처럼 밝게 웃으시는  
그이의 그 영상 금시 어려오는듯

아, 해마다 오는 봄이여도  
이해의 봄은 류달리 추억이 뜨겁구나  
비료로 우리 조국을 받들어온  
그 세월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되는  
뜻깊은 홍남의 봄은 우리 수령님의 봄

오, 장군님의 령도따라 우리 언제나  
수령님의 조국을 더욱 빛내여가리  
비료로 앞날의 강성대국을 떠받들  
그 열망 더욱 타오르는 봄이여  
그 맹세 더욱 불태워주는 봄이여!



## 우리 가정 이야기

정성환

이제는 거리에  
인적도 뜸해진 밤  
포근한 잠자리에 단잠이 들라고  
대동강 버들숲의 소쩍새도 소쩍소쩍  
자장가를 불러 부르는 밤

승리거리 은행나무가지에 매달린  
장식불꽃들  
높고낮은 창문들의 하얀 불빛이  
내 마음을 더욱더 잠못 들게 하누나

평범한 날이라고  
그 누구에겐들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쳐오지 않으랴만  
나에게도 하많은 사연이  
몰릴듯이 이 가슴에 떠오르누나  
조국이 없이는 생각할수 없는 우리 가정  
이야기가...

## 1

간악한 승냥이 미제놈들탓에  
이 땅은 불속에 잠겼던 땅이었다  
내 철없던 시절  
한줌 흙에도 파편이 박혀있는 이 땅에서  
깨여진 반장의 벽돌조차  
금처럼 귀하던  
전후복구건설의 그 나날이 생각나누나

밤깊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밥판을 싸들고 떠나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나는 따라갔더라  
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건설장으로

끓은 옥쌀밥을 맛나게 들며  
그렇게 일하다간 쓰러지겠다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쓸어주며  
나직이 말했더라  
《나야 전쟁을 이긴 당원이 아니요》

여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  
푸른 섬광속에  
용접의 불보라는 건설장에 쏟아져내리고  
사람들의 눈빛은 별처럼 총총 빛났더라

자갈과 모래를 혼합기에 쏟은 사람들  
이마의 땀을 수건으로 땀 문지르고  
웃으며 다시 또 달려갈 때  
나는 생각했더라  
(저 사람들도 다 당원인게지...)

그날 밤  
자갈무지에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아직도 이 가슴에 생생하구나

나보다도 더 어렸던 시절 아버지는  
비 가릴 한치의 처마도 없었더란다  
언발을 녹일 한점의 불꼬치도 없었더란다

제것이 없던 그 세월  
열에 들뜬 밤이면 추위에 떨며  
남의 집 굴뚝을 불안고앓아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다는 아버지

쪽잠속에 꾸는 꿈은 어머니모습  
흰 저고리 입으신 포근한 그 품  
그리워 그리워  
잠결에도 그리워 흐느껴울면  
소쩍새도 소쩍소쩍 함께 울었다더라

모욕과 천대와 멸시가  
가시처럼 삔죽삔죽  
어린 몸을 사정없이 찌르는 세상에  
자기를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뜨셨다는 어머니  
그 품에 어머니의 따스한 그 품에  
한번만 정말 다시 한번만  
꼭 안겨봤으면...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던 아버지

장엄한 복구건설의 노래가  
하늘땅을 진감하던 그 나날  
의사선생 우리 집에  
예방주사 놓으러 왔을때  
나는 보았더라  
달아오른 아버지의 눈가에  
불쑥 눈물이 맺히는것을

나는 그 무슨 웃음거리나 만난듯  
해해해 웃으며 어머니에게 소리쳤더라  
나도 울지 않는데  
아버지가 운다고

그런데 어머니의 눈도  
불깃해지더니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었더라  
우리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채송화 곱게 핀 우리 유치원  
선생님 매일같이 나의 손에 쥐여준  
사랑과 과자를 집에 가져올 때도  
철따라 새 교복을 받아안았을 때도  
나를 보고 기뻐서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  
눈가엔 또 눈물이 어리곤 하더라

내가 기쁜 날에는  
아버지가 왜 자주 울었던지  
철이 들어서야 내 알았노라

가게방의 갖가지 음식앞에서  
주린 배를 그러안고 앉았던 아버지  
의식은 희미해지건만  
시끄러운 눈초리와 욕설에 쫓겨  
비척비척 발걸음 떼던 그 어린 모습이  
내가 본듯 눈에 삼삼하구나

왜놈의 자식들 책가방 메고  
거렁뱅이아이라 던지는 돌에  
이마는 깨어져 피가 흘러도  
그 누가 닦아주랴  
고아의 서러운 피눈물  
깨여진 자기의 팔소매로만  
터진 이마를 닦아야 했던 그 소년

뼈를 굽어내리는 아픔과 슬픔  
설음과 애원에 젖은 눈물로  
집집의 뜨락과 길거리를 적시며  
험한 그 세상을 헤쳐온 아버지  
어느덧 자라서  
손에 미장칼을 잡았다더라

남이 쓰다버린 미장칼에  
제 목숨을 의탁하고  
열다섯살 소년의 진한 땀을 바쳤건만  
왜놈의 세상에서  
하루 밥 한끼 먹지 못할 돈을 줄 때  
아버지의 가슴에 솟구친것은  
굴뚝같이 일어나는 분함이었다더라

불같이 타오르는 증오였다더라

하여 것처럼 벌지를 못해  
애쓰고 애쓰던 엽전일을  
집주인의 면상에 뿌려던졌을 때  
아버지의 팔목에 채워진것은  
악독한 왜놈순사의 차갑고 무거운 수갑  
《아, 어머니》—  
나라잃은 수난자의 설음은  
어린 소년의 몸도 마음도 갈가리  
찢어놓았더라

우리수령님  
항일의 피바다 천만리 가시덤불길을  
총대로 헤치시고  
우리의 하늘 우리의 땅을 펼쳐주시었을 때  
언제나 이고산 하늘이건만  
하늘은 눈부시게 밝았다더라

인정을  
인간의 뜨거운 정을  
눈물겹게 눈물겹게 그리던 아버지  
수령님께서 한품에 따듯이 품어주시니  
그것이 꿈처럼만 생각되었다더라

하여 땅을 치며 울어도  
안아줄 품이 없고  
하늘에 대고 하소를 해도  
들어줄 품이 없던  
그 못된 세상의 노예로부터  
서로 돕고 이끌며 정에 넘쳐사는  
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나의 아버지

세월은 흘러  
이 땅엔 새 거리 새 공장들이  
많이도 일떠섰더라  
그 무수한 노동당시대의 대기념비들에  
아버지의 더운 땀도 깃들었거니

몇달씩 집을 떠나  
이동작업 나갔다 돌아온 아버지의  
로동속에 거쿨진 손을 만져보며  
어머니는 말했더라

《아직 일없겠소?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좀 인계해주구려  
애들이 아버지의 얼굴마저  
잊어버리겠수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더라

애어린 청춘의 꿈은  
하늘만큼 커서  
하고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싶은것도 많았더라

아름다우면서도  
천진한 그 꿈을  
한가슴에 가득히 안고  
내가 학창시절을 마쳤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더라  
《망설이지 말아  
나라에서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서 일하는가 하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게 중요해》

아버지만큼  
키가 자란 나를 바라보며  
어머니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더라  
《나라에서 너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라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게다》

그것은 나의 부모가  
밝은 새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굳어진 신념  
그것은 나의 부모의 좌우명  
이렇게 사람들은  
나라의 정책에 매혹되었더라

그때  
천리마거리건설이 시작되는 해  
당에서는 나를  
청년돌격대로 불러주었더라

청춘은 불타야 하는 시절  
청춘은 미래를 당겨와야 하는 시절  
청춘의 투쟁은 조국의 부강이며  
내 조국의 전진이어라

나라없던 지난날 로동은  
육체적생존을 위한것이였지만  
오늘의 나의 로동은 력사의 창조자로  
내 조국을 희망의 언덕으로 떠밀어가는  
승업하고 자랑찬 로동이어라

한점 모닥불결도  
서로 자리를 권하는 뜨거운 진정  
노래하고 춤을 주는 명량한 생활

크게 벌린 일판을 불꽃이 튀게  
와닥닥 해제끼는 청춘들의 생활속에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려고 마음먹었더라  
행복을 기꺼이 받아안을줄 알면  
심장도 기꺼이 바칠줄 알아야지  
조국위해 바친 땀이 없으면  
조국의 귀중함을 그 어이 다 알라

그때를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돌격대의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어왔을가 하는 생각에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낼줄 안  
자부심이 생겨라

어느날 일터로 나갔던 나는  
뜻밖의 사고로  
생사의 문턱에 놓게 되었더라

그때 내가 살아날 길은  
저 하늘에 높이 뜬 달나라만큼 멀었던가  
안타까이 찾고 불러도 대답없는 나를 두고  
동지들도 나의 부모도  
이제는 맥을 놓고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

나라에선 벌써 바다라도 말리를 걸심을 품고  
긴급전투명령을 내렸더리라  
각 병원의 유능한 의사들을  
병원으로 불러주었다더라

하여  
여기서 저기서 소생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려올 때  
어느새 사람들도 달려왔다더라  
뼈를 바치겠다고  
살을 바치겠다고  
피를 바치겠다고

너도나도 병원으로 모여들 와서  
한 인간을 살리자고  
불같이 호소를 하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다  
아름답고 참된 사람들이더라  
남의 불행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할줄 아는  
인정깊고 의리깊은 사람들이더라

참으로 은혜로운 사회주의 내 조국의  
고마운사람들  
그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몇차례나 밟았던 내 심장의 박동은  
나는 기적으로 일떠섰거니

나는 놀랐더라  
이름있는 박사도 아닌  
너무도 평범한 나 자신의 소생을 두고...  
하여 나의 정신과 의지는 백배로 강해졌더라

조국에 대한 고마운 생각은  
마음속에 떠날줄 몰라도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나의 서툰 솜씨로는 도저히  
조국에 대한 노래를 지을수가 없었더라  
나를 키운 조국의 하늘같은 사랑을  
무엇이라 노래할수 있으랴  
나는 그저 《나의 생명을 두고》라는  
시를 써보았더라

...

놀라웠습시다  
나를 낳아 키워준 부모와  
함께 일하던 동지들밖에는  
죽어도 알아줄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욱 놀라웠습시다  
바다가 모래알같은 나를  
조국은 자식을 품어안은 어머니심정으로  
식어가던 이 몸에  
생명수를 부어주었나니

...

아직은 너무도 어린 짝을  
우리 장군님 태양의 밝은 빛발로 따듯이 안아  
나를 대학으로 불러주시었어라  
어서 커서 푸른아지를 활짝 펼치고  
향기론 열매를 마음껏 맺으라고

이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나는 그만 주저앉고말았더라  
영광의 그 《꿈》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더라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나의 오늘과 엇바뀌는 생각속에  
조각으로 굳어진듯  
움직일줄 몰랐더라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고  
돌격대의 동무들이  
나의 어깨를 흔들어서야  
이것이 꿈이 아닌 진실임을 느꼈노라  
그러자 쏟아지는 눈물 또 눈물  
흐느낌 흐느낌  
그 흐느낌이  
내 마음을 말해주고있었더라...

잘있거라  
내가 몇시간씩 잠들던 침실이여  
돌격대제복이 걸리던 옷걸개여  
하많은 추억이 깃든 사랑하는 일터여  
잘있거라  
나의 뒤통까지 합쳐 일할  
정깊은 동무들이여

하여 나는  
배움과 탐구와 실천의  
어렵고도 보람찬 고비를 넘어  
대학의 빛나는 과정을 마쳤노라

내가 쓴 미숙한 글을 보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것처럼 기뻐하시었을 때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나더라  
나라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거라던

참으로 내가 자란 모든 생활속에는  
조국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있었더라  
한모금 물에도 목이 멜세라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항일빨찌산의 피어린 투쟁력사를 들려주던  
선생님의 목소리로  
열이 오른 내 이마를 짚어주던  
의사의 정성으로  
자기를 바쳐 남을 위해주는  
동지들의 사랑으로...

그렇더라  
내 조국의 성스러운 냇과  
따스한 정은 우리 몸에 깃들어  
우리는 이 세상  
가장 깨끗한 량심을 지닌  
의리깊은 인간들로 자라났더라

내 조국이 사랑과 정으로 키워낸  
인간들의 모습은 수수해도  
그들의 의지는 강철보다 역세여라

그 마음과 마음들은  
아름다움으로 가득찼노라

### 3

오늘은 우리 집에 기념사진이 왔다  
인민군부대를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내 아들의 기념사진이

우리 집의 가보인 행복의 사진  
영광의 사진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내 아들이 자라던 그 나날이 떠오른다

《고난의 행군》의 나날  
넘쳐나던 수도물마저 바르던 그 나날  
행복과 웃음만이 넘치던 우리 집에도  
갑자기 들이닥친  
시련의 눈보라는 사납기도 했더라

그러나 패일을 믿는다  
웃으며 가자  
우리는 이길것이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시각이 온다

어른들은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도  
고난을 이기는 길이 미래를 위한 길이기  
아이들의 얼굴엔 그늘을 지울수 없어  
수업종소리는 여전히 울려퍼졌다  
언제나 사랑과 열정에 넘친  
선생님의 밝은 모습은  
아이들의 눈빛에 빛나고있었더라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싣고  
콩우유차는 어김없이 학교로 달려왔고  
소년단기발놀이  
아이들은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야영소로 갔더라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었더라  
이 땅에 몰아치는  
고난과 시련의 차디찬 눈보라속에서도  
내 아들은 사랑의 자양분을 받아  
싱싱한 모습으로 활짝 핀  
꽃송이였더라

아, 정말 나는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꽃에도 보석에도 비기지 못할  
다시한번 깊이 절감하게 되었더라  
하여 나는 내 아들이  
제가 딛고 성장해온  
인생의 계단을 잊고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노라

그러나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놀음에 정신이 팔려  
학교수업에 드문히 빠지는줄  
나는 미처 몰랐거니

그런 사람은 행복할 땐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바칠것처럼  
열변을 토해도  
어려울 땐  
자기를 키워준 조국도  
배반할수 있지 않는가

나의 구중에 그가 하는 대답  
《매번 그런 소리  
그래도 난 군대만 나가면  
영웅이 될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건들거리다가도  
때만 오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더라

그러다나니 그의 어린 눈은  
눈앞에 번쩍거리는것밖에 보지를 못했더라  
사람들의 가슴속에 생명으로 뿌리박은  
변함없는 정신  
그 어떤 때에나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그 정신을 보지 못했더라

사람은 지난날을  
언제나 돌아볼줄 알아야 한다  
우리 부모들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자기는 어떤 사랑속에 살았는지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려  
어떤 고난을 헤치셨는지

내 아들은 똑똑히 알아야 했다  
장군님 넘으신 철령과 오성산...  
이 나라의 험준한 최전연령길에서  
한공기 죽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달리는 야전차등반이에 기대시여  
한순간 쪽잠마저 아끼신줄을

이 나라에 장군님식탁에 올릴

한그릇 밥지를 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 나라에 하루밤 편히 쉬어가실  
잠자리가 없어서도 아니었다

장군님은 우리의 어버이이시기에  
인민의 고난속에  
자신을 위한 조그마한 일도  
절대로 허용치 않으신줄을  
내 아들은 명심해야 했다

《너는 랑심과 의리를 알 때가 되었다  
그것이 없으면 벌써 인간이 아니다》  
어머니의 아픈 욕도 소용없어  
아버지의 아픈 매도 소용이 없어...  
그때  
내 아들을 찾아서 선생님이 걸은 밤길은 얼마  
못난 내 아들을 위해  
온 학교가 기울인  
심혈의 날과 달은 또 얼마

아, 그것이 우리를 보살펴준  
고마운 조국의 손길이 아니었던가  
밝은 길에도 넘어질세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조국의 품의 고마움을 깨달은 내 아들  
군복을 입던 날

《아버지, 군복을 입는 순간에  
가슴속엔 문득  
조국과 나라는 숭엄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목숨으로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내 아들이 부대의 표창장과  
조선로동당원이 되었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나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더라  
그녀석이 정말 제 구실을 할가?...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내 아들이 기념사진을 찍다니

편지의 글줄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나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었더라

저도 최고사령관동지께  
꽃다발을 드리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위훈이 없는 손으로야 어찌  
그이께 드릴 꽃다발을  
들 자격이 있습니까

《장군님의 선군길이 어떤 길인지  
뒤늦게야 깨달은 이 아들은

철없던 그 시절을 후회하며  
장군님결사옹위의 총대를  
몇천배 더 억세게 틀어잡습니다》

아, 바다는 수억만년  
그 많은 모래알을 잠그고있어도  
결만 적실뿐  
그 작은 모래알의 속은 적시지 못하더라

그러나 것처럼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 우리 인민 한사람한사람을  
영웅으로 키워주려는  
이 세상 오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의 품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안겨오는  
선군의 우리 조국은  
가장 평범한 인민을  
미제를 타승한 영웅인민으로  
그 누구도 꺾어보지 못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승리자로

그 누구도 지켜내지 못한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미래를 꽃피우는 강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었거니

자자손손 부르고 불러도 다함없을  
신성하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나 나서자란 곳이 있어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지만  
우리처럼 운명을 꽃피워주는 품이 있던가  
우리처럼 온 나라 인민이 화목한  
일심단결의 대가정이 있던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론 사랑의 손길이 스며있는 우리 가정이  
나에겐 곧 내 나라여라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조국이 되어준분은  
다름아닌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시거니

아, 이 땅의 수천만운명이  
천만년 미래를 맡기고사는  
한없이 은혜로운 내 조국이며  
억만년 무궁하라!

# 아들이 왔다

박철

## 아들의 웃음

아침에 까치가 울었던가  
깊은 밤 문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여니  
뜻밖에도 아들이 서있다  
제대배낭을 메고

환하게 짓는 웃음  
떡 벌어진 어깨에 령장자욱  
첫눈에 몰라보겠구나  
끝끝하고 림름한 모습  
얼싸안아 목메는 반가움이여

이 문을 열고 초소로 떠나갈 땐  
몸이 애리애리하여  
걱정도 없지 않던 아들  
이 문을 열고 장부가 되어  
웃으며 들어서니

웃음이 넘치는 아들의 얼굴  
웃음짓고 바라보며  
나는 묻지 않았다  
가슴에서 떠나지 않던 걱정  
병사생활에 대해

저 함박꽃같은 웃음  
부모들앞에 짓자고  
훈련의 날과 날우에  
군무의 달과 달우에  
아들이 뿌린 땀방울 얼마이라

강과 강을 건넌것이다  
산과 산을 넘었을것이다  
조국앞에 충직한 병사가 되어  
부모앞에 떳떳하리라  
군복을 눈비로 적시고적시며

아 총을 잡고 바친 청춘만이  
이 나라 가정에  
제일 큰 행복이 되는 선군시대  
아들은 조국의 병사로 살고  
부모의 품에 웃으며 안겼으니

소원이 기쁨으로 만발했어라  
하늘가 멀리 마음 띄우며  
부디 군사복무를 잘하여라  
잠 못들고 가슴 태우던 세월우에  
아들은 웃음으로 꽃다발 놓아주누나

## 잔을 받는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차린 상  
어서 먹으라 권하니  
아들은 먼저 술을 붓겠단다  
이 아버지에게

—고맙구나...  
잔을 받아  
얼굴에 피어나는 흐뭇한 미소  
가슴엔 대견함이 그득하구나

다르지 않는가  
철부지시절 어쭙게 웃으며  
나의 생일날 부어주던  
그 술잔과는 전혀 다르지 않는가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간곡한 당부 그대로  
복무의 날과 날을 보냈습시다  
그 말없는 말이 가득 담긴 잔

어려웠어도 힘겨웠어도  
부모의 기대 저버리지 않고  
병사의 의무 다했습니다  
그 천만마디 말이 차넘치는 잔

자식이 부모에게 술을 붓는 레법  
이 자리를 위해 생겨났던가  
아들이 부어  
아버지의 행복이 넘쳐나는 술잔이여



## 숨결소리

자정이 훨씬 넘어  
아들이 잠자리에 들었다  
어머니가 깔아준 포단우에  
네활개 펴고 누운 모습  
고르롭게 울리는 숨결소리

어제만도 조국의 전초선  
병실에 올렸을 저 숨결소리  
아늑한 집안에 울리니  
병사와 나란히 누운듯  
그들머차오르는 말뭇갈것이여

오늘부터  
병영에 올리던 랑랑한 나팔소리  
마음속에 울리며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 병사가  
우리 가정에 있다

전호가에서 조여맨 신들메  
한생 풀지 않고  
식구들의 걸음걸음

군가로 맞춰줄 제대군인이  
우리 집에 있다

아 날이 새도록 들어도  
노래처럼 기분좋을 숨결소리  
조국방선의 용광로에서 버려진  
무쇠심장이 툭툭 고동치는  
병사의 숨결소리여

저 억센 숨결 집안에 가득차  
이 아버지가 가풍으로 세운  
열렬한 조국애  
대를 이어 세월은  
우리 집 가풍으로 지켜지려니

위대한 선군시대는  
우리 가정에 주었구나  
총을 틀어잡고 수호자로 살며  
조국의 숨결에 박동을 맞춘  
아 병사의 뉘뛰는 심장을!

## 아들과 손녀

어뜩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난  
3살짜이 손녀  
—삼촌  
정차게 부르며 아들의 품에 안긴다  
품에 안겨 굶은 목 그러안는다

혈육은 속일수 없는것이던가  
태어나 처음 보는 삼촌  
낮선 얼굴이지만 낮가림없이  
달려가 안기는 저 모습  
얼굴을 어루쓸어주는 저 교사리손

캐득캐득 손녀가  
가슴에 쏟고쏟는 웃음  
고향집에 돌아와 안고싶던  
정답고 살뜰한 모든것인듯  
아들은 앵두볼에 입맞춘다

얼마나 좋은가  
온 식구의 마음에  
얼마나 소중하고 크나큰것 새겨주는가

귀여운 손녀의 저 재롱  
제대병사 아들의 저 애무

천리 먼 방선에 있었어도  
아들은 함께 살았구나  
조국에 바친 불같은 그 사랑  
품에 안아 손녀에게도 부여준  
뜨거운 애정이였구나

혈육의 정이라지만  
혈육의 정만이 아니다  
조국을 지킨 병사의 권리로  
미래가 안겨주는 고운 웃음에  
당당한 주인이 된 아들!

아들은 번쩍  
창문너머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향해  
손녀를 안아올린다  
아, 값높이 사는 병사시절이  
손녀의 앞날을 지켜주고있구나!

## 한생의 모습

공천영

전천땅을 꿰질러 흐르는 장자강 맑은 물은 어릴 때 볼 때나 지금에 볼 때나 언제나 한본새로 지칠 줄 모르고 흐른다.

### 1

원료기지의 비료를 해결하러 출장길을 다녀오는 정춘실은 명문고개밑의 진평역에 렬차가 멎어서자 성애가 낀 허연 차창을 손수건으로 닦고 상점쪽을 눈여겨 내다보았다.

진평리부터는 전천군에 속했다. 상점판매원들을 만나보고싶었다. 매대에 빈자리가 없는지, 《우리 가정수첩》은 제대로 운영하는지, 진평상점에 분담된 장풍덕원료기지의 진거름은 다 마련했는지...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데 렬차는 안타깝도록 오래 머물고있었다.

정춘실은 손목시계를 자주 내려다보았다. 속이 부질부질 탔다. 상업관리소에 가당자바람으로 원료기지에서부터 올라가보려던 그였다.

거름운반은 얼마나 했을가. 아프다고 자주 결근을 하는 박운전사는 요즘엔 계속 나오는지. 대소한무렵의 찬 날씨에 그의 만성위염이 도지지나 않는지...

그가 앓으면 이달안으로 장풍덕에 올라가야 할 수천톤의 거름운반이 늦어지게 된다.

정춘실은 박운전사의 갸릿한 얼굴을 그려보았다. 구매자들과 때로 다툼질을 한다는 읍상점판매원 연실이의 가름한 얼굴도 떠오른다. 만나보고싶었다.

생각에 잠겼다가 《추울 눈이 오누만.》하는 옆사람의 중얼거림을 듣고 창밖을 내다보니 아닌게 아니라 흐릿하던 하늘에서 눈송이가 날리고있었다. 배꽃같이 하얀 눈송이가 하늘가득 날려내리고있었다. 눈이 많이 오면 거름차가 장풍덕에 오르기 힘들겠는데... 눈발이 점점 굵어진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진다.

이대로 밤새 내리면 덕에는 눈이 허리를 치게 쌓일수 있다. 그러면 것처럼 긴장한 거름운반이 지체될수 있다.

드디어 렬차의 앞머리에서 봉— 기적소리가 나고 차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빨리 가자, 렬차야!—》

정춘실은 저도 모르게 초조하던 속마음을 큰소리로 내뿔었다.

아직 세개역을 지나야 관리소에 들어간다. 어

둑기 전에 갈수 있는것만은 다행스러웠다.

렬차는 고인역에서 또 한참 멎었다. 립산로동자들이 많은 로동자구역서 내리는 사람, 오르는 사람이 많았다.

정춘실이 앓은 뒤좌석에서 한 손님이 내리고 자리가 비더니 고인역에서 오른 50대쯤 되여보이는 얼굴이 가름하고 허리가 무용배우같은 녀인이 빈자리를 메웠다. 그는 자리를 잡기 바쁘게 개천역에서 오른 녀성으로 짐작되는 맞은편 좌석의 손님과 높은 소리로 반갑게 통성한다. 《고인녀성》은 통성끝에 자기 집 사정까지 자초지종 하소한다.

《어찌든 좋소. 지난해에 제대된 아들 잔치를 해줘야했는데 혼자 집살림에 부대끼다나니 머느리 데려올 준비를 못했다우. 그래서 강계 언니네 집에 가는 길이라우.》

《아니, 전천군이야 〈우리 가정수첩〉에 의해 봉사를 하는 곳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저 정춘실소장을 찾아가는편이 나을걸 그랬어요.》

《한데 우리가 어려운 행군을 몇해째 하였소. 상업관리소라구 뽀족한 수가 있겠나요. 그리구 우리 집은 상점에 아직 명단도 없어요. 룡림군에서 살다가 갓 나왔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하는 정춘실의 얼굴은 화독앞에 섰을 때처럼 뜨스하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이 소장과 《우리가정수첩》을 얼마나 신뢰하고있는가. 사실 《우리 가정수첩》에 의한 봉사만 잘해도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용이 얼마나 두터워지겠는가.

50여년전, 산골군의 자그마한 상점을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애 어린 처녀판매원이었던 이 정춘실이 만들어 운영하는 《우리 가정수첩》을 료해하시고 상업봉사부문의 좋은 본보기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상업부문의 자그마한 싹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여 정춘실을 전국상업열성자대회에 참가시켜주시고 토론을 끝낸 그를 주석단으로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주시였으며 그의 입당보증까지 서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푸시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 어느덧 정춘실소장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지만 그는 아직 단발머리처녀시절의 그 《우리 가정수첩》과 함께 살고있었다.

이제는 한개 군의 상업봉사를 책임진 소장이니 그가 맡기한 《우리 가정수첩》은 관리소 산하

상점판매원들을 통하여 운영된다. 그러다나니 판매원의 책임성과 성실성에 따라 그 수첩의 무게가 달라질수도 있는것이였다.

정춘실은 마침내 일어섰다. 뒤좌석의 녀인들에게로 스적스적 걸어갔다.

《이자 고인역에서 오른 아지미지요? 내가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이에요.》

그러자 《고인녀성》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렇습니까. 이거 그만… 가까이 계시는줄 모르고… 대의원 할머니, 정말 안되었습시다.》

《아니, 무슨 못할 말을 했다고… 내가 안되었어요. 한데 아지미 사는 인민반이 몇반인가요?》

《18반입니다.》

《내 한번 찾아가겠어요.》

정춘실은 수자 18을 기억하기 위하여 속으로 몇번 외었다. 손녀 전숙이 생일날과 같은 수자니 기억하기 쉬웠다.

《년로하신 소장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오시겠습니까.》

《내가 할머니가 된것두 사실이구 상업부문에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요구대로 다 주지 못하는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꼭 찾아가겠어요.》

이렇게 약속하고 제자리에 돌아온정춘실은 저 《고인녀성》과 같이 아들잔치걱정을 하는 주민들이 군안에 한둘만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정춘실은 전천역에 내리면서 그 《고인녀성》에게 강계언니네 집에 잘 다녀오라고, 며칠후에 꼭 찾아가겠다고 다시금 살뜰히 언약하였다. 그리고 서야 가벼운 마음으로 렬차에서 내렸다.

## 2

정춘실이 상업관리소에 들어가 부소장을 만나 며칠사이에 있는 일을 료해하고나니 날이 어둡기 시작했다.

눈은 몇지 않고 그냥 내렸다. 관리소뜨락의 산같은 거름더미도 아까 상상했던것처럼 하얀 눈산이 되였다. 장풍덕에 가보고싶었지만 20리길이 잘되는 그곳에는 갈수 없는 시간이였다.

관리소건물과 뜨락을 같이하고있는 집의 아래방에 들어서니 손녀 전숙이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다가 달려들어온다. 닭알형의 예쁜 얼굴에 웃음꽃을 방글방글 곱게피우며 무척 기다렸던듯 목에 팔걸이를 하고 매달린다. 사랑스럽고 귀엽기 그지없다.

《할머니, 보고싶었어요. 무릎은 아프지 않나요?》

《응, 일없다.》

정춘실이 관절염때문에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니 손녀도 만나면 무릎부터 만져본다.

《할머니, 내가 저녁밥 차릴 동안 며칠전에 지

은 동시 한편 읽어봐줘요. 문학선생님한테서 칭찬받은 글작품이야요. 이 글작품 보일려구 할머니 오시길 더 기다렸어요.》

《그래?... 그럼 어디 보자꾸나.》

숙이는 학습장갈피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들려준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뿌르르 내려갔다.

정춘실은 외출옷을 벗을념도 않고 침대머리에 걸터앉아 하얀 종이에 곱게 쓴 동시 《칭호많은 할머니》를 입속으로 한줄한줄 읽었다.

우리우리 할머니 칭호도 많네

《인민의 총복》, 《이악한 동무》

대원수님 달아주신 고귀한 칭호

야 참 할머니 칭호도 많네

《특이한 동무》, 《훌륭한 효녀》

장군님 불러주신 친근한 칭호

정말정말 할머니 칭호가 많네

《시대의 선구자》, 《우리 큰엄마》

인민이 부르는 다정한 칭호

그러나 그 많은 칭호가운데서

《인민의 총복》 그 칭호가

할머니는 제일제일 좋다고 해요

정춘실은 숙이가 할머니의 마음을 어찌면 그리도 잘 알가 하고 기특하게 생각하며 동시를 또 한번 읽었다.

《숙이야, 참 잘 썼구나. 내 너의 글작품을 보고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구나.》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느라 작고 하얀 손에 물을 묻히고 흰 사기그릇을 들었다놓았다하는 볼수록 귀여운 숙이에게 정춘실은 진정을 담아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또 한편 쓰기 시작했어요. 그 동시는 래일 저녁 보여드릴게요.》

《건 무슨 내용이나? 제목은 어떻게 달았니?》

《제목은 〈사랑의 기념사진〉 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 아래웃방에 가득 모셔져있는 기념사진들을 보니 시상이 또 떠오르더군요.》

《그러니 래일 저녁은 그 글작품을 보려 일부러 늦지 않게 들어와야겠구나.》

《그렇잖구요.》

《너를 봐서라도 일을 더 해야겠구나.》

《할머니, 아버지장군님께서 할머니에게 앓지 말고 몸을 돌보면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응, 그래그래. 그래서 몸을 돌보면서 일한단다. 한데 저녁밥은 내 부엌에 나가 먹올라. 빨리 먹고 상점들에 좀 나가보련다.》

《판매원들이 전부 퇴근했겠는데...》

《경비원더러 데려오라고 해야지.》

정춘실은 부뚜막앞에 쭈그리고앉아 밥을 몇술 뜨고는 또 집을 나섰다. 아닌게 아니라 무릎이 좀 아프나 숙이에게 내색하지 않았다. 손전지로 길을 밝히며 걸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보는데서 다리를 절지 않으려고 애쓰며 걷지만 밤에는 그런 마음을 쓰지 않으니 좋았다.

우선 역전거리의 공업품상점을 찾았다. 큰 도시의 백화점 못지않게 덩치가 큰 4층건물인데 아직 《고난의 행군》의 여파가 있어 매대들에 없는 상품이 적지 않았다.

정춘실은 경비원을 연실판매원네 집에 보내고 정숙이 흐르는 상점안에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들어섰다.

촉수높은 전등불빛이 상점의 정면매대우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제판을 밝게 비치고있었다. 그는 명제의 자자구구를 다시금 새기며 읽어보았다. 이 상점에서 리용하고있는 《우리 가정수첩》이 아주 좋은수요 연구방법이며 상품공급방법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와 전천공업품상점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하고있는것은 사회주의상업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음미하고나서 매대 한귀의 책꽂이에 꽂아놓은 《우리 가정수첩》을 한권한권 펼쳐보았다. 자기가 판매원을 할 때 처럼 인민반단위로 한권씩 묶여져있는 그 수첩의 내용을 한세대씩 간간히 들여다보았다.

그 수첩묶음을 두권째 펼치는데 밖에서 신발에 묻은 눈을 터는지 한참 토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실판매원이 들어왔다.

《소장어머니, 출장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습니까?》

《저녁에 왔어.》

《그런데 좀 쉬지 않고...》

《퇴근후에 동물 나오라구 한게 미안하구나. 〈우리 가정수첩〉 리용정형을 보러 왔어. 지난해에 주문받은 상품을 다 공급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았지?》

《예, 미공급세대가 좀 있습니다.》

《우린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든 상점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안고 누구보다 봉사활동을 더 잘해야 해.》

정춘실소장이 이렇게 말하자 판매원이 된지 한해밖에 안되는 처녀는 클사한 눈을 감다싶이 실눈을 지으며 가름한 얼굴을 다소곳이 숙인다.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난처하지?》

그러자 연실은 지난달에 있던 일들을 다 꼽는다. 결혼식에 제기되는 첫날옷이나 이불을 팔고 루 공급할수 없어 급한 집부터 도와주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투정을 한다는것이며 상점에서 주는 물건이 질이 좋지 못하다고 비난하는것이며 등등 기분나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불평조로 들려주었다.

정춘실은 그러한 연실이의 흐린 기분을 웃음으로 달래며 말했다.

《지금은 상품이 제한되어있으니 별수 없어. 하지만 가까운 기간에 매대가 풍성해질거야. 그건 너두 믿겠지.》

그런데 현단계에서두 철저히 사회주의상업봉사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해야 해.

그러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예군인들, 전쟁로병들, 제대군인들, 과학자, 기술자들, 로력혁신자들을 우선 내세워주고 봉사하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들을 추세우기 위한 방향에서 읍사무소 일군들과도 의논하면서 공정하고 아량있게 공급해야 해.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제집 살림만 볼꾸는데 신경을 쓰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돌아간 사람들은 량심이 꺼리어서라도 우리한테 뭘 달라고 손을 내밀지 못할거야. 우리 상업일군들도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기수들이 되어야 해. 우리의 상품, 우리의 뜨거운 정성으로 주민들을 기쁘게 해줘야 해. 어때, 내 말이 틀리지 않지?》

《소장어머니,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수첩〉을 잘 활용하자구. 그게 인민을 위한 복무방법이야. 실속있게, 뜨겁게 하자구.》 정춘실은 그날 밤 자정무렵까지 세 상점을 돌며 《우리 가정수첩》리용정형을 료해하였다.

### 3

다음날 정춘실은 또 날이 밝기전 새벽에 일어났다.

《할머니, 왜 벌써 일어나나? 좀더 쉬지 않구.》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하던 숙이가 할머니의 피곤이 실린 주름많은 얼굴을 걱정기어린 눈길로 쳐다보며 살뜰하게 물었다. 《장풍덕에 거름을 올려야 한단다.》

《거야 밝은 다음에 운전사들이 실어나르면 되잖나요. 자동차도 있구 운전사도 있는데...》

《얕은 운전사가 있을것 같애그래. 내 나갔다 들어올게 네가 또 조반을 지으려무나.》

《할머니, 아침식사는 다 준비했어요.》

《벌써?!...》

《그럼 뭐. 나두 할머니를 돕는 일을 하려구 새벽공부를 하면서 조반을 지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가세요.》

《아니, 얼른 나갔다 올게. 만약 내가 늦어 들어오면 먼저 먹고 학교에가려마.》

《할머니가 안들어오면 나도 안 먹겠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구 저녁에랑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참, 오늘 저녁엔 새 글작품을 보여주겠다구 했지?》

《예, 저녁에 내놓을래요. 할머니 기쁘게...》

숙이는그러며 할머니의 불살이 빠진 얼굴에 자기의 오동보통한 볼을 꼭 대었다가 떼다. 손녀의 살뜰한 정이 마음을 따스하게 하니 채 풀리지 않았던 피곤이 가뭇 사라진다. 숙이의 동시 한구절이 뇌리에 삼삼 떠오른다.

...

《인민의충복》 그 칭호가

할머니는 제일제일 좋다고 해요

정춘실은 《인민의 충복》이란 그 칭호를 이 아침 더 깊이 가슴에 새기며 어슴푸레 밝아오는 밖에 나섰다.

밖은 온통 허영다. 학교운동장만 한 관리소뜨락의 두 전주대사이에 전선줄이 닿을듯이 산처럼 높이 무쳐놓은 거름더미도 눈더미처럼 허영다. 저 거름더미를 이달중으로 장풍덕에 절반은 실어 올려야겠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엔 바람이 불며 눈보라까지 이다.

박운전사는 어제도 아프다고 결근했다는데 오늘같이 사나운 날에는 더욱 나을념을 안할것이 아닌가. 그의 출근을 믿을수 없어 그 집에 찾아가려고 일찍 나온 정춘실이였다.

박운전사는 상업관리소에서 5리쯤 떨어진 읍거리의 한끝 단층마루에 살고있었다.

정춘실소장이 주인을 찾고 방에 들어갔을 때 박운전사는 모포를 뒤집어쓰고 누워있다가 저기압의 기분을 얼굴에 그리며 일어나 앉았다.

《어떻게... 소장어머니가 일찌기...》

《많이 아픈 모양이군요.》

《아니... 그저 좀...》

박운전사는 형클어진 머리를 수그리고 앉아 들릴듯말듯한 처음으로 내키지 않는 대답을 했다. 워낙 똑하고 불임성이 없는 성격인데다 집에 찾아온 소장이 반갑지 않은 모양이였다.

《그 만성위염때문이겠지요? 몸관리를 잘해야해요. 약도 지긋이 써야 하고요. 동무가 앓으면 다른 공장 운전사라도 청해와야 할 사정이예요. 그만큼 동문 없으면 안될 중요위치에서 일해요. 오

늘은 다른 운전사를 데려오겠어요.》

정춘실은 조용조용 친절하게 하소연하듯말했다.

부엌에서 설것이를 하다가 방에 올라온 박동무의 처는 남편이 며칠째 식사를 잘못한다는것과 오늘 아침도 식사전이라는것을 중언부언하면서 소장할머니가 이처럼 험악한 날씨에 집을 찾아오게 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정춘실은 만성위염에 쓰는 약과 꿀 한병을 남겨두고 그의 집을 나왔다.

관리소와 산하상점들의 백수십명 종업원들의 각이한 마음과의 사업을 잘한다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가를 체험하며 정춘실은 눈보라가 이는 뻗은 아침길을 생각에 잠겨 타박타박 걸었다.

무릎이 또 아팠다. 하루만이라도 편히 자리에 누워있고싶었다.

그 순간 정춘실은 장풍덕의 방치같은 강냉이이삭을 보아주시는 수령님의 영상 사진이 눈에 삼삼 밟혀왔다.

수령님의 곁에 무한한 영광을 안고 서있는 나 정춘실이... 어쩔 내가 잠시라도 마음의 탕개를 늦출수 있을까. 내가 한걸음 늦추면 온 관리소가 한걸음 늦추게 된다. 그럴수 없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만을 따라 한길로 꺾끗이 걸어온 내가 아닌가.

정춘실은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 씨엥씨엥 기운을 내어 관리소뜨락에 들어섰다. 그럴 때는 70나이를 바라보는 할머니갈지 않았다.

지금 두대의 자동차에는 한창 거름을 싣고있었다. 눈보라가 일며 적재함에 쌓이는 거름무지에 하얀 눈가루가 꽃보라처럼 뿌려진다.

정춘실은 박동무의 자동차까지 가동시키려고 다른 기업소의 운전사를 청하느라 몇곳에 전화를 걸었다. 그럴 때 옷차림부터 추운날의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중키의 박운전사가 환자갈지않게 총총걸음으로 관리소뜨락에 들어선다.

정춘실은 한편 반가우면서도 그의 만성위염이 더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왜 나오나요? 식사도 못했다면서... 치료를 받아요.》

《제가 나약했습니다. 치료는 다했습니다.》

박동무는 나직하게 맥락이 닿지 않는 대답을 하고 운수과의 차고로 부리나케 걸어갔다. 하여튼 그의 걸음걸이가 빠르고 씩씩한걸 보니 마음이 놓였다.

관리소의 세번째 차인 박동무의 차에 거름을 싣는 사이 정춘실은 집에 바빠 들어가 꿀물이나 보온병과 당과류간식을 보자기에 짜들고 나왔다. 그 보자기를 정문접수를 서는 녀성에게 주며 거름을 차에 싣는 시간에 운전사들에게 《후방사업》을 하라고 귀띔했다. 그리고나서 정춘실은 박동

무차의 운전칸에 올랐다.

하루에 말 세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박운전사는 자동차가 장풍덕에 오르기 시작할 때에 정춘실소장의 옆얼굴을 몇번 훑쳐보다가 언지시 말을 시작했다.

《난 오늘 소장어머니한테 내 속을 톡 털어놓겠습니다. 내 속심 그대로를 말하면 나는 관리소일이 힘들기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만성위염도 나가기 위한 수단인 하나였는가요? 그렇게 의지가 약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차를 몰겠어요.》

《의지도 약하겠지만 그보다도 리기주의가 있어 그런가봅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비하면 운전사들 수입이 적습니다. 상업관리소차를 몰면서는 원땅도 못 보겠지...》

《호, 알겠어요. 솔직하게 다 말해주어 고마워요. 그런데 교양은 받아야겠어요. 시대의 앞자리에서야 할 자동차운전사치고는 생각이 너무 치졸해요.》

정춘실은 웃으면서 살짝 침을 놓았다.

《소장어머니가 집을 찾아왔을 때부터 이미 교양이 되기 시작했는가봅니다. 그래서 가슴속도 열어놓는거지요. 그렇다고 만성위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일을 하겠습니다. 맨 꼬리에 서는 사람은 안될겁니다.》

《박동무, 오늘 정말 고맙군요. 반가워요. 손을 맞잡고 일을 해보지요. 우리 사회주의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너나할것없이 인민의 총복이 되어야 해요. 제살궁리부터 하고 제 치부를 앞세운다면 사회앞에 지닌 상업일군의 본분을 다할수 없어요. 우리 아직 부족한것이 많은속에서 일을 하는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 일하는 립장에 서야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빛내갈수 있는거예요.》

정춘실은 박동무를 이렇게 설득시키면서도 운전사들을 더 우대해주고 평가해주면서 그들과의 사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였다.

자동차는 어느덧 전천읍거리의 눈덮인 하얀 지붕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풍덕등성이에 올랐다. 차가 거름 부리울 발머리에 멎어서자 정춘실은 운전칸문을 꺾싸게 열고 늙은이같이 않게 성큼 땅에 내렸다. 내려서서는 눈보라치는 덕의 장쾌한 정경을 한참 둘러보았다.

바람이 노상 부는 곳이어서 장풍덕이라고 이름 단 덕관인데 이날따라 등성이의 눈을 다 날려보낼듯 강풍이 욱욕 기승을 부렸다. 흰눈가루가 중천에까지 뿌얹게 날아올랐다.

한데 등성이마다에 한그루씩 서있는 푸른 소나무만은 끄떡않고 그 푸르름을 보란듯이 떨치며

장하게 서있었다. 이 산등성이를 개간할 때 정춘실소장의 주장에 의해 등관마다 소나무 한그루씩은 남겨두고 잡관목을 베었는데 그 소나무가 이 장풍덕의 력사의 증견자로 사계절 한모습으로 푸르러 서있는것이였다. 포전을 지켜선 영원한 보초로도 보이는 락락장송은 흰눈 덮인 겨울에는 여름보다 더 푸르다. 곳곳한 기개와 억센 의지가 푸르른 아지마다에서 풍기였다.

산지합숙생청년들이 염소우리쪽에서 도로의 눈을 치고있는것이 보인다. 언제 올라왔는지 청년들속에 털모자를 푹 눌러쓴 초급당비서 김철준이도 보인다. 나이 예순이 지났는데도 청년들속에 잘 어울린다. 참으로 관리소엔 저 소나무처럼 억세고 변함없는 동지들이 많다.

정춘실은 자동차가 거름을 부리우고 돌아설 때 다시 운전석에 올랐다. 날씨는 사납지만 《가는 말에 채찍질》하여 어느날보다 한탕씩 더 뛰게 할 작정이였다.

《박동무, 저 소나무를 봐요. 느껴지는게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 소나무야말로 여름에나 겨울에나 한본새이고 한모양이지요.》

《개간할 때 소나무 하나씩 내놓기 잘했어요. 풍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구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 한길에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자고 우리에게 당부하는것 같지 않아요.》

자동차는 다시 경사진 눈길을 천천히 내렸다. 눈꽃이 계속 날렸다.

숙이가 쓴 동시의 한구절이 또 떠오른다.

...

《인민의 총복》 그 칭호가

할머니는 제일제일 좋다고 해요

숙이는 오늘 동시 한편을 또 쓴다고 했지. 오늘따라 저녁때가 기다려진다. 숙이의 파스한 팔이 또 목에 매달리는듯싶다. 그의 발기우리하고 보동보동한 불이 또 이 할머니의 꺼칠한 불에 따뜻이 와닿는듯싶다. 노상 그렇게하기를 좋아하는 숙이가 무척 정이 가는 할머니였다.

## 4

정춘실은 세번째, 네번째 탕에는 차를 타지 않고 관리소안에서 일을 하다가 다섯번째 탕의 거름차에 또 올랐다.

말수적이고 독쟁이던 박운전사가 오늘은 신색이 밝았고 말도 많이 했다.

그러니 정춘실소장도 기분이 좋았다.  
자동차는 트랙을 벗어나서 전조등을 켰다.  
그런데 장풍덕으로 오르는 경사지도로에서 그  
만 차의 발동이 죽었다. 박동무는 차머리의 뚜껑  
을 열고 고장부위를 찾느라 무진 애를 썼다. 기  
관의 관과 선들을 다 살펴보고 검진했다. 기관은  
발동이 걸릴듯 하다가는 다시 죽곤 하였다.

정춘실은 전지불을 비쳐주는것밖에 더 도울수  
없는것이 박운전사앞에 미안했다.

아침보다 눈보라도 잦아들고 날씨가 좀 조용해  
진듯싶는데 해가 지면서 더 맵싸지는 대소한무렵  
의 북방기온은 웬만한 의지가 없이는 견디기 어  
려운 난관이었다.

시간이 퍼그나 걸려서야 자동차는 언덕길에 다  
시 발동소리를 울렸다.

거름을 등성이의 포전에 부리우고 차수리를 하  
느라 불을 지켰던 곳을 지나내려오는데 김철준비  
서와 숙이가 나란히 서서 손전지로 길을 비치며  
마중오고있었다.

정춘실소장이 말하기 전에 박운전사는 제동발  
판을 밟았다. 철준이와 숙이도 운전간에 조여있  
었다. 정춘실의 무릎에 앉은 숙이는 해죽해죽 웃  
으며 할머니의 무릎을 쓰다듬었다.

《숙이야, 오늘 저녁엔 힘들지도 않고 무릎도  
아프지 않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서인지 힘도 안 들고 아  
픈데도 없었다. 마음도 편안했다. 아마 계획했던  
대로 거름을 한탕 더 싣지 못하고 여느날과 같이  
제시간에 퇴근했다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못할것  
이었다.

정춘실은 관리소에 내려온 후에도 손녀를 먼저  
집에 타일러보내고 철준비서와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혁명사적교양실을 꾸리는 문제를 의논하다  
가 사람들이 잠자리를 펴는 그 시간에야 일어났  
다.

사무실을 나서서 집에까지 걸어오는 짧은 시간  
에는 《고인녀성》생각을 했다.

(18반이라고 했지. ... 사흘후에 꼭 찾아가자.)

정춘실은 집의 문손잡이를 잡으며 할머니를 눈  
이 까매 기다릴 손녀이름을 크게 불렀다.

《숙이야—》

안에서 응대가 없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숙  
이는 저녁상에 보자기를 덮어놓고 그옆에 책을  
퍼놓은채 잠에 빠져있었다.

정춘실은 전숙이를 가만가만 흔들며 깨웠다.

《숙이야— 애, 숙이야—》

숙이는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  
더니 할머니의 목을 언제나처럼 또 꼭 그러안는  
다.

《할머니, 배고프겠네. ... 오늘 저녁엔 일찍 들  
어오겠다구 하고선...》

《참, 그랬겠지. ... 시는 다 썼냐?》

《예. 오늘 문학선생님한테 보이고 또 칭찬받았  
어요.》

《그럼 글작품부터 보자꾸나. 점심을 늦게 먹었  
더니 배고픔을 모르겠어.》

《나두 배 안 고파요.》

숙이는 밥상의 보자기를 벗기려다말고 책가방  
뚜껑을 열었다. 전날처럼 책갈피에서 종이 한장  
을 꺼내여 할머니의 무릎위에 놓아주고 테가 까  
만 돋보기를 찾아 손에 들려주었다.

정춘실은 흰 종이에 정자로 또박또박 곱게 쓴  
숙이의 동시 《사랑의 기념사진》을 한줄한줄 호  
기심을 안고 읽어내려갔다.

우리우리집에는 많고많아요

대원수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할머니의 기념사진들이

벽마다 방마다 가득차있어요

손녀의 시상이 기특하였다. 한집안식구라 해도  
이렇게 많이 찍은 사진은 없을거라고, 자기가 할  
머니와 엄마와 찍은 사진도 그렇게 많지 못하다  
고 한 구절도 공감이가다.

대원수님 처음 뵈온 외태머리시절부터

40년도 더 흘러 할머니된 오늘까지

보고싶어 가까이

일 잘한다 가까이

어디서나 가까이 찍어주신 사진들

...

오늘도 나는 우려했어 보고 또 봐요

할머니의 많고많은 기념사진

대원수님따라

장군님따라

할머니 걸은 인생의 길이지요

한번도 변치 않은 한생의 모습이지요

손녀의 글작품을 읽고나니 정춘실은 어버이수  
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 때의 뜨거운 격  
정이 다시 살아났다.

정춘실은 숙연한 기분으로 일어서서 아래웃방  
가득 벽에 모신 영광의 기념사진들을 한상한상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숙이의 동시작품에 있는 그대로 단발머리꽃나  
이부터 70고개에 이르는 오늘까지 위대한 수령님  
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며 모시고  
찍은 사랑의 기념사진들... 외태머리처녀로 매대  
앞에서 수령님을 뵈고 어쩔줄 몰라하는 그날의  
정춘실, 전국상업열성자대회 주석단에서 수령님  
의 바로 옆자리에앉아 송구함을 금치 못해하는

애어린 처녀관매원, 수령님께 매대앞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보여드리는 정춘실, 풍년작황이든 팔뚝같은 강녕이이삭과 누에고치견본을 보시며 만족해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며 행복의웃음짓는 중년의 정춘실, 자기들이 기른 은혹색여우와 해리서의 털가죽을 보여드리는 정춘실소장...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란히 찍은 다함없는 믿음과 사랑의 기념사진들...

속연히 서있는 할머니결으로 속이가 가분가분 다가와 손을 꼭 잡고 선다.

《할머니, 내가 쓴 동시가 맘에 드나요?》

《응, 맘에 드는 정도가 아니야. 내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시야. 어쩔 몇줄의 동시에다 이 할머니의 한생을 그리도 신통하게 다담았니.》

《할머니, 나두 할머니처럼 살래요, 할머니처럼...》

속이는 그러면서 할머니의 목에 또 매달린다.

《속이야, 대원수님과 장군님을 여러번 품 가까이 모시었는데도 장군님을 또 뵈고싶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또 찍고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정춘실의 가슴속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못 견디게 복받쳐올랐다. 지금 장군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X

그리움의 날이 흐르고 달이 흐르던 그해 여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토록 뵈고싶어하는 정춘실소장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소문도 없이 전천군상업관리소를 문득 찾아주시였다.

동해안일대의 현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삼복철강행군》을 하시던 장군님께서 그 현지도장정을 곧장 자강도로 이으실줄은 몰랐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는 순간 복받쳤던 그리움의 동이 터진듯 눈물부터 앞서서 위대한 선군령도로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는데 장군님께서 정춘실

소장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며 다정한 어조로 건강이 어떤가고 따뜻이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현지도사적비에 가까이 다가서시여 비문도 마시막까지 다 읽어주시고 혁명사적교양실에 들리시여 사적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상업관리소의 수십년연혁에는 아버지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이 걸음걸음 뜨겁게 어려있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신임에 보답하려고 처녀시절부터 70고개에 이르는 오늘까지 충실하게 한길을 걸어온 정춘실동무가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군내 인민생활을 위하여 불편한 몸으로 몸바쳐 일했다고 말씀하실 때도, 전천공업품상점에 들리시여서 정춘실동무와 같이 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자세와 립장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시며 그 숭고한 충실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실 때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상업봉사활동에 헌신분투한 정춘실동무야말로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여성혁명가, 참된 인민의 총복이라고 최상최대의 평가를 주실 때도 정춘실은 그 두터운 신임과 파분한 평가에 목이 메어올라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눈물만 흘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를 곁에 세워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에야 송구함과 황송함에 붉어진 얼굴을 간신히 활영기쪽으로 들었다.

그 순간정춘실의 가슴속에는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장군님께서 계신다는 생각이, 그 마음의 기둥이 더욱 억세게 자리잡으면서 자신의 나머지생도 장그리 경애하는 장군님께 바쳐 영원한 인민의 총복으로 살겠다는 맹세가 열화같이 불타올랐다.

불별을 가리워주던 옅은 구름사이로 태양이 눈부신 해살을 천갈래, 만갈래로 부채살처럼 펼쳤다. 밝고 따스한 빛이 온 전천땅에 넘쳤다.

## 별나라

성연일

저녁이면 이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별나라 구경가자 조르곤 하던  
옥아, 귀여운 내 딸아

별무리가 내린듯 불빛 환한 여가  
밤마저 잊고 땀흘리는 진수정타입 전투장에  
아빠는 너를 데려오고싶구나

그러면 별나라에 정말 왔다고  
너는 좋아라 로끼뽀할걸  
별을 좇겠다고 숨차게 뛰어다닐걸

그래, 그래, 기다려라 이제 아빠가  
발전소를 세우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름다운 별나라 이야기 들려주마

얼음물속에서도 추운줄 모르고  
혁명가요 부르며 암반을 까던 이야기  
쪽잠 꿈속에서 아빠가 장군님 뵈던 이야기

그날에 너는 다 알게 될게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흐르는 불야경  
어떻게 이 땅위에 별나라가 생겼는지를



# 불이 흐르는 강

방금석

불! 불!  
례성강엔  
물이 아닌 불이 흐른다

내리치는 폭우는  
산골짜기를 표호하며 태질하고  
격류하는 강물은  
길길이 날뛰는 생마와도 같이 노호한다

폭풍아 몰아쳐라  
강이여 갈기를 더 높이 일으켜라  
허나 우리는 너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다  
사나이들의 심장과 심장이 성을 쌓은  
언제벽을 광광 들때리는 물보라  
꽃보라인양 혼연히 맞은  
우리는 돌격대원  
네 어이 청춘의 붉은 심장 점령할소나

보라! 언제와 함께  
나날이 키를 솟구는 저 글밭을!  
—잊지 말자!  
장군님께 다진 그 맹세

눈보라에 얼어든  
장군님의 야전복자락을 보며  
우리 더 굳건히 다진 신념  
우리의 심장과 심장이 획이 되고  
우리의 붉은 피가 빛같이 된 저 글밭  
가슴속의 붉은 피도 저 글밭로 더욱 붉거늘

언제벽 한돌기 한돌기엔  
우리의 심장도 한돌기 한돌기  
우리의 맹세도 언제와 함께 치솟고  
장군님을 만나뵙는 그날도  
하루하루 가까와오거늘

새해 정초부터 찾아오시여  
청년돌격대원— 우리의 가슴마다에  
장군님 지펴주신  
신념의 불, 의지의 불  
결사관철의 세찬 그 불길이  
낮에도 밤에도 타번지는 강!

천리마를 타고  
폭우도 무더위도 이겨내며  
바위를 깨내고 교각을 세우고  
산을 메워 로반을 다지던  
너는 오늘의 《해주—하성》!

불! 불!  
례성강엔  
물이 아니라 불이 흐른다  
물이 불을 이긴다지만  
아, 여기서 불이 물을 이긴다!

선군의 불바람 일쿠며  
장군님께로 달리는  
돌격대원 우리의 마음—청춘의 심장  
그 아무리 사나운 강물도  
단숨에 휘여잡으려니

맞받아나감은 우리 조선청년들의  
기질이며 멋!  
눈보라도 맞받아  
풍랑도 맞받아  
례성강이여!  
우리는 너를 길들이리라  
청춘은 너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리  
아, 례성강엔 불이 흐른다

# 일요일의 랑만

리영일

언제 진수정 한복판에서  
타입직장친구들과 배구경기 한창인데  
하늘엔 우우 밀려드는 먹구름  
벌써 성긴 비방울들이 돈다

그까짓거  
비야 올테면 오라지  
우리 쌓은 저 언제 끄떡없으니  
심판원의 호각소린 야무지기만 하다  
번개가 일면 우리네 한풀이요

또한바퀴 돌기다  
굴착기운전공 철남아 다섯꼴은 처넣어라  
언제는 저들만 쌓는듯 으쓱해하는 타입공들에게  
골채산 높이 쌓아준 우리의 본때를 보여주자  
저 봐라 선별공 이쁜이  
발꿈치 들며 안타깝게 소리치지 않니

세찬 비발속을 떠다니는 공

우뢰가 울면 너희가 한꼴이라  
직장별 사회주의경쟁때처럼  
정말 만만치는 않구나

하지만 승부는 결정된것  
비록 한꼴차이라도 우리가 이겼으니  
언제부터 버려온 시험이라고  
타입공친구들아 아쉬워말게  
다음번 일요일이 또 있지 않나

우린 이미 하늘에서 번개를 끌어내려  
발전기날개에 걸어주지 않았던가  
조기조업의 기세찬 발전기동음을  
례성강반에 우뢰처럼 터치지 않았던가

비발은 더 굵어지고 세차지고  
하늘이 제아무리 요동을 쳐도  
통쾌한 우리의 웃음소리 삼키지 못하네  
우리의 가슴속에 하늘은 맑게만 개여있네

## 가을날 들이 말해주리

최정용

가을날 들이 말해주리  
우리 장군님  
《삼복철강행군》 자욱어린 구내길에서  
너와 나 손잡고 굳게 다진 그 약속을

가을날 들이 말해주리  
그 얼마나 깨끗한 량심이  
그 얼마나 뜨거운 진정이

눈같이 흰 비료에 깃들었는지  
말해주리 아버지 우리 장군님께  
홍남의 로동계급들이 드리고싶은  
축원의 꽃다발이 무엇이었던가를  
금나락 물결치는 그 가을날  
풍요한 들이 말해주리

## 구월산의 청춘샘물

윤철남

단풍이 붉게 타는  
구월산의 팔담골  
이 마음 이끌려 다가서니  
유정도 하구나 청춘샘물 청춘샘물

수정같은 이 샘물 마시고싶어  
산새도 머리우를 감도는가  
내 선뜻 마실수 없어라  
어서 마시라고 빨리 마시라고  
등뒤에선 등산객들나를 재촉하건만

가파로운 등산길 열어가던  
땀에 젖은 병사들의 그 모습  
거울처럼 맑은 물우에 비껴와  
눈앞에 삼삼히도 어려와  
선뜻 마실수 없구나 이 샘물

두손 모아 맑은 물 퍼드니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 애국의  
넋 새기던 병사들 모습  
방울방울 구슬땀 흘리던 청춘의 그 모습  
아름다운 산천경계에 어려있는듯

흐르는 세월속에  
절로 생긴 샘물이라면  
어이 이다지도 생각깊을가  
천연바위 오르내리며 푸른 군복 다 적시던 땀  
푸른 이끼 내돋은 이 바위아래  
흐르고흘러 고이고고여  
이 청춘샘물이 생겨난것은 아닌가

한모금 마시면  
아이들은 자라 어엿한 병사가 되리  
늙은이도 젊음을 되찾아  
영원한 청춘을 누리게 되리

아, 나도 한껏 마신다  
병사들의 푸른 정기 샘솟고  
병사들의 뜨거운 숨결 흘러들어  
가슴이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는  
병사들처럼 영원한 조국위한 청춘을 지니고저  
허리굽혀 큰절 드리듯  
나는 청춘샘물에 마음을 적신다

# 세월의 물음앞에



배경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어느덧 셋째아들이 자라서 역시 과학자의 대오에 들어섰다.

무슨 문제나 자신만만하게 달라붙어 연구성과를 올리는 그를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은근한 불안이 깃들곤 한다.

키가 늘씬한 미남자인 그 애를 보고 어머니를 신통히 닮았다고들 하는데 유순하고 총명하며 노력도 잘 부르고 기타도 잘 타는 그 애를 보면 정말 꼭 나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헌데 바로 그것이 나를 불안케 하는것이다.

그것은 그 애가 풍파를 모르고 고스란히 대학을 나와 과학자가 되었기때문이며 이 어머니를 닮아 나약한 성격이 있다는것을 알기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 애를 생각할 때면 과학의 대문에 갓 들어서던 나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준성동지가 연구소를 떠나던 그때가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곤 한다.

×

《떠나겠어요?... 토끼연구소로?... 왜요?》

나는 아연하여 물었다.

《...》

그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는 표정이었다. 잠시후에야 이렇게 대답했다.

《가야 할 길이니까.》

나는 의혹에 찬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연구소에 배치되었을 때 그와 나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미연이, 믿어지지 않는구만. 나의 꿈이 이렇게 현실로 되었다는것이.》 하고 그는 뜨거운 숨결을 내뿜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현미경에 매달려 살았다. 그래서 그에겐 《현미경연구사》란 별명까지 붙었다. 그는 늘 희망과 정열에 넘쳐 일했고 지칠줄을 몰랐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연구소를 떠나려고 하는가. ...

왜?...

수도의 연구소에 구비된 이 좋은 조건을 떠나 지방에 새로 조직되는 연구소로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가서 이곳보다 더 좋은 연구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단 말인가?

실사 그렇다 해도 연구분야를 바꾼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물도 한 우물을 파랬다고 무엇이나 한가지를 파고들어야지 이것 덩석, 저것 덩석해서는 시간이나 낭비할뿐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이것을 모를 그가 아니건만... 무엇이 그를 토끼연구소에 유혹하는가?

나는 이해할수 없었다. 여기에서 그가 생활의 기쁨과 연구사업의 흥미를 잃어버릴 그 어떤 이유가 있는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연구소에 준성동지만큼 전도유명한 인재로 인정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연구소에 온지 1년만에 그가 내놓은 소론문 《S 균속의 특성과 돼지전염성 P 질병의 치료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에도 못지 않는것으로서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미생물학에 대한 깊은 연구와 제 나름의 탐구의 흔적이 엿보이는, 박력있는 문장들로 전개된, 그 크지 않은 논문에서 나는 그의 심오하고 폭넓은 사색의 세계를 보았다. 내가 알은 못이라면 그는 큰 호수처럼 느껴졌다.

언젠가 우리 연구소의 원로인 한 연구사는 이렇게 말했다.

《준성이란 한 젊은이가 우리 연구소에 몇명만 더 있으면 걱정할게 없겠는데...》

그런데 오늘 그가 연구소를 떠나려고 하는것이.

그는 책상위에 시선을 떨구고 침묵을 지켰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아니, 빛이 꺼진 그 눈은 나를 찾아 들어왔던 몇분전의 활기가 사라진 무언가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는 나에게서 공감과 지지를 바랐던 모양이지만... 나는 그를 지지해줄수 없었다.

그는 시선을 들어 창밖에 던졌다.

창밖에선 해빛에 눈부신 빛을 반사하는 진물색 나무잎사귀들이 미풍에 흔들거리고있었다. 그 눈부신 따스한 빛과 잎사귀들의 가벼운 설레임은 아늑한 우리 연구소의 안정된 생활과 훌륭한 연구조건을 강조하는듯싶었다. 그리고 이 정든 곳을 떠나려는 준성동지의 무모한 결심에 의아함을 표시하는것 같았다.

나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파연 그는 이 연구소에 정들지 않았단 말인가?

함께 웃고 떠들며 열을 올려 논쟁을 벌리던 동무들이며 능청스러운 식모아주머니와 딱딱한 접수원이며 낮익고 친숙해진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의 가구와 설비들이 다 눈에 익고 손에 익은 이 일터와 지금껏 해온 연구사업에 대해 그렇게도 애착이 없었던 말인가. 그 모든것을 그렇게 쉽게 버릴수 있단 말인가.

며칠전의 일이 떠올랐다.

친척이 온다는 소식을 받고 나는 승인을 받아 오후에 평양역으로 나갔었다. 연구소정문앞에서 준성동지를 만났는데 어딜 가는가고 물었다.

《역전에요. 친척이 와서...》

나는 급히 대답하고 뺄스정류소를 향해 뛰어갔다.

정류소에서 줄을 서고있는데 가는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방울은 점점 촘촘히 떨어졌다. 보슬비였다.

뺄스를 갈아타며 평양역에 이르고보니 열차도 착시간까지 아직 얼마간 시간이 있었다.

역사밖으로 나온 나는 어느새 비에 젖어 거무스레하게 번들거리는 아스팔트길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미연이!》

누군가의 부름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준성동지가 밝은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오고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과 어깨가 한결 진한 색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의아히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비가 오기에...》 하고 그는 빙그레 웃었다.

《자!》

그제야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접은채로 있는 우산을 보았다. 나는 눈이 둥그래졌다. 우산을 나에게 주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인가? 나때문에 비를 맞으며 여기까지?!...

그가 그렇게까지 다심한 마음을 나에게 기울일 줄은 몰랐었다. 무슨 말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지 알수 없어 나는 그저 어쩔줄을 몰라하며 감사에 넘친 미소로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나도 이 근방에 불일이있어서... 그럼 난 가겠어.》 하고 그는 돌아섰다.

《비에 젖겠는데...》

《일없어. 요만한 비쯤이야...》

벌써 몇발자국 옮긴 그가 환히 웃으며 대답하는 말이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정답게 내 가슴을 울려주었던가!

그때 폐부속에 따뜻이 젖어들던 그 심정이 지금도 내 마음을 후덥게 덥혀주는데 훌쩍 그가 다른데로 가겠다니 웬말인가?

《준성동지.》

나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물론 토끼연구소에도 수의연구사가 필요할것이고 준성동지 같은분이 가면 환영할거예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국가적인 관심이 더 쏠릴수도 있어요. 준성동지도 뭔가 뜻하는바가 있어가겠다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나 미지의 세계를 인간이 파악하고 리용할수 있게 만들어내야 하며 그러자면 연구조건도 좋아야 하는게 아닐가요? 더구나 준성동진 이미 여기서 토대를 다 닦아놓았는데 이제 새로운 곳에 가 새 출발을 하겠다는건 시간의 낭비가 아닐가싶어요.

대학시절 준성동진 우리에게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지요. 전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있고 그렇게 시간을 아껴온 준성동지를 따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렇다. 그는 대학시절 시간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며 분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모지름썼었다.

그는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와했다. 기숙사호실의 다른 동무들에게 방해가 될가봐 밤에 교실이나 책과 씨름하곤 했다.

그런 정열로 인해서인지 졸업을 한해 앞둔 어느해 가을,그는 대학적인 학과경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두사람중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학과경연성적을 소개한 게시판에 나와 나란히 그의 이름이 오른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심 놀람을 금할수 없었다.

《1등... 리준성, 정미연.》

입학 초기 준성동지는 너무도 평범했었다. 그는 외국어과목을 어려워했고 나에게겐 제일 재미있고 쉬운 수학, 화학과목도 우수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4년만에 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것이 다.

전쟁 3년간 전선에서 잃은 시간을 보충하려고 단단히 마음먹은듯싶었다.

여하튼 나는 그의 정열과 의지, 명석한 두뇌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크지 않은 키에 네모진 얼굴... 별로 미남자도

아니었고 외모에서 특이한데라고는 없었다. 있다면 부리부리한눈에서 뿜어나오는 예리한 빛이랄까.

그는 다른 제대군인들처럼 체육과 오락 같은데 취미가 있는것 같지도 않았다. 오락회때 노래를 부르라면 무척 당황해했고 음정이 맞지 않는 엉터리노래로 우리를 웃겨놓곤 했다.

그것이 재미있어서 동무들은 지긋게 그를 지명했는데 그럴 때면 어쩔바를 몰라하는 표정이 즉은할 정도였다.

그래서 한번은 보다못해 내가 대신 일어섰다.

그러자 동무들은 환성을 지르며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나의 노래는 늘 동무들의 환영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나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었다.

나는 내가 즐기던 전시가요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며 좌중을 둘러보던 나는 준성동지의 얼굴이 심각히 굳어지고 불권의 근육이 떨리는것을 보았다. 그렇게 느껴진것인지... 포연이 타래치는 고지로 달려올라가는 병사들과 바람에 나뭇기는 찢어진 기발을 눈앞에 보는듯, 귀가 뭉뚱한 총포성과 목갈린 웨침들을 듣는듯... 그의 눈에는 물기가 번쩍었다. 순간 그 흥분이 내 가슴에 전류처럼 흐르며 솟구치는 걱정이 심장을 때렸다. ...

노래가 끝나자 준성동지가 누구보다 크게, 힘껏 박수를 쳤다. 얼굴엔 선망의 빛이 가득 어려 있었다. 처절한 싸움의 길에서 고통과 분노와 기쁨으로 얼룩진 잊을수 없는 추억들이 가슴을 두드렸는지 격동을 누르지 못해하였다. 전투에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귀전을 스치는 총탄과 파편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전우의 시체우에 피눈물을 뿌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수 있는 감정이겠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남다른것인듯싶었다.

그날 저녁 너동무들은 나를 놀려주었다.

《미연아, 너 오늘 별로 노래를 잘 부르던데...

준성동진 네게 훌쩍 반한것 같더라.》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었다.

《준성동지가? 원 애두...》

《정말이야. 넌 암만해두 길을 잘못 든것 같애.》  
《왜?》

《인물 곱고 노래 잘 부르고... 배우나 되었으면 제격이었을 애가 과학을 하다니 원...》

그 말에 나는 툭 내쏘았다.

《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홍보가 돼가지구.》

《난 홍보보니까 걱정없어. 헌데 미연아, 너 빠져두 준성동지에게만은 빠지지 말아. 그 사람한테 가면 그 마음고생을 어떻게 하겠니?》

《왜? 마음고생이라는건 또 뭐냐?》

《너두, 그저 <왜>냐, 준성동지처럼? 그 사람이야 그저 <왜, 무엇때문에?> 밖에 모르는데 그거야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니?》

나는 준성동지를 옹호하고싶었다.

《학문앞에선 <무엇때문에>가 끝없지만 부부생활에서도 그러겠니?》

《틀림없어. 저녁에 퇴근해오면 <여보, 무엇때문에 오늘?...>》

《<무엇때문에 오늘?...> 호호호.》

《호호호.》

우리는 모두 허리를 그러쥐고 웃어댔다. 아주머니에게 《왜? 무엇때문에?...》 하고 따지는 그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져나와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웃음많은 처녀시절이었으니....

《그래두 난 그 사람이 인격자라구 생각해.》

《너 벌써 빠진거 아니가?》

《정말 빠진 모양이다, 애. 호호호.》

다시 웃음판이 터졌다.

사실 고중을 졸업하고 고스란히 대학에 온 나에 비해 그는 나이가 훨씬우였기에 나는 그를 몹시 어려워했고 처음엔 별로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나의 관심은 오직 대학의 강의와 책속의 지식에 있었다.

그런데 이따금 교원에게 묻는 그의 질문속에서 그리고 동무들과의 열띤 론쟁속에서 검질기게본질을 파고드는 타래송곳과도 같은 집요성, 무서운 탐구심을 보며 나는 은근한 놀람과 경탄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그썸하고 물러서는적이 없었다. 무슨 문제건 우리가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것도 그는 만족해하지 않았고고개를 기웃거리며 의문부호를 붙이곤 했다.

언젠가는 휴식시간종이 울렸는데도 그의 끈덕진 질문때문에 교원이 강의를 끝내지 못하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가지 못해 진저리를 친적도 있었다.

그때부터 처녀들은 그의 입에오른 《왜, 무엇때문에》를 놀림가마리로 삼았다. ...

한번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수업이 끝난후 우리는 건설장에 가서 벽돌을 실어오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땅땅 언 벽돌을 차에 가득 싣고 그우에 앉아 오자니 얼음으로 때리는듯 땀째게 붙어치는 바람속에 손발과 엉치는 물론 내장까지 얼어드는것 같았다. 추위를 이겨내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장갑 낀 손을 마주 비비던 나는 바람을 피해 고개를 돌리다가 눈을 크게 떴다.

살을 에이는 그 칼바람속에서, 뼈속까지 얼어들어 온몸이 굳어지고 마비되는것 같은 추위속에서 준성동지가 움직여지지 않는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단어장을 번지고있었던것이다. 바람에 날아갈듯 벌거덕거리던 종이장, 외국어단어를 외우느라고 쉴틈거리리는, 추위에 퍼렇게 된 입술...

그 순간 그 모습이 왜 그리 돋보이던지, 배움에 대한 그 정열과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내 가슴을 때렸던지 그때의 그의 모습을 나는 잊을수 없었다.

그후 나는 늘 그 충격을 가슴에 안고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 그렇듯 순간도 쉬없이, 이악하게 돌진해가는 그의 모습에 자기를 비추어보며 나도 시간, 시간을 놓치지 말자고 피나게 자기를 채찍질해왔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처럼 분초를 아끼던 준성동지가 왜오늘은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덧없이 잃는데 대해 안타까와하지 않는지 나는 이해할수 없었다.

인간의 한생에서 유년기와 노년기를 제외하면 실지 사회를 위해 일할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길지 않은 행로에서 어느덧 거의 절반길에 이르렀다고 할 그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것을 버리고 새로운 일에 달라붙겠다는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겠는가싶었다.

그것이 엄청난 시간의 낭비, 인생의 낭비라는 것을 진정 그가 모른단말인가. 어이없이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시간을 어떻게 보충하려고 하는가?

파연 보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전 준성동지가 앞에 펼쳐진 대도로를, 힘들게 개척한 그 길을 버리고 왜 미지의 오솔길에 들어서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의 낭비로 된다는걸 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준성동지는 쓰겁게 미소를 지었다. 서글픈 빛이 그의 눈을 스치었다.

《날 생각해주는 미연의 마음은 고맙소. 난 미연의 말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소. 내가 가려고 하는것은... 그곳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때문ियो. 여기보다도,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 의뢰해온 토끼의 XX질병치료문제는 그곳 수의력량이 아주약하다는걸 보여주거든.

이 준성이란 존재가 커서가 아니라 그곳에도 능력있는 수의일군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아직 가정도 없고 이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내가 가는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기때문ियो.》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며칠전에 연구소에서는 지방에 새로 조직된 토끼연구소 수의일군들의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었다.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하게 먹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뜻에 따라 가금총국이 새로 나오고 가금과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토끼종축장이 있는 ㄷ지방에 토끼연구소가 조직되었었다.

그런데 수의일군이 부족해서 토끼사양과 관리

에서 애로가 제기되고있었다. ...

하지만 우리는 토끼전문가가 아니였고 더구나 준성동지에게 토끼연구소로 갈것을 권고한 사람은 없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야 아직 연구분야를 바꾸어도 다시 내달릴 여유가 있지만 나이 많은 연구사들에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소.》

《준성동지, 그래서라면... 그건 자기희생이군요.》

희생이란 아름다운것으로 되기도 하지만 과학자의 일생에서 희생은 너무도 아깝고 가슴아픈것이 아닐가.

나는 계속했다.

《자기를 바치는것이 우리 사회의 미풍이긴 하지만 준성동지와 같은 과학자의 일생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거예요.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젊지만 그 젊음을 낭비하는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예요.》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번쩍었다.

《미연이, 내가 연구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희생이라고 할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희생이 아니야. 나의 이 선택이 국가에 필요한 일이라면 시간의 낭비라고도 할수 없어. 물론 나 개인에겐 어려운 일이 많아지겠지만그건 각오해야지.》

나는 허거픈 미소를 지으며 타이르듯 말했다.

《준성동지,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는 애써 웃음을 지어보였다. 허나 그 고집스러운 억지미소는 내 말에 굽어들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를 강조하는것 같아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하였다.

《난 내가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가 한 말이였다.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심인것 같았다. 어쩌면 저렇게 생각할가?

더 말하고싶지 않았다. 무의미한 입씨름을 계속하며 서로 기분이나 잡칠 필요가 있겠는가. 본인이 원한다면야 내가 안타까와할게 없지.

그러나 나는 곧 자기의 생각을 부정했다. 헤어나오기 어려운 수렁을 향해 스스로 큰길에서 탈선하는것 같은 그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만 있는단 말인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내가 무슨 인간이겠는가. 대학시절의 마지막수학려행, 원산 송도원을 파연 내가 잊을수 있던 말인가.

...풍치수려한 송림이 길게 펼쳐진 백사장, 쉼없이 밀려와 모래불을 활으며 어리광부리듯 철썩이는 파도, 햇빛이 재글재글 끓던 파아란 수면위에 머리들을 내놓고 좋아라고 떠들던 남녀대학생들...

동해의 해변가에서 자라난 나는 해염을 괜찮게 쳤다.

동물들에 대한 나의 애착을 선생님들이 적극 제발시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수영선수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바다물속에 뛰어들 나는 이름할수 없는 쾌감과 흥분, 온몸에 솟구치는 힘을 느꼈다.

《준성동지, 경쟁합시다. 누가 멀리 나가나.》

산골래생인 준성동지가 수영에선 씨원치 못하다는것을 나는 첫눈에 알아보았었다. 그래서 그와 동무들앞에 자기의 솜씨를 뽐내고싶었던것이다.

《준성동지, 자신 없습니까? 호호.》

《정말? 좋아, 해보자.》

우리는 넓은 바다를 향해 헤엄쳐나갔다. 나는 단번에 그를 뒤에 떨구고 멀리 앞서나갔다.

처녀들이 뒤에서 소리쳤다.

《미연아, 이젠 돌아와. 어서!》

《너무 멀리 가지 마.》

《미연이, 돌아오라구.》

준성동지도 웨쳤다.

나는 사기가 올라 기운차게 헤엄쳐 나아갔다.

얼마후 맥이 빠져 머리를 들고 보니 눈앞에는 망망한 바다, 굵실거리는 파도가 덮칠듯이 밀려온다. 허연 갈기를 번뜩이는 높은 물결...

불현듯 너무 멀리 나왔다는 느낌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돌아보니 해수욕장이 까마득하게 보였다. 동무들의 모습이 하얀 개미떼처럼 아물거린다. 그닥 멀지 않은 곳에 뽀트가 보였다. 준성동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긴 그가 여기까지 따라올수는 없을것이였다.

나는 돌아섰다. 곁에서 동무들이 지켜본다면 더 멀리 나갔을지도 모르나 혼자서는 그런 모험을 할 맛이 없었다.

잠시 누워서 힘을 모은 나는 해변을 향해 팔을 휘저어 파도를 가르기 시작했다. ...

불현듯 오른쪽발의 발가락에 둔하게 찌르는 아픔이 전류처럼 흘렀다. 전류의 충격파도 같은 그 아픔에 발이 마비되는것 같았다. 동통은 다리에로 올리뻗친다. 다리안에 갑자기 쇠막대기가 들어박힌것 같았다. 쥐가 이누나! 그것은 곧 죽음이였다.

한발을 쓰지 못하니 두팔을 아무리 허우적거리도 몸은 어쩔수없이 밀으로 끌려내려갔다.

홍박이 터질것 같았다. 이렇게 죽는가? 아니, 아니야.

나는 몸부림치듯 필사적으로 몸을 솟구쳤다.

참을수 없는 동통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물위로 머리를 내민 나는 힘껏 숨을 들이쉬고 단말마적으로 부르짖었다.

《아— 준...》

순간 파도가 머리를 덮으며 숨이 막혔다. 바다

물을 삼키자 머리가 핑 돌며 눈앞이 캄캄해왔다.

끝장이구나.

다음순간 어두운 심연이 몸을 삼켜버렸다. 사정없이 밀으로 잡아끄는 다리의 쇠꼬챙이로 올리찌르는 동통, 숨을 쉬려 하자 잔물이 코, 입으로 왈칵 쏟아들었다. 치미는 구토감, 사위가 캄캄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

긴 머리레가 무엇에 걸린듯싶더니 우악스런 갈구리가 머리칼을 휘감아 끌어당기는것 같았다.

그다음엔 기억이 없었다. ...

눈을 떴을 때 내가 맨 처음 본것은 푸른 하늘이였다. 그다음 얼굴에 들쭉워지던 파도, 내 머리위로 내뻗치던 여러개의 손들. 옆으로 뽀트들이 빙빙 돌고있었다. 뽀트우에 낫익은 학급남동무들이 보였다.

《자, 잡으라!》

옆에서 우리는 귀에 익은 웨침소리. 그제야 나는 나의 몸이 누군가의 억센 팔에 의해 받들리우고있음을 깨달았다. 얼굴을 돌린 나는 준성동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뽀트우의 동무들에게 웨치고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준성동지는 인차 나와의 경기를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혼자서 난바다로 헤엄쳐나가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진 않았다. 불안해진 그는 뽀트를 타고 내뒤했을 따라왔다.

내가 돌아오는것을 지켜보던 그는 불현듯 파도로 쳐들리는 팔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외마디 비명소리도 들었다. 있는 힘껏 노를 저으며 바다를 살렸지만 더는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노를 내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가 물속에 뛰어들는것을 본 동무들이 급히 뽀트들에 뛰어올랐다. ...

그때 그는 난생처음 바다에서 자맥질을 해봤다고 한다.

한순간만 늦었어도 그는 나를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영영 바다속에 가라앉고말았을것이 다. ...

그런데 그의 어처구니없는 결심으로 하여 그에게 들이닥칠 어려운 난관을 파도를 명백히 눈앞에 보면서, 그의 귀중한 한생이 터무니없이, 너무도 아깝게 스러져버릴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어떻게 내가 외면할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그의 걸음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끝내 그는 떠나갔다.

우리가 다시 만난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 나는 연구소의 책임일꾼들을 포함한 몇몇 연구사들과 함께 내각에서 소집한 긴급협의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검누렇게 번들거리는 대리석계단을 올라 넓은 홀에 이르렀을 때 나는 여기저기 모여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속에서 문득 준성동지의 낯익은 모습을 보았다. 그는 수의학연구소에서 늘 입고 다니던 어두운 밤색의 모직외투를 그대로 입고있었다. 다부진 체구에 벌어진 어깨...

그를 알아보는 순간 가슴이 쿵 울리었다. 반가움에 심장이 세차게 놀뛰었다.

그는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그전보다 약간것 같았으나 활기에 넘친 모습이었다.

그도 나를 보았다. 순간 그의 눈이 확 밝아지며 누를수 없는 기쁨이 온 얼굴에 빛났다.

그는 나를 향하여 곧바로 마주 걸어왔다.

환히 웃으며 그가 쇠소리나는 음성으로 정답게 인사말을 던졌다.

《그동안 미연인 더 활짝 피었구만.》

나는 수줍게 웃었다.

《준성동지두... 더 젊어지신것 같습니다.》

《젊어졌어? 좋구만. 정말 미연의 학위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축하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야 뭐 아직 준성동지에 비하면 아이인걸요.》

사실 그가 우리 연구소를 떠나지만 앓았으면 나보다 훨씬 앞서 학위론문을 내놓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준성동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야 지방의 이름없는 연구사에 불과한걸 뭐.》

통으로 한 말이겠지만 그 말은내 가슴을 아릿하게 하였다.

그때 내각의 일군이 모두 회의장에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준성동지가 속삭이듯 나에게 말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만나지요. 그간 연구소소식도 들을겸.》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의가 끝났을 때는 어느덧 어둠이 내려덮이고 있었다.

눈부신 빛을 뿌리며 파랗게 빛나던 하늘이 이제는 청회색의 어스름속에 잠겨들고 거리엔 가로등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곳곳에 장식등들이 명멸하고 불밝은 가로등들이 줄지어 늘어선 저녁의 거리는 그것대로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고있었다.

날이 저물며 추위가 독을 쓰기 시작하여서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어도 몸이 으시시 떨려왔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도 나도 입을 열지 않았다.

회의장의 무거운 공기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는것 같았다.

××닭공장에서 터진 《ㄱ》전염병때문에 열린 비상회의였다.

병의 발생원인이 예방약에 있다고 분석되었기

에 당시 외국에서 새로 들여온 《R》종독(종자비루스)을 가지고 새로운 《ㄱ》예방약을 연구도입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공장밖에 수의 예방약을 만드는데가 없었다.

그런데 ○○기사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 생산하고있는 예방약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파악이 없는 새로운 약을 연구도입한다는것은...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력량은 우리 수의학연구소가 제일 강했지만 우리 연구소소장도 난처해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하기 힘듭니다.》하며 분명치 않게 얼버무렸다.

예방약연구와 생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단위들이 못하겠다고 하니 다른 연구집단의 연구사들과 일군들도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어쩌면 좋겠는가?

가금총국(당시) 책임일군이 벌어진 사태와 대책적문제에 대해 안타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가슴이 타들었지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대책은 새로운 예방약을 시급히 만드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주석단에서는 더이상 의견을 묻지 않았다.

숨가쁜 정적이 장내를 무겁게 눌렀다.

그 정적은 나의 가슴을 집게로 조이는것 같았다.

마치 내가 구실을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한것처럼 죄스러웠다. 국가에서 과학기술적문제의 해결을 위해 손을 내미는데 과학자로서 선풃 나서지 못하고있으니...

이미 우리 소장이 우리는 할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였던것이다.

당시 외국에서 들여온 《R》종독은 우리 나라에서 아직 써보지 못한것으로서 누구도 그에 대해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랬기에 그것으로 새 예방약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그 예방약이 구실을 못해 병을 막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다 제각기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맡고있었다.

자기들이 맡고있는 연구과제들을 훌쩍 집어던지고 파악이 없는 연구대상에 마구 덤벼들수는 없는것이였다. 더우기 그러다가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 후파를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아마 그래서 ○○기사장이나 우리 소장이 머리를 저었을것이였다. 하지만...

나는 눈을 들어 주석단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주석단의 일군이 나를 보고 《동무, 어디 의견을 말해보오.》 하고 지명할가봐 두려웠었다.



공연히 가슴이 떨리었다.  
아,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던가.

불현듯 쇠소리나는 높은 음성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저는 토끼연구소 수의실장 리준성입니다. 전 군대에서 말밖에 다루어보지 못했고 닭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배워서라도 예방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에게 그 과업을 주십시오.》

나는 아연하여 얼마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놀람과 의혹, 격동과 경탄... 각이한 심정을 담은 열띤 시선들이 그에게 쏠리었다.

주석단일군들이 수군거렸다.  
숨죽인 속삭임들이 바람결처럼 관중석을 휩쓸었다.

내각의 한 책임일군이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쑤소. 저 동무의 배짱과 정신이 마음에 드오.  
동무의 의견을 토론해보겠습니다.》  
협의회는 휴회하고 다음날 계속하기로 하였다.  
...

희미한 가로등빛속에 가느다란 버들가지들이 풀어헤친 머리카락처럼 흐느적이었으며 발밑에선 락엽들이 부스럭거리며 굴러다니었다.

차창에 불빛이 환한 무궤도전차가 옆으로 지나갔다.

《준성동진 그 예방약연구에 자신이 있어요?》  
마침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그의 단마디 대답이었다.  
나는 의혹에 차서 그를 쳐다보았다. 자신도 없는 일을 왜 하겠다고 나섰는가.

그가 말을 이었다.  
《자신이 있건없건 난 나서지 않을수 없었소. 누구든 나서야 할게 아닌가.》

불을 토하듯 내뿜는 말이었다. 그 말은 마치 나에 대한 질책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납득할수 없었다. 누구든 나서야 한다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서기전에 면밀히 타산하고 자신있을 때 나서야 하는것이다. 무턱대고 나선다면 실패와 수치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지난날 토끼연구소문제도 그래, 오늘도 그래, 그에겐 한곳에 든든히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것덥석, 저것 덥석 하는 습성이 있지 않는가싶었다. 그 버릇이 자기에게 얼마나 해로운것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말인가.

그리고 그 연구가 성공하면 별문제이지만 실패하기라도 하면?...  
나는 안타까이 말했다.

《준성동지가 이미 하겠다고 제기한 이상 이 말은 필요없는것일수 있어요. 하지만 준성동지를

위해 전 말하지 않을수 없군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게 아니예요? ○○공장사람들도 그래, 우리 연구소도 그래, 회의엔 준성동지보다 가끔에 밝은 사람들이 적지않게 참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머리를 저었지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준성동지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후에야 내키지 않는듯직직대꾸했다.  
《예방약연구에서 실패하는 경우 후과가 두려워서겠지.》

나는 몸을 웅송그리며 나직이 말하였다.  
《그래요. 〈R〉종독에 대해선 아직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저도 두려워요. 준성동진 연구에서 실패하여병을 막지 못하는 경우 그 후과를 생각해보셨어요?》

또다시 무궤도전차가 가벼운 동음을 울리며 지나갔다. 토끼털의투를 입은 소녀의 손목을 잡은 녀인이 뭔가 다정한 이야기를 하며 나의 옆을 지나쳤다.

준성동지는 숨이 답답한듯 힘껏 공기를 들이쉬었다가 후— 내뿜더니 낮으나 격한 어조로 대꾸했다.

《아니, 난 생각해보지 않았소. 내가 생각한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병을 막아야 한다는것뿐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주관적욕망만으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 불뿜는 화구는 막으려고 나섰다가 막지 못하고 쓰러져도 영웅적희생으로 인정되지만 이 길은 성공하지 못하면 수습할수 없는 후과로 하여 치욕을 얻게 되는 길이었다. 그것은 인생의 파탄으로 될수 있었으니 인생이란 두번 다시 걸을수 없는 길이기때문이었다.

《준성동지, 우리 연구사들이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버리고 새로운데 달라붙는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수년세월 피땀을바쳐 이룩한 모든것을 버리고 령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걸 의미하니깐요.》

준성동진 저에 비해 많은 세월을 잃고 과학의 길에 들어서시었지요. 그런데 이제 또 연구분야를 바꾼다는것은 또 그만큼 시간을 잃는것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은 무한정한것이 아니예요.  
우리 과학자들에게 시간의 낭비란 곧 인생의 낭비로 되고 결국 인생의 실패로 끝나는게 아닐까요?》

준성동지가 후— 큰숨을 내뿜었다. 속에 끓어번지는 번열을 누를수 없는 모양이었다.

《미연이, 전쟁이 한창일 때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대학생들을 소환시켜 공부시키셨소. 병사 한명 한명이 그렇게 귀중했던 때에 말ियो. 바로 오늘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류학도 보냈던거란 말ियो.》

헌데... 헌데 이렇게 공부한 젊은 지식인들이 자기가 맡은 연구과제가 있다고 이 예방약연구를 남의 일로 여겨야 하겠소?

나라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이때 저 하나만 생각하면서 외면한다면 그게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겠는가?》

준성동지의 목소리는 기관총을 쏘듯 격하게 울렸다. 가로등빛속에 불이 황황 이는 그의 눈이 무섭게 번쩍였다.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렇게는 살수 없소.

설사 내가 실패하여 그 어떤 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도, 또 동무의 말처럼 아까운 세월을 잃고 이렇다할 발명이 없는 과학자, 학위도 학직도 없는 미미한 존재로 한생을 마친다 해도 현실을 외면할순 없소.》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걱정이 이해되고 일정하게 공감도 되었다. 그러나 함께 흥분하게 되지는 않았고 그 어떤 우려만 더 커지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외곬으로만 사고한다고 할가, 어쩐지 너무도 천진하고 단순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생활은 교과서와 같이 흘러가지 않는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결과가 나쁘면 공든 탑이 하루밤 사이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

어느덧 우리는 대극장앞 건넌길에 이르러 멈춰 섰다.

나는 뺄스정류소로 가야 했고 그는 러관으로 가야 했다.

때늦게 떨어진 락엽들이 차거운 바람결에 쓸쓸히 구울러간다. 찬바람은 내 마음속에도 불어치는 듯 허전하고 쓸쓸한 기운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몇시간전 내각청사에서 반갑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론쟁끝에 헤어지리라고 꿈엔들 생각했던가.

준성동지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하어튼 나를 진심으로 념려해주는 미연의 마음은 고맙게 여기겠소.》

나도 가냘픈 미소를 지어보이며 대답했다.

《준성동지의 결심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웃음을 지어보였지만 마음속에선 서글픈 회오리바람이 일고있었다. 마치 그 갈림길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몇걸음 옮기다가 돌아보니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내가 돌아보자 손을 들어보였다. 그 순간 날카로운 무엇이 내 가슴을 짹 쥐었다가 놓는 것 같았다.

송도원의 해수욕장이 눈앞을 스치었다. 머리로 덮쳐들던 파도, 쥐가 일던 다리의 숨막히던 동통, 잔물을 먹으며 물속에 잠길 때의 절망... 그때 나를 구원하려고 난생처음 바다물속깊이 자맥질을 해 들어갔던 준성동지!

토끼연구소로 떠나갈 결심을 찾아와 이야기하던 그의 진지한 얼굴도 보여왔다. 내가 자기보다 큰 10년이나 아랫전만 그는 자기의 결심을 허심하게 나에게 터놓았고 내 의견을 심중히 들었으며 열을 올려 주장을 세우기도 했다. 한마디로 조금도 옷사람티를 내지 않고 나를 동등한 립장에서 존중해주었다.

그때 그는 내가 지지하고 고무해주시기를 바라는, 힘을 주기를 바라는 찾아왔었겠지만 나는 그를 지지해주지 않았다. ...

오늘도 그의 결심을 반박하여 론쟁을 벌이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놓으려고 애썼다. 물론 나의 행동은 진심으로 그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고 괴로왔을 것이다.

그처럼 나를 만나 반가와한 그에게 나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찬물만 끼여어주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박정한 여자인가? 왜 나는 그를 친절히 고무해주고 지지해주지 못하는가?

허나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위선이였을 것이다. 내가 본의아니게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그를 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바로 그의 타산없는 행동, 부나비마냥 자기 몸이 탈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들며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너무 쉽게 마구 쥐여뿌리는 것 같은 그의 행동을 못 본척 할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협의회에서는 준성동지에게 그 파업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그를 책임자로 연구조가 구성되었다.

협의회가 끝나자 나는 오리목장으로 당장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목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급히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사흘이 지나 연구소로 돌아오니 동무들이 준성동지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나를 만나러 왔다가 편지를 남기고 갔다는 것이었다.

곧장 실험실로 올라간 나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다.

《.. . 떠나기 전에 미연이를 만나고싶어 찾아왔겠소. 그런데 미연인 출장을 떠나고 없더군요만. ...

내가 오늘 미연이를 찾아온것은 미연의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소. 왜 내가 미연의 이해를 받고싶어하는지?...

나는 미연을 리상이 높은 훌륭한 처녀로, 유망한 연구사로 보아왔소. ...

헌데 왜 우리의 의사소통이 점점 어려워질가?

우리가 걸어온 생활경로가 달라서인가?

나는 그답을 찾지 못했소.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터쳐놓지 않을수 없어 이 글을 쓰오.

전쟁이 끝난 바로 다음날,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임무수행을 떠난 마사원이 있었소. 급격히 불어나 무섭게 사름치는 강기슭으로 마차를 달리던 그는 강기슭에서 발을 구르며 어쩔줄 몰라하는 물참봉이 된 녀인을 발견했소. 녀인은 떠내려가는 송아지를 구원하지 못해 울고있는것이였소. 누구도 그 병사에게 송아지를 구원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없었소.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물속에 뛰어들었고 끝내 송아지를 구원할수 있었소.

하지만 범람하는 강물과 싸우다가 그는 떠내려오는 통나무에 머리를 상했소. 그래도 그는 송아지를 끌고 기슭까지 헤엄쳐나왔소. 그리고는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못했소. 이미 전쟁은 끝났고 고향에선 그리운 부모와 애인이 기다리고있었소. ...

그가 자기의 임무 하나만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을 먼저 생각했다면... 죽지 않았을거요. 허나 그랬다면 마음속엔... 량심의 가책으로 인한 그림자가 늘 자리잡고있었을거요.

온 부대가 그의 희생을 가슴아파했고 지금도 나는 그를 잊지 못하고. ...》

문득 나의 눈앞에는 송도원의 바다물속에서 나를 구원해주던 준성동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해 생각했겠는가?

나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진정한 병사는, 참된 인간은 자기 량심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오.

미연이, 우리는 지성인들이요. 돌이켜보건대 인민대중의 투쟁에는 늘 지성인들도 앞장에 서있었소. 그들은 시대와 혁명의 선각자들이였고 그래서 대중을 계몽하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킬수 있었소.

육체는 약해도 정신은 강했고 죽음도 이겨낸 영웅들이었소.

우리는 나약한 인테리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지성인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오.

미연이, 나는 사실 이러한 이야기보다 보다 생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소. ... 그리고 미연이가 나와 뜻을 같이하는 영원한 길동무가 되여주길 바랬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어리석은 꿈, 자기의 주관적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소.

미연동무, 잘 있소. 부디 행복하기를, 그리고 조국이 바라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여주기를 바라오.》

나는 멍히 서있었다.

창밖에서는 사나운 눈보라가 스산하게 울부짖고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몸부림치며 떨고있었다.

웬일인지 가슴속이 텅 빈것 같았다.

이때에야 비로소 나는 준성동지의 가슴속에 소

중히 간직되어온 속깊은 마음을 볼수 있었다.

왜 이제야 그것을 보게 되는가.

언젠가 보슬비가 내리던 날 우산을 들고 역으로 달려왔던 그의 모습이 짜릿한 아픔을 주며 눈앞을 스치었다. ...

때때로 그가 나에게 류다른 감정을 품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내심 부정해버렸었다. 다만 그가 나를 존중해주고 친동생처럼 위해주는것을 고맙게 여겼을뿐이고 그에 보답하려고 노력했을뿐이다.

지금에야 비로소 그가 어찌하여 내 말을 그처럼 신중히 대해주었는지, 어찌하여 우산을 들고 역으로 따라왔으며 어찌하여 토끼연구소에 가기 전에 나를 찾아왔었는지도... 알수 있었다.

그는 무엇을 보고 나에게 마음이 끌렸을가?

외모에?... 학과실력에?...

알수 없다. 하여튼 나에게서 뭔가 귀중한것을 보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나는 그의 실력과 재능, 그의 인간됨을 존경하고 따르긴 했지만 이성으로서의 열렬한 감정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 지금에 와서는 어쩐지 귀중한것을 잃은듯 한 허전함을 금할수 없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해지는가?

나는 그의 편지를 다시, 또다시 읽어보았다. 그는 《그것이 어리석은 꿈, 자기의 주관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는것》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런즉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다는것이다. 아니,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는 말이다.

왜 무엇때문에?...

첫날 협의회가 끝난 뒤 우리가 나누던 대화가 뇌리에 떠올랐다.

그때 그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하건, 후파가 어떻게 되건 현실을 외면할수 없다고 했다. 현실을 외면할수 없다?!...

순간 편지에 쓴 그 마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쟁이 끝난 다음날 송아지를 구원하고 희생된 병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새로운 의미로 내 가슴을 쳤다.

우리의 생활에서 적지 않게 듣게 되는 그런 미담이 객관의 립장에서 볼 때에는 범상한것이지만 그것이 자기자신의 운명으로 될 때엔 결코 범상한것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자신이 그러한 정신세계에 서있지 않고는 그것을 자기의 운명에 뜨겁게 받아들일수 없는것이기예.

결국 준성동지는 그 마사원과 같은 자기희생의 정신을, 자기의 생명보다 량심의 의무를 더 중시하는 헌신의 그 세계를 나에게서 볼수 없었던것이다!

그때에야 나는 내가 교과서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것으로, 자기 주위에선 인정하려고 하지 않던 그 아름다운 현신의 세계가 준성동지에겐 체질화되어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가 토끼연구소로 떠나면서 좀더 현실적으로 사고하라는 나의 말에 자기가 문제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던 말이 불현듯 되살아왔다.

현실적이란 말도 현실을 대하는 인간의 립장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견해에 따라 그의 인생행로도 달라지는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값있게 빛내이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견해가 자기의 인생길을 밝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미궁으로 밀어넣기도 한다는것을 생각하지 않은 한 다.

사람은 준비된것만큼 받아들이게 된다. 나에겐 그의 세계를 받아들일 그릇이 없었다.

그것이 안타까와서, 그 안타까움을 누를수 없어서 준성동지가 이편지를 쓴것이라는것을 나는 뒤늦게야 심장을 예이는 아픔속에 깨달았다.

사랑은 불이다. 인간의 정신을 티없이 정화시키고 그 넋을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세계로 승화시키는 열과 빛이다.

하나 주고싶은 사랑을 주지 못할때 그것은 고통이다. 그것을 스스로 꺼버려야 할 때 그 고통은 얼마나 쓰라리고 뼈아픈것인가.

내각협의회가 있는 날 저녁, 희미한 가로등아래에서 나에게 손을 들어보이던 그의 모습이 가슴저리게 안겨왔다.

그때 준성동지는 피로운 미소속에 그 고통을 씹으며 돌아섰을것이다.

아— 준성동지!

준성동지에게 그런 아픔을 준 자신을, 준성동지의 인간됨을 너무도 모른 자신을 나는 용서할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북받치는 피로움을 누를수 없어나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동무들이 의아히 쳐다본다.

눈보라가 날려버릴듯이 나에게 달려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았다.

준성동지를 만나고싶었다. 용서를 빌고싶었다.

준성동지는 지금 어디에 가있는가.

×

준성동지의 연구는 성공했고 《기》병은 씻은듯 사라졌다.

우리 나라 가끔수의부문에 빛나는 공적을 세운 그의 생애에서 그것은 첫발자국이였다.

나는 지금도 그가 안타까이 부르짖던 말을 잊지 못한다.

《...학위도 학직도없는 미미한 존재로 한생을 바친다 해도 현실을 외면할순 없소.》

그에겐 자기의 운명보다 조국의 요구가, 현실의 요구가 더 중요했으니 한생 그는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 나라에서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안고 모대기였다.

쉽없이 흐르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인간의 한생은 눈부시게 빛나기도 하고 흔적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파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것이 인생을 값있게 사는것이고 어떻게 시간을 바치는것이 인생을 랑비하는것인가?

나는 지금도 조용히 세월의 뿔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심장속 깊이에서 울려오는 그 목소리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어떻게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있는가고 귀에 익은 쇠소리나는 음성으로 묻군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자기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에만 빛을 낼수 있는것이다.

나는 셋째아들도 바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랄뿐이다. 후날 세월의 물음앞에 떳떳할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 경구, 격언

- 《우리가 항상 빛을 지고 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이다》
-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심장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어머니!> 라고 부를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이야말로 큰것이다》
- 《세상에 자랑스러운 모든것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
- 《어머니가 강한것은 자식들이 있기때문일것이다》
-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 풍요한 가을에로

리명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자, 작가들이 좋은 글을 쓰자면 현실체험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현실을 직접 체험하여 많이 알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송도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송천남새농장마을은 선군시대의 농촌마을답게 아담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였다.

여기서 소설가 조인영동무가 가족과 함께 생활의 터전을 잡고 새 세기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현실체험을 하고있다.

처음으로 내가 조동무를 찾아간 때는 마침 봄철이라 집둘레에서는 한창 복숭아, 앵두, 살구꽃들이 만발하여 마치도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였다.

농촌문화주택과 똑같은 모양을 한 그의 집 정원에 들어서니 주인보다 먼저 칠면조와 계사니, 닭들이 부지런히 모이를 쫓다가 꼬꼬덕, 짹짹거리며 나를 맞아주었다.

소설가의 낯익은 부인이 달려나와 반겨주었다.

《그동안 잘있었습니까?》라고 인사를 하면서 조동무가 있느냐고 물으니 이즈음엔 늘 고정현실체험지로 정한 작업반의 남새모판들에 나간다고 했다.

나는 곧 조동무가 나가있다는 4작업반 2분조로 향하였다.

마식령에서 흘러내리는 적천강주변에 펼쳐진 비옥한 흑토를 차지하고 분조의 모판이 정성껏 가꾸어져있었다.

체소하나 강단이 느껴지는 체대군인출신의 분조장이 나를 반갑게 마중하며 조동무의 행처를 알려주었다.

모판관리공아주머니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소설가는 환한 얼굴로 나를 반겨맞는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조동무가한 모판관리공녀인에게 물었다.

《정당살아주머니, 지난해 오이농사에서 분조가 첫자리를 차지한 원인이 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곤색작업복을 입고 밤색점박이수건을 쓴 과묵해보이는 녀인이 살포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주체농법대로 했을뿐이에요.》

그 농장원은 소박하게 대답하고는 입을 닫아버렸다.

결에 앉았던 나이지긋한 남자모판관리공이 느물느물 웃으면서 유모아식으로 말했다.

《글쎄 탄살아주머니가 키워낸 오이넝쿨에서는

줄줄이 암꽃만 피거던요. 반대로 1분조 오이밭에서는 수꽃만 내내 피어서 벌나비들이 부지런히 꽃가루를 날라다가 2분조 오이밭에 수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1분조와 2분조를 <오이사돈> 이라고들 하지요. 허허허.》

모두들 웃었다. 나도 조동무도 따라웃었다.

듣고보니 수수께끼 같기도 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어째서 한 분조에서는 암꽃이 많이 피는데 다른 분조에서는 수꽃만 많이 피는 오이모가 생겨나는지 원인을 밝혀내는 사람이 없었다.

오이종자탓일까? 아니면 포전탓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 누군가 씨앗다루기를 잘못하여 고온피해를 입힌것은 아닌지?

어느덧 일할 시간이 되어 농장원들과의 담화는 그쯤으로 끝나버렸다.

농촌태생인 나도 어떤 요인이 암꽃과수꽃의 비례에 큰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문제에 은근히 호기심이 갖었는데 시원한 대답이 없이 이야기가 끝나자 한편 서운하기도 했다.

나는 조동무와 함께 한창 짝일사이에서 첫일순을 울리미는 오이와 앗은 호박모판에서 잡풀을 뽑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동무 역시 왜 수꽃만 피는 오이포전이 생겨났을까 하는 문제를 종시 밝혀내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운듯 여전히 그 문제에 신경을 썼다.

《그런 복잡한 기술실무적문제를 해명하려고 원심쓰다가 창작시간을 다 허비하는게 아닙니까?》

내가 은연중에 넘려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기자동무, 이건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닌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우연한 인자에 의한 결과도 아닌것 같고, 난 여전히 여기에도 심각한 인간문제가 깃들어있다는 생각이 갈마들거던요.》

농사짓는 사람들의 심리, 다시말해서 땅과 농작물을 대하는 농민의 심리정서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 오이꽃문제에 얽혀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지요.》

나는 드디어 조동무의 사색의 뜻이 헤아려졌다.

결국 그가 찾아쪼려는 문제는 그 어떤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인간문제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땅에 대한, 심어 가꾸는 작물에 대한 살붙이와 같은 애착, 이것이 농민의 심리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이룬다. 그런즉 그러한 사랑과 애착의 차이가 결국은 결실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는것이다.

점심때가 되어 나는 조동무가 이끄는대로 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나는 다행히도 책상우에 있던 그의 현실체험기를 읽어볼수 있었다. 여기에 며칠분의 일지를 소개한다.

## 200X 년 3월 X 일

비닐박막을 뒤집어쓴 모판마다에서 새파란 남새모들이 날이 다르게 자라고있다. 논에서는 벼랭상모씨뿌리기가 한창이다. 농업근로자들은 저마다 바쁜 계절에 락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일찍부터 모판에 나와 일손을 잡군 한다.

자기들의 후더운 땀과 체온으로 대지를 덥혀서라도 새싹들이 더 빨리 자라게 하려는 심정인양.

그런데 어이하랴.

오늘 아침 일찍 잠을 깬 나는 깜짝 놀랐다.

창박을 내다보니 눈이 두뿔이나 되게 내렸다.

어제 저녁까지도 새파랗던 하늘에서 밤사이에 이렇듯 많은 눈이 쏟아져내리다니. 기온도 퍼그나 떨어졌다. 무엇보다 새싹이 움터자라는 남새모판이 걱정되었다.

나는 부리나케 눈가래를 들고 달려나갔다.

오랜 나날 농촌에서 살아온 안해도 사태의 긴박감을 헤아리고 뒤를 따랐다.

분조에 달려나가니 벌써 분조장과 많은 분조원들이 나와서 모판 보온나래우에 덮인 눈을 치고 있었다. 분조일을 주어진 심정으로 대하는 그들이 모두 대견했고 돌보았다.

나도 힘껏 눈가래질을 했다.

모판의 활창대들은 눈무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꺾어지거나 주저앉았고 비닐박막도 찢기고 물러앉아 애어린 싹들이 짓눌렸다.

모두다 말없이 입술을 옥물고 긴장한 《구제전투》를 벌리었다.

모판우의 눈을 조심스레 쳐내고 주저앉은 활창대를 다시 꽃고 짓눌렀거나 부러진 싹들을 바로 잡아준 뒤 인차 비닐박막을 씌우군 했다.

숨가진 물건을 구해내는 일이라 정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간이 한정없이 걸렸다.

쌀쌀한 바람속에서도 농장원들의 얼굴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줄지어 흘렀다. 나도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속옷이 젖어 몸에 들어붙었다.

분초가 새로왔으나 분조장은 아침식사도 못한 분조원들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라고 지시했다.

나도 허기증을 느끼며 안해와 함께 모판을 나서려 했다. 그런데 한쪽에서 비닐박막을 쳐들고 모판안을 들여다보던 정탄실농장원만은 일어설념을 하지 않고 말없이 흐느끼는것이였다.

나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그 무슨 애달픈 사연이 있는듯싶어서였다. 걸음을 돌려 그 녀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눈을 헤집고 그

밑에 눌리워 부러진 애어린 싹 몇포기를 어루더듬고있었다. 도저히 살려낼 도리가 없는 싹들이 정탄실의 심중에서 급기야 설음을 터치게 한것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몽쿨하고 후더운 격정에 물젖었다.

땅과 농작물을 다루는 농장원의 한없이 아름다운 정서의 세계를 체험하는 순간이였다.

책상에 앉아서도 도저히 목격할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진정한 인간의 참된 정서, 이것이야말로 현실체험의 길에서 받아안은 가장 귀중한 열매의 하나이다.

나는 그를 손잡아 이끌었으나 좀 있다가 들어가겠다고 했다. 허나 내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도 그는 묵묵히 눈을 치며 포전을 떠나지 않고있었다.

오늘 내가 체험한 정탄실의 성격, 그것은 정녕 나를 매혹시키는것이였다.

누가 진정 자기의 일에 앞서 공동의 일,나라의 일을 두고 그렇듯 가슴아프게 눈물지을수 있으랴.

그 성격에 기초하여 사색을 심화시키면 능히 선군시대의 애국농민을 훌륭히 그려낼듯싶은 심정이였다.

오래동안 가슴은 기쁨과 흥분, 걱정으로 두근거렸다.

## 200X 년 6월 X 일

2분조 오이닝쿨에 첫꽃이 피었다. 노란 꽃잎뒤에 가느다란 새끼오이가 매달린 암꽃이였다.

그루우에 복주기를 하고있던 탄실이가 환성을 질렀다. 앞으로 피여날 꽃망울에도 잘디잔 오이맹아들이 보인다는것이다.

나는 오후에 1분조 오이포전에 가보았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게 오이의 발육상태를 살펴보았다.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지만 며칠뒤에 피여날 꽃망울들이 가득 맺혀있었다. 나는 새끼오이들을 찾느라고 눈을 밝혔다. 그러나 허사였다. 맨수꽃이였다.

넌지시 다가온 1분조장이 내가 녀려하는것을 다 안다는듯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일없습니다. 처음엔 수꽃이 좀 피다가 나중에 암꽃이 많이 필겁니다. 오이도 한생애 열매를 몇개 맺는다는게 다 주어져있으니깐요.》

그역시 수수께끼같은 소리였다. 어차피 오이넉출을 걸게 될 7월말까지 관찰할수밖에 없는 일이였다. 왜서인지 원인과 결과를 꼭 헤아려내고싶은 마음이다.

자연적인자가 아니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수확에서까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연구사의 연구분야가 아니라 작가의 탐구와 체험의 분야인것이다.

기록장을 보고난 뒤 나역시 무척 궁금한지라 조동무에게 물었다.

《조선생, 그 수꽃만 피는 오이에 대한 문제는 해명되었습니까?》

《아직은... 그러나 곧 락착을 짓겠소. 농업과학원 도분원의 남새연구사들도 만나고 원산농업대학 남새학부, 도농촌경리위원회 남새처에랑 들려서 전문가들의 학술적견해도 들어보자는거요.

왜냐면 이 문제는 농업실천적문제에 귀결되더라도 종당에는 인간문제에 떨어지기때문이요.

자신보다 분조농사를 먼저 생각하는 농장원과 그렇지 못한 농장원이 지니고있는 정신도덕적 및 정서의 차이점에 의하여 나라의 쌀독이 어떻게 차기도 하며 줄어들기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활적으로 천명되는 계기로 된단 말이요. 그러자면 명백한 과학이 안받침되어야 한다오.》

나는 그의 의견에 긍정했다.

생물학적원리를 과학으로 론증하는것은 연구사의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의 불성실이 원인으로 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생활적으로 론증해보이는것이야말로 작가의 몫인것이다. 그런즉 현실속의 작가는 생활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습득할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들의 정신심리세계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체험하여 진실한 성격형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나는 오늘 중요한것을 하나 터득했다고 자부하면서 문득 권고하였다.

《조선생, 우리가 론의한 그런 문제로 현실체험기를 하나 쓰십시오.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말이지요.》

그러자 조동무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직은 이르오. 그 문제가 아무리 흥미진진하고 의미심장한것 같애도 작가가 쓰고있는 작품과 유기적으로 련관되어있을 때라야 현실체험기의 가치를 가지게 될거요. 다시말해서 작가의 현실체험기란 자기가 쓰고있거나 쓰게 될 생활과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새롭게 발견한 성격과 문학적인 이야기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흔히 보면 기자들의 보도기사나 기행글 비슷하게 써서 편집부에 보내는 체험기 아닌 체험기가 적지 않거든.》

나는 옳다고 긍정했다.

작가의 글이란 비록 손바닥만 한 토막글일지라도 작가의 미학사상과 창조적지향과 주장이 깃든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종자없는 현실체험기나 작가의 작품창작과 거리가 먼 현실체험기는 실지로 필요없는것이기도 하다.

×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계절이 왔다. 남새포전과 린접한 논판에서는 머리를 풀어헤친 벼포기들이 마파람에 설레이고있었다.

동해에서 떠오른 붉은해는 금빛해살로 대지를 끌고루 쓰다듬는다. 해빛넘치는 전야에서는 땅을 다루는 농업근로자들의 구성진 노래가 훈훈한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마을을 가까이 하던 나는 마을이 저으기 낮설어보이는것을 느끼었다.

불과 두석달사이에 조인영동무가 현실체험을 하고있는 소재지마을이 옛모습을 찾을수없게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일떠선것이였다. 메탄가스발생장치가 되어있는 세칸짜리 넓은 살림방에 목욕탕, 위생실이며 돼지, 토끼, 닭 등 집짐승을 기르기 편리한 시설이 되어있는 선군시대의 농촌문화주택마을이 눈깜박할 사이에 일떠섰으니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얼마후 조동무의 집을 찾아 들어가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집모양이 완전히 일신되어 새문화주택이나 다름없었다.

《참 놀라운데요. 조선생! 마을이 생겨 수백년세월에도 해내지 못한 일을 40여일밖에 안되는 기간에 해놓았으니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잠재력에 감탄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속마음을 그대로 헤쳐놓았다.

조동무도 이번에 진행된 마을의 건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뜨겁게 절감하였다고 했다.

《기자동무! 나도 이제는 사회주의농촌현실주체의 장편소설을 하나 구상해볼 생각이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새 세기에 들어선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이 자신은 물론 자연과 사회를 보다 문명하게 개조해나가는 모습을 글에 담아볼가 하오. 조상들이 수세기에 걸쳐서도 해낼수 없었던 일을 단숨에 해제끼는 이와 같은 변혁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아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통하여 더욱 강해진 사회주의농촌의 집단력의 시위라고 생각하오.

문명한 새 세기에 새로운 과학과 기술로 농사를 현대화, 과학화해가며 사회주의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건설해가는 길에서 발휘되는 새롭고 혁신적인것과 낡고 보수적인것과의 투쟁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생활체험에서 공백이 많다오.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정해야 할지 그것도 확정하지 못했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리당비서나 지배인이 주인공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들하지만 난 찬성하지 않소. 단위책임자, 당일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이 근래에 얼마나 많이 나왔소.

꼭 갈아질거란 말이요.

지도하고 혼시하고 비판하며 이신작척하기도 하며 가정적이고충도 있고 신병을 숨기면서 투신하는 그러한 덕망있는 일군들... 그렇지만 난 아니라고 생각하오. 평범한 농장원들속에서 원형인물을 찾아보려고 하오. 낡은 생활방식에 사로잡힌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반대로 일시 주저앉았지만 당조직의 지도방조아래 기어이 리상을 꽃피워가는 주인공들을 등장시켜보려오.

또한 태를 묻은 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도시에서 간부를 하는 아들을 따라가지 않고 사회주의 농촌건설에 헌신하는 년로한 이전 당일군의 형상도 예견되어있소. 하여튼 미래의 농촌주체의 장편소설은 아직 상상에 불과하오. 제목도 가제로 〈우리가 사는 땅〉이라고 달았을뿐이요.

새 세기 농업근로자들을 지난 세기 농업근로자들과 차이나게 보다 높은 정신도덕적경지에서 창조하려는것이 내 욕심이기도 하다오. 주저되는것이 없지 않소. 그러나 작품의 주인공들이 내결에서 살며 나와 함께 숨쉬고 사고하며 투쟁하고있는 한 능히 성공하리라는 락관을 지니게 되오.》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두고 신심에 넘쳐있는 소설가를 보게 되니 나의 마음도 개운해졌다.

오후에 나는 조동무와 더불어 커다란 오이들이 주렁주렁 맺힌 1분조와 2분조의 오이포전을 돌아보았다. 소설가가 오이포전을 돌아보게 하는 의도가 헤아려졌다. 지난해처럼 수꽃만 피는 오이농쿨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조동무의 말에 의하면 수꽃만 피는 오이가 생기는것은 그 어떤 우연한 외부적요인이나 유전적인자에 의한 현상이 아니였다.

비닐박막관리와 보온나래덮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지않고 어물쩍해버린 결과 모판안의 적산온도와 해비침률에서 정상을 초월하였다. 그런 모판에서는 공기갈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헛자란

모가 생기는데 이런 모를 밖에 내다심으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느라고 오랜 기간을 잃게 되며 영양결핍으로 암꽃을 피우기가 어렵게 된다.

조동무는 이런 학술적문제를 깨달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른것이 아니였다.

어떤 농장원에 의하여 이런 모들이 생겨나는가 하는것이 더 중요하였다. 일부 농장원들이 분조일보다 자신의 일에 더 분망하여 시장에만 정신이 팔리다보니 모들도 헛자라게 되었다는것을 밝혀낸 그는 그들을 실생활속에서 꾸준히 도와주어 긍정인물의 원형으로 만들었다.

나는 소설가가 무엇때문에 수꽃만 피는 오이의 교훈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도 절절히 이야기했던지 깨도가 되었다.

오랜 기간 비닐박막을 들쓰고 단련되지 못하여 헛자란 오이모와 다름없이 촛다고 동면하듯이 고난과 시련앞에 주저하면서 현실에 나가기를 꺼리어 작가적토양을 가꾸기에 게을렀던 창작가에게는 결코 풍요한 결실의 가을이 차례지지 않는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야기하자는것이 아니겠는가.

선배작가들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난알과 북데기라는 성구화되다싶이 한 말이다.

농업근로자들이 풍요한 가을을 그려 땀흘리며 사계절을 성실하고 역척스레 일하듯이 작가는 한편한편의 작품을 성과작으로 만들고저 한생을 다하여 발편잠을 마다하며 분발하는것이다.

나는 소설가 조인영동무가 당의 기초축성시기 선배작가들의 창작기풍을 본받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여주신 혁명의 필봉을 역세게 틀어잡고 선군시대를 구가하는 명작으로 당을 만들기 위하여 변함없이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창작의 열매가 주렁질 《풍요한 가을》을 향하여 달려가리라는 확신을 지니게 된다.

## 가사

### 얼굴 좀 들러마

#### 문원모

삼복더위 불벌에 타 땅처럼 붉은 얼굴  
해지도록 들지 않고 김매는 처녀야  
아 얼굴 좀 들러마  
네 일숨씨 보고야 아니 반할 총각 있을가

내려찍는 피약벌에 푸른 포기 가꿔가며  
꽃씨같은 땀방울 떨구는 처녀야

아 얼굴 좀 들러마정이 가는 네 모습에 아니  
반할 총각 있을가

농장벌을 가꾸느라 벌에 탄 그 얼굴은  
보름달도 못 비기리 농장의 처녀야  
아 얼굴 좀 들러마  
장군님 쌀로 받들 네 마음이 제일이지



(전호에서 계속)

제 5 장

인민반의 속보관  
세대주들 출근길 퇴근길에서  
눈길을 멈추지 않은적 없나니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당황히—  
저 속보관에 다 어려있구나  
인민반을 한가정처럼 덥히여온  
인민반장 인숙이의 남모르는 그 수고  
그라고 어찌 힘들때가 없으련만  
어느때나 밝은 얼굴  
어렵고 힘든 일엔 앞장에 서고  
기념일날 로병들과 후방가족들  
남먼저 찾는 아름다운 미풍도  
최우등한 아이들을 축하해주고  
표창휴가 군인들을 맞이하는 일  
인민반의 가풍으로 꽃피운 사연  
저 속보관에서 다 보여오는구나  
놀이터 휴식터를 꾸리던 때  
철봉이며 미끄럼대 조각들과 오락관!

때로는 뒤말하는 녀인도 있었다  
외면하는 세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인민반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 진심에 감동되고 공감이 되어  
스스로 따라서던 사람들이 아니던가  
저 속보관에서 다 들려오는구나  
《우리 반장》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람들의 진실한 부름소리가  
들끓는 생활의 하루하루가  
사진처럼 담겨진 인민반의 속보관  
힘이 되고 분발이 되어  
집집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속보관  
장군님께 기쁨드린 힘찬 구호가  
인민반의 마음처럼 크게 새겨져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인민반!  
한지붕을 함께 하고  
한현관을 함께 하고  
서로 다른 가정들을 품에 안고서  
조화로운 호흡을 따듯이 하나니  
인민반!

누구나 이앞에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자고 애쓴다

인민반은 감출수 없는 거울이기에  
그래서 사람마다 이사할 때면  
인민반이 좋은가고 묻곤 하나니  
다른 인민반 녀인들 통절반 진담절반  
집을 바꾸지않겠느냐고  
아니면 반장을 훌쳐가겠노라고—  
어느덧 인숙은  
끊을수 없는 정속에 살고있었다!

… 어느날 저녁  
3호집에서 큰소리 터졌다  
사람들이 반장을 찾았다  
광수 어머니 말없이 떠민다  
인숙이 조용히 문을 여는데  
한동안 즈름하더니  
다시 터지는 큰소리  
어느 공장 공급파에 다니는  
명아 아버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무거운 그늘을 주더니  
비법적인 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찌려고 그러는가고  
명아 어머니 애원하는데

《명아 아버지!》  
나직한 부름이나 흠칠 놀란다  
인민반장이 아닌가?  
인정미 많으면서도 정의로운  
인숙이를 조심히 대하는 그다

《그래 우리 안해들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 일을 할적에  
아래목에 누워 잠을 잤던가요  
연약한 어깨우에  
집일을 다 맡기고 다닐 때에도  
가정과 자식을 돌보며  
그들 한점 비껴세라 마음썼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장 걱정하는 명아 어머니에게  
아픈 피로움을 주고  
큰소리도 서슴지 않고—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명아 아버지자기 안해만이 아닌  
우리 모든 녀성들을 모욕하고있어요  
원썬들이 강요한 시련속에서  
그처럼 이악하게 건디여온  
안해들을 모욕하고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리로 그러는가요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가요》  
준절한 목소리—  
인민반의 문제는 인민반의 힘으로  
말없이 풀어진 인숙이건만  
그러나 오늘은 격분이 머리든듯  
애써 누르는듯 울리는 진정

《물랐어요! 이럴줄은  
명아 아버지!  
가정불화는 인생의 파멸로 이어지는 법  
진실한 안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데서 행복을 찾고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겠나요  
부끄럽지 않은가요 자식들앞에!  
부끄럽지 않은가요 인민반앞에!》  
명아 아버지 무너지듯 물러앉으며  
담배든 손이 무겁게 오르내리며  
표현할수 없는 충격이 그를흔들며  
자신을 돌아보며 속이게 한다  
명아 어머니 말대로  
우선 당위원회에 꼭 찾아가라고  
인숙의 말은 절절하게 울렸다

뒤이어 들어오는 세대주반장  
《남의 가정일에 빠친다고 생각 말게  
다 우리 집 문제가 아닌가  
사내들끼리 말해봅세나!  
오죽 가슴아프면  
녀인들이 저렇게 피로움을 말하겠나  
자네도 인간이라면  
두 자식의 아버지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게  
지금 모두가  
장군님 펼치시는 선군문화 따라서  
우리 마을 우리 일터  
너도나도 떨쳐나 꽃피워가거늘...》  
세대주반장의 목소리  
말형처럼 묵중히 울린다  
인민반장사업의 빈 공간을  
말없이 메꾸어주며  
화목한 인민반으로 이끌어가는  
강철공장 직장장인 세대주반장  
광수 아버지!  
《아바이! 내 잘못했수다...》

녀성은 큰결 바라지 않는다  
사나이들에게서  
반갑게 맞아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안해의 수고를 리해해주고—  
생각해보시라! 그대가 누구이든  
안해의 생일날  
꽃 한송이 안겨준적 몇번이나 되는지  
출장길에 화장품 하나라도  
사다준적 있었던가를  
그렇게는 못할망정 어떤 사람들속엔  
별다른 일로 신경질을 부리고  
안해를 달달볶는 사람도 있다  
모든 잘못이 녀자에게 있는듯  
걸핏하면 껍떡하는 사람도 있다  
안해의 사랑은 늙음을 모르나니  
그 정성엔 낮과밤이 따로 없다  
한생의 꿈을  
남편과 자식에게 었고사는  
우리 녀성들을 위해  
우리모두의 가정을 위해  
수령님 물려주신 가정유산도  
《가화만사성》친필이 아니던가

출근길 바래우는 맑은 눈길에  
퇴근길 맞아주는 맑은 웃음에  
이나라 녀인들의 정이 비껴있거니  
생각해보노라! 우리 만일  
시대의 앞자리 차지하지 못한다면  
일터의 기수가 되지 못한다면  
생각해보시라! 우리 만일  
혁명이라 부르는 고귀한 전취물을  
목숨바쳐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길에서 잠시나마 주저한다면  
잊지 마시라!  
이 나라 사나이들이여!  
우리의 안해들이 이밤도  
그대들을 위해 잠 못 이룰지 어찌 알랴  
아 이 나라 아들딸들이여  
이 순간도 우리 어머니들이  
그대들 걱정으로 맘태울지 어찌 알랴!

## 제 6 장

상점으로 오리타러 나갔던 인숙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렀다  
마음속 긴장이 훌 풀려  
《어머니 나 열흘 쯤 잤으면...》  
예로부터 출가의인이라 하여도

딸은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살붙이  
 그래도 딸보다 며느리를  
 더 커하는 어머니  
 마을의 늙은이 찾아와  
 며느리 뒤소리하면  
 《같이 늙어가는 나이에  
 그런 소리 하지 마오  
 딸의 잘못은 언덕만큼 보이고  
 며느리 결함은 산처럼 보인다고  
 그 딸과 있어보면 열백번 눈에 나도  
 제 자식이기에 이해하는것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해보오  
 그러면 그 사랑이 자기에게 온다오!》  
 머리를 끄덕이며 동네 할머니  
 《확실히 봄이 할머니 개명했수다!》  
 딸앞에선 엄한 어머니  
 응석을 받아줄 나이가 아니거늘  
 내인들이 맥을 놓으면 안된다고—  
 《어머니!》  
 마디지고 주름진 어머니의 손  
 꼭 잡고 불에 대니  
 흘러드는 자책의 시내물—  
 사람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고  
 걸음걸음 잘되라고 받침목이 돼주기에  
 때려도 그 때는 아프지 않고  
 꾸짖어도 힘이 되어 안겨오나니  
 늘 자식들때문에 마음놓지 못하는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늙으셨구나  
 철없던 시절이나  
 자식들을 거느린 오늘이나  
 어려워도 찾아오고  
 기쁠 때도 찾아오는 어머니품

친정집뿌리 흔들리면  
 집떠난 자식들 맥을놓을가봐  
 가장 어려울 때 집을 지키고  
 자력의 원동력 되어주던 어머니  
 (내가 든든해야  
 자식들이 원기를 얻는다  
 시대에 떨어지지 않게  
 생활의 자대 바로 봐주리!)  
 이런 어머니품이 있었기에  
 아들딸 며느리도 존경하였다  
 형제의 의리도 두터워졌다  
 얼굴에 그늘지고 알지 말라고  
 기울인 그 마음 얼마이던가  
 늘 일깨우는 말  
 《시부모를 부모보다 높이 모셔라  
 남의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남편의 믿음직한 길동무

시동생들 따뜻한 방조자  
 인민반의 진실한 딸딸이 되여라!》  
 고향이 회령인 어머니마음속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그 빛나는 귀감이 자리잡고있거늘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면 못쓴다고  
 늘 당부하며 떠미는  
 그 깊은 마음속엔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숨결이 흐른다!

친정집을 나선 인숙이  
 남모를 힘이 부쩍부쩍 솟았다  
 오늘은 인민반에서 처음으로  
 장군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은 병사  
 표창휴가 군인—광수를 맞았거니  
 그에게 오리곰을 해주리라  
 마음은 구름처럼 즐거워  
 거리로 나섰던 인숙이  
 방송에서 울리는 소식 들었다!  
 그것은 미국놈들이  
 제재의 도수를 높이겠다는  
 왜나라 놈들도 맞장구를 친다는—  
 쌍이고쌍인 증오를 들어깨운듯  
 격분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조선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불어우갈은 놈들  
 어부지리를 얻어보자고?—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  
 전쟁보다 더 가혹했던  
 《고난의 행군》강행군을  
 미제와의 판가리혈전을!

언제 한번 나라에 우는소리 한적 없고  
 손 내민적 없는 이 나라 녀인들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곳엔  
 한담이 허리펄 순간이 없었다  
 안일과 고독이 좀쉴 곳도 없었다  
 멈춰서면 죽는다는 생활철학으로  
 비오는 날 눈내리는 날이나  
 무더운 날 바람부는 날이나  
 진땅 마른땅 가린적 있었던가  
 힘든 일 험한 일 타발한적 있었던가

이런 녀인들이  
 자기가 섰던 초소에 자식들을 세웠다  
 군인가족예술공연의 무대 펼쳤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함께 나눈다!  
 이런 녀인들이  
 얼음덮인 발전소건설장에서

뜨거운 웃음을 쌓아갔고  
 세벌농사 기적을 꽃피웠다  
 연간계획 앞당기는 기발 날렸다!  
 그들속에는  
 두메산골 도로관리원의 모습도 보인다  
 과학자 교원들 의사들과 상업일군  
 람홍색공화국기 펄펄 휘날린  
 미더운 딸들의 모습도 비낀다  
 총련녀성들의 애국의 지성도 불란다  
 그 어떤 시련도 두려움없이  
 그 어떤 난관도 뚫고헤치며  
 불굴의 투사들로 성장한이들  
 그래서 우리 조국을 두고  
 어머니라 높이 부르는것이아니  
 온 나라가 하나의 반미대결장!

사람들이여!  
 마음을 늦추지 말라!  
 원수들은 해이된 틈을 노린다  
 장군님군대를 잘 받들어야  
 우리 언제나 끄떡이 없고  
 원군의 뜻이 원대할수록  
 삶의 존엄을 더 높이 떨치려니  
 선군의 나라!  
 나의 조국이어  
 우리 네 품에서 힘들었을망정  
 침략자의 군화발에 밟힌적도 없었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뜻을 받들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낸 녀인들  
 그 어떤 난관도 헤쳐온 녀인들  
 그래서 사람마다 《고난의 행군》은  
 우리 녀인들이 했다고 말한다  
 병사들이 조국을 지키었다면  
 녀인들은 가정을 지키었나니  
 《원수들은 우리의 힘과 본때를 몰랐지!》  
 끄떡없으리라!  
 위대한 장군님 곁에 계시는 한  
 누가 감히 탐낼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땅을!  
 누가 감히 건드릴수 있단말인가  
 우리의 존엄을!  
 신념이 부족했던자들!  
 치욕의 자욕 찍었던자들!  
 이 녀인들앞에서 얼굴을 붉히라  
 말로만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녀인들앞에서 머리를 숙이라!

...표창휴가 온 광수가 떠난 뒤인숙은  
 쌍둥이 두 아들을

조선인민군대에 입대시켰다  
 명아도 군복입었다  
 《땃땃이 돌아오너라!》  
 인숙이의 목소리 기대에 뜨겁다  
 명아 아버지 어머니  
 딸과 함께 나란히 사진찍는데  
 도중식사 넣어주는 광수 어머니  
 모두가 한가정 한혈육이다  
 모두가 웃음이다 노래다!

## 제 7 장

일요일은 가정의 작은 명절날인가  
 긴장을 풀어주는 즐거움을 약속한다  
 늦잠자도 이날엔 탓하지 않는다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라고  
 휴식이 더 큰 열정이 되라고  
 우리 장군님 그 몇번 이르셨던가  
 그 사랑이 깃든 일요일날은  
 누구에게나 고마웁게 밝아오나니  
 함뻍 정이 담긴 안해의 눈길은  
 온몸가득 봄빛으로 흘러드나니  
 이 아침 문두드리는것은 누구?  
 통신원처녀 두툼한 편지봉투  
 생글생글 웃으며 전한다

봄이의 편지!  
 장군님의 참된 병사가 되기 전엔  
 편지를 안하겠다고 맹세도 굳더니  
 그래서 이처럼 반가운것인가  
 딸의 얼굴인양 쏘아보고 쏘아보며  
 남편에게 먼저 보이는 편지  
 봄이 아버지 성급히 펼쳐보는데  
 얼굴가득 피어나는 웃음  
 탄성도 저도 몰래 터졌다  
 《우리 봄이가 장군님을 만나뵈웠소!》  
 《뭐라고요?》  
 너무도 큰 충격을 안고  
 다우쳐 편지를 읽어가는 인숙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된듯  
 만시름 티끌처럼 사라진다!  
 ...

해빛도 유난히 밝은 어느날  
 통신중대 병사들을 찾아오신 장군님  
 수수한 돌의자에 앉으시여  
 병사들의 노래도 들어주셨다  
 참 노래를 잘 부른다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부른 병사가  
 특히 잘 부른다고  
 봄이를 몸가까이 불러주신다  
 하나하나 집소식도 물어주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초소에 세운  
 어머니 그 마음 읽으시는가  
 영예군인의 안해로서  
 인민반장사업도 잘하고  
 원군사업에도 앞장에 서고—  
 미더운 병사들의 뒤에는  
 꼭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법이라고  
 우리의 전선과 후방은  
 그래서 이처럼 금성철벽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우리 장군님

우리 녀성들은 모두 영웅들이며  
 귀중한 선군혁명동지  
 이런 녀성들을 금방석에  
 금방석에 앉히고싶으신듯  
 허물없이  
 녀인들과 마음속 이야기도 나누시는가  
 큰힘을 얻으신듯 기뻐하신다!  
 아! 장군님  
 자신계신 딱딱한 야전차 의자에서  
 익숙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며  
 병사들이 앉는 수수한 의자에도  
 허물없이 옷으시며 앉으시나니  
 그 모습 뵈우며  
 가슴아파 잠 못 드는 녀인들—  
 자나깨나 장군님을 금방석에 모시고픈  
 간절한 그 소원을 오히려  
 이 나라 녀인들에게 안겨주려 하시나니  
 진정 장군님의 선군은  
 이 나라 녀인들에 대한 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나라 녀인들은  
 그렇게 배운 사랑으로  
 그렇게 넘치는 정으로  
 장군님의 선군령도 받들어가나니  
 진정 조선녀성들의 전통  
 그것은 봉건이 물려준것이 아니었다  
 우리 수령님 심어주고 꽃피워주신  
 백두의 전통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따라  
 불바다 만리 눈보라 만리  
 청춘을 다 바쳐 꽃피운 전통  
 남녀평등권 발포와 더불어  
 조국의 력사를 빛내인 전통  
 얼마나 많은 이 나라 딸들이  
 수령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한목숨 기꺼이 다 바쳤던가

오늘도 귀전에 올려오는 어머님말씀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고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시다면

그이상 바랄것이 없다시던  
 아, 그것을 행복으로 안고사신  
 주시는 정을 락으로 여겨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그래서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심장에  
 오늘도 살아뛰는 구호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자!》  
 백두에서 시작된 녀성들의 력사는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혁명의 한쪽수레바퀴가 되어  
 조국을 떠밀어온 위대한 힘임을  
 가슴뿌듯이 확신하시는 우리 장군님

자동보총 선물로 안겨주시며  
 봄이를 따듯이 바라보신다  
 어머니가 나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것처럼 부러워했다는데  
 오늘 최고사령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꼭 보내여드리라고  
 뜨겁게뜨겁게 말씀하신다  
 《최고사령관동지!》  
 뵈으신 그 품에 안기며  
 목매여 터치는 병사의 감격이여!  
 동행한 지휘관들을 둘러보신다  
 부모들이 우릴 믿고 자식들을 맡겼다고  
 명령하는 지휘관이 되기 전에  
 친부모 심정을 지녀야 한다고  
 생사를 함께 하는  
 동지가 되어 전우가 되어  
 어머니들이 바라는데로  
 끝끝한 영웅들로 키워주자고—  
 조선의 군력은  
 이런 위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다  
 이런 위대한 믿음에 생명을 두고있다…  
 (더운 식사 한번 지어올리지 못한  
 두툼한 내의 한벌 떠드리지 못한  
 이 죄스러움  
 무엇으로 다 갚을길 없는데…)  
 평양하늘 바라보는 인숙의 눈가엔  
 뜨거운 그리움이 흘러내렸다  
 그 고운 마음은  
 인민반일지의 폐지폐지에  
 장군님의 선군길 기록해갔고  
 원군의 지성을 고여왔거니  
 조국이어! 자랑하라!  
 장군님 길이 믿어 내세워주시는  
 이런 녀인들이 있기에  
 그대는 것처럼 위대하고 존엄높구나  
 생명을 다해 지켜가는 이 땅이여서  
 그대의 풀 한포기 이처럼 귀중하고

소리치며 흐르는 맑은 내물마저  
그처럼 깨끗하고 소중하구나  
조국이어!  
이 나라 너인들의 숨결에 받들려  
그대의 맑은 하늘은 그처럼 푸르고  
그대의 꿈은 그처럼 아름답구나

너성은 피였다 시드는 꽃도 아니고  
조롱속 지지귀는 새도 아니다  
너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존재이며  
미래를 키워내는 훌륭한 선생이다  
벽찬 생활과 투쟁의 한 전선을  
억세게 말고선 이런 창조자들이  
불같은 시대  
영웅적사변의 나날속에서  
비에와 한숨을 박차버리고  
남편들과 함께 한전호에 서있다  
자식들과 함께 한초소에 서있다

아! 우리 장군님 또다시 마련해주신  
전국어머니대회 대표로 선출된  
우리의 주인공—오인숙!  
원군을 잘하여 장군님의 감사를  
세차레나 받아안은 그  
2 중 7 월 11 일붉은기인민반으로  
이끌어온 그  
평범한 이 나라의 한 너인이다  
어데서나 볼수 있는 수수한 저 너인  
어찌하여 이처럼 아름답게 보이는가  
장군님 아시는 삶을 지냈기에  
그처럼 눈부시게 빛나는것이구나  
광수 어머니 마음도  
명아 어머니 마음도  
저 모습에 다 비끼였구나  
미더운 자식들의 모습도  
다 보여오는구나  
남편의 말없는 당부를 새기며  
렬차에 오르는 오인숙세대주반장이 손짓는다  
명아 아버지도 보인다  
위대한 장군님 더 높이 모셔갈  
인민의 한마음 모두 싣고서  
렬차여! 기적소리 높이 울리라  
발을 쿵쿵 구르며 힘을 뿜으라  
이 나라 너인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절정  
전국어머니대회장을 향하여  
혁명의 수뇌부 자리잡은 곳  
장군님 계시는 평양을 향하여  
렬차여! 달리라!  
그리움이어! 달리라!

×

밤은 정을 속삭이며 깊어가는데  
안타깝구나  
그 아무리 무딘 붓을 갈고갈아도  
우리 너인들을  
더 아름답게 그릴수 없는것이!  
사랑을 다해  
키워주고 도와주고 말없이 떠밀어준  
내 어머니 내 누이 귀중한 안해  
그 절절한 기대 다 담을수 없는것이  
시를 쓰겠거든  
장군님께 힘을 드릴 글을 쓰라고  
인민이 좋아하는 글을 쓰라고  
그 어려운 나날에  
다달이 소포도 부쳐주었고  
출장길에 러비도 품속에 넣어주던  
쌀보다도 먼저 책을 사서 놓아주던  
그 진정 백분의 하나라도  
표현하지 못한듯싶어—  
내 이런 어머니들을 위해  
애국의 열을 얼마만큼 태웠던가  
내 이런 누이 이런 안해들을 위해  
창작의 방아를 얼마만큼 찼었던가

불타는 정열 다 바치리라  
일찌기 위대한신 우리 장군님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과 맞먹는다 하셨거니  
조선의 시문학은 그 뜻을 받드는  
정의이며 신념이며 투쟁의 기발  
심장에 불을 다는 열정의 노래도  
아름다운 꿈 굳센 배짱도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나니  
시의 종자도 여기서 찾고  
운률의 맥박도 여기서 땀다  
생활의 굴곡따라 감정의 높낮이를  
애국의 정열로 그려나간다  
운명의 주인으로 인민을 부른다!  
가정은 조국의 한 세포이다  
하나로 굳게 뭉친 이런 가정들이  
조국이란 큰 집을 지켜  
썩어빠진 《세계화》를 불사르며  
봉쇄와 압살도 짓뭇개버리며  
하나된 강산, 하나된 민족  
하나된 뜻을 위해 싸우고있거늘  
사람들이여!  
그날을 위해  
일어나라! 투쟁하라! 전진하라!

그날을 불러  
바치라! 헌신하라! 불태우라!

## 마감시

이 나라 아름다운 녀인들이여  
삼가 인사를 드리노라  
그대들처럼 소박하고 근면하며  
지혜롭고 인정깊은  
그대들처럼 순결하고 문명하며  
강직하고 용감한  
높은 세계를 우리 모르나니  
무엇이 그 깨끗함을 흐릴수 있으랴  
열렬한 그애정을 식힐수 있으랴  
그대들이 헤쳐온 고난의 고비들은  
조국애로 불타는 정신력으로  
사랑이 이겨낸 중오의 날과 날  
자신을 이겨낸 의지의 달과 달  
신념으로 지켜낸 불굴의 해와 해  
조국은  
고생도 많았고 피로움도 많았던  
이 땅의 녀인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리니

아! 통일의 새 아침 밝아오면  
북 남 해의 녀인들이 열싸안으리  
조국위해 일하자 힘을 바치자  
뜨거운 언약도 서로 나누리  
통일야유회 통일달맞이  
삼천리에 봄물결이 흘러넘치리  
아버지장군님높이 모시고  
온 세상이 들썩하게 통일잔치 차리리  
바라던 그날은 오리라  
오교야말 그날은 오리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전환의 새해가 밝아왔나니  
거리는 꽃물결에 춤추듯 흐르고  
공원들이 웃음을 피워올린다  
밝아오는 새날을 울리며  
출근길 걸음걸음 힘이 솟는다  
기대소리 춤곡처럼 울려퍼지고  
넓은 대지가 풍년숨을 내신다  
최첨단성과들이 앞다투어 쏟아진다

마음껏 향유하리라!  
이 나라 녀인들은  
이렇게 가꾸어온 이 땅에서  
이렇게 꽃피워온 이 하늘아래서  
아버지장군님 높이 모시고  
세세년년 복락을 누리고 누리리라  
누가 막으랴! 이 권리를  
누가 뺏으랴! 이 존엄을  
세상 보란듯이 행복을 주시려  
오늘도 장군님은 선군길에 계시나니  
녀성들에게 강성대국을  
제일 먼저 안겨주자고—

아, 진정 장군님의 사랑은  
녀성들에게 안겨주시는 금방석  
력사에 길이 빛날 금방석  
조국이며! 보시는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따라  
녀성들의 대오가 도도히 나간다  
선군혁명의 한쪽 수레바퀴가 되어  
장군님 한분만을 받들어나가는  
이 나라 미더운 녀인들이여!  
조국이 보내는  
축복의 인사를 삼가 받으시라!

## 소개

# 고려의 악부시와 리제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  
다.》

인민대중은 민족문화의 진정한 창조자이며 인  
민문학은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학발전의 원천  
으로, 민족적바탕으로 된다.

고구려의 애국정신과 문화전통을 이어받은 고  
려인민들은 변천되는 새로운 사회력사적현실과  
생활적지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  
품들을 창작하여 고려의 문학을 더욱 풍부히 하

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고려시기 시문학에서 찾아볼수 있는 특징의 하  
나는 악부시의 창작이다.

악부시는 한자로 기록된 중세시가작품의 한 형  
태를 말한다.

악부란 말은 원래의 의미에서는 민간가요를 수  
집정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관청부서를 말하  
는것으로서 악부시란 바로 악부에서 수집한 가요  
작품들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악부시의 바탕은 옛날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수 있다.

고조선시기 창작된 《공후인》으로부터 시작

하여 최치원의 《향악잡영》, 리인로의 《풍요》 등은 악부시의 성격을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악부시는 순수 율기 위해 창작된 시들과는 달리 음악적틀조를 살린다는 점에서 가요와 련관되어 있고 절구, 고시, 장단구 등의 여러가지 한자시체로 씌여지지만 시의 운률조성방식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그러므로 악부시를 창작하자면 다양한 시형식들을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어야 하며 가요의 음악적틀조와 맛을 살리면서도 그것을 재치있게 시화할수 있는 창작기교와 재능을 소유하여야 한다.

작시법상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고려시기 이름난 시인들도 악부시창작에는 선뜻 접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리제현(1288—1367)은 수십년간 다져온 시가창작의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독특한 형식의 악부시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당시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명성을 떨치였다.

15세기 이름난 문인이며 시평론가인 서거정은 《동인시화》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악부시는 자자구구가 음률에 맞아야 하는것이니 옛날의 시 잘하는 사람들도 이를 짓기 어려워하였다. … 그러나 오직 리제현만이 시의 모든 체에 능숙하였고 그의 작품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 법칙이 엄정하다. … 요즘 문인들이 음률을 배우지 않고 먼저 악부를 지으려 하니 남의 조소를 살것이 명백하다.》

보는바와 같이 리제현은 악부시창작에서 남다른 묘기를 발휘함으로써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악부시와 관련된 옛문헌들을 분석하여볼 때 우리 나라에서 《악부시》라는 표제명에 시를 창작한 첫 작가는 리제현으로 알려져있다. 그의 악부시들은 《소악부》라는 제명을 달고 그의 문집인 《익재집》의 《익재란고》 4권에 수록되어있다.

《소악부》는 문헌기록상 우리 나라 최초의 악부시집으로서 여기에는 11편의 악부시들이 수록되어있다.

리제현의 악부시들은 후세문인들의 악부시들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익재소악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익재소악부》에 실린 악부시들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불행한 처지와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를 예리하게 폭로비판한것이다.

농사란 털끝만치도 알지 못하는  
요놈의 참새끼 어디로 오가며  
홀아비, 늙은이 애써 지어는

조, 기장을 모조리 먹어치느냐  
...

이것은 농민들을 악랄하게 착취하는 통치배들을 참새끼에 비유하여 폭로조소한 《사리화》이다. 작품에서는 농민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알알이 가꾸어놓은 낱알을 교활한 방법으로 빼앗아가는 봉건착취계급을 가을철 곡식밭에 물려드는 참새에 비유하여 폭로하고있다.

이러한 내용의 작품들은 《탐라요》, 《장암》, 《정과정》, 《수정사》들에서도 잘보여주고있다.

《익재소악부》에 실린 악부시들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는 또한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미풍량속과 민족생활을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거사련》, 《제의보》, 《서경별곡》과 같이 남녀간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작품들과 《오관산》과 같이 부모에 대한 지성의 마음을 뜨겁게 노래한 작품도 있으며 어린시절의 동심이 비낀 낭만적인 생활을 추억한 《소년행》도 있다.

이러한 악부시들에서는 예로부터 자기의 부모 처자와 고향,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생활의 모든것을 더없이 소중히 여겨온 우리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과 우수한 민족생활풍습을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울타리 꽃가지에 새벽까지 지저귀고  
거미는 상머리에 가는 줄 늘이네  
그리운 님 멀지않아 오시려나봐  
어쩐지 마음에 미리 알리네

이것은 한 녀인이 부역에 나간 남편을 생각하며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심정을 담은 《거사련》(그리운 님)이다.

예로부터우리 인민들은 새벽까지가 올면 기쁜 소식이 있고 밥상머리에 거미가 내리면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여왔다.

작품에서는 인민들속에서 오래동안 전하여오는 민속적관념을 반영하여 남편을 기다리는 안해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인민적정서와 민족적색채를 더욱 깊게 하였다.

《익재소악부》에 실린 악부시들은 리제현자신이 봉건관료였던 사정으로 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시 근로인민들의 생활과 시대적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고 인민성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문학과 후세의 악부시 창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준국



## 대조영

김동해

대조영은 험걸찬 걸음으로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었다. 5월의 훈풍에 그의 귀얄수염발이 가볍게 날렸다. 불을 덮은 귀얄수염뿐 아니라 복두밑의 넓은 이마며 먹물에라도 잠겨낸듯 한 검은 눈썹, 눈꼬리가 치째질사 한 날카로운 눈이며 꼭 다물린 입 등 얼굴모색부터가 영준한 그는 체대가 거클지고 림름하여 장수의 기상이 넘치는 험한장부였다.

어디나 꽃이 만발한 696년 5월의 어느 봄날이었다.

대조영은 방금 고구려폭동군의 총대장으로서 말갈인부대, 거란인부대들과 함께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기로 약정하고 그 소식을 알릴 사람을 말을 태워 아버지에게로 떠나보내고 오는 길이었다. 진달래며 철쭉꽃들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던 그는 문득 멈춰섰다. 저쪽 바라보이는 산중턱에 자그마한 웬 봉분이 생기고 그앞에서 부녀인듯 한 로인과 딸이 제를 지내고있었던것이다.

이 길로 몇번 다녀본 그어서 난데없이 새로 생긴 무덤이며 그앞에서 통곡하는 낯선 사람들을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대조영은 봉분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의 무덤이외까?》

대조영의 물음에 흘깃 돌아보던 로인이 그의 림름한 기상이며 호걸다운 풍채 그리고 준수한 용모에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아뢰었다.

《소인은 고구려사람이외다. 당나라놈들의 강제이주로 타향만리 여기 영주땅으로 끌려왔사운데 글썽 영주도독 조문해란 놈이 내 딸에게(그는 결의 처녀에게 눈길을 돌리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눈독을 들이기에 황급히 도망을 치냈소이다. 설상가상으로 마누라가 그만 먼길에 견디지 못하여 여기서 숨을 거둘줄이야 어찌 알았겠소이까.》

《조문해, 그놈이...》

대조영은 저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었다.

영주란 당시 료하서쪽 만리장성의 동쪽끝인 산해관동쪽, 오늘의 료서일대의 지방이었다.

이 지방에는 거란인들이 살고있었다. 당나라통치배들은 동북방의 여러 종족들이 통일되지 못한것을 기회로 하여 영주 류성현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삼십여개의 이른바 《기미주》, 부들을 설치하여 무력으로써 거란족과 그 북쪽의 습족, 서쪽의 해족 등 여러 종족들을 관할통치하고있었다.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 고구려사람들가운데는 668년 당나라침략자들과 야합한 사대적신라통치배들에 의해 고구려왕조가 멸망한 후에 전란을 피하여 스스로 간 사람들도 있었으나 당나라침략자들에게 강제로 끌리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영주지방의 원주민인 거란인이나 그 이웃의 여러 종족들 그리고 새로 이주한 고구려, 말갈인들은 모두가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싸우고있었다.

대조영은 로인에게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나도 고인의 명복을 빌겠으니 술 한잔 따라주시오.》

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귀인은 도대체 뉘시오이까?》

《난 대조영이란 사람이요.》

《아니, 그럼 우리 고구려군의 장군이신?!...》

처녀가 대조영의 술잔에 제주를 부어주었다.

대조영은 술잔을 상돌우에 놓고 경건히 절을 하였다. 그러자 로인이 껄도 입히지 않은 봉분을 두드리며 녀드리를 하였다.

《여보, 보고있소? 고구려의 대장군께서 미천한 당신의 황천길을 바래주교시오.》

허리를 편 대조영은 로인을 돌아보았다.

《이제는 어쩔셈입니까?》

《글썽요, 나라를 잃은 망국노라 어디 갈데도 없소이다.》

《그럼 저와 함께 우리 고장으로 갑시다. 사람살 곳은 골골마다 있다고 어디 가서 입에 풀칠이야 못하겠소이까.》 이렇게 말한 대조영은 먼저 일어나 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로인은 뒤따르며 울먹이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고맙소이다, 나으리. 이 은혜를 백골이 진토되어도 잊지 않겠소이다.》

《허허, 너무 그러지 마시오.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는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요.》

한편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중상은 활짝 핀 살구꽃이며 복숭아꽃들을 바라보며 깊은 심뇌에 잠겨있었다.

자기가 살던 평양 대성산기슭에도 봄이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대동강가에는 푸른 버들이 실실이 드리우곤 했었다.

그 평양을 떠난지도 벌써 30년세월, 이제는 그의 머리와 수염은 물론 눈썹마저 신선처럼 하얗게 세어버렸다.

고국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던 대증상은 일찌기 십여년전인 684년에 고구려를 계승한 진국이라는 소국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고구려의 옛땅에서 당나라침략자들을 쟁그리 몰아내야 자기의 뜻을 실현할수 있다고 믿고있었다.

문득 걸음을 멈춘 대증상은 불같은 장탄식을 내뿜었다.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위세를 떨치던 우리 대고구려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던 말인가. 저 신라의 쓸개빠진 사대매국노들이 당나라놈들을 끌어들이 우리 나라며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대증상은 너무도 분통하고 원통하여 뼈만 앙상한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쥔채 부르르 떨었다.

이때 아들 대조영이 보낸 사람이 도착하였다.

대증상은 허둥거리며 아들이 보낸 전갈문을 펼쳤다. 힘있고 활달한 필체로 씌여진 대조영의 전갈문에는 그동안 묻지 못했던 아버지의 안부와 함께 영주폭동의 정확한 날짜와 폭동계획, 폭동에 합세할 대증상의 행동방향까지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일순 대증상의 주름진 눈가에는 눈물이 펑 고였다.

《장하다, 내 아들아! 과시 대고구려의 후예로다. 이 애비가 비록 몸은 늙었을망정 싸움에 한목숨 바치겠다.》

사실 대조영이 고구려땅을 되찾을 웅지를 품고 오늘의 길에 나서게 된데는 아버지의 일깨움이 컸다고 볼수 있었다.

그는 대조영에게 어려서부터 나라 잃은 망국노로 살바에는 죽는것이 낫다고 하면서 나라를 잃은 수치와 울분에 몸부림치며 아들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대증상은 아들에게 나라를 찾으려면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꾸준히 힘을 길러야 한다고 타이르면서 활쏘기, 칼과 창쓰기, 말타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루와 같이 채찍질을 하였다. 그래서 대조영은 눈오는 날, 비오는 날을 가리지 않고 말등에 올랐고 진창에 딛굴면서도 무예훈련에 힘쓰곤 하였다. 그리하여 대조영은 벌써 청년시절에 누구도 따를수 없는 릉름한 장수로 자라났다. 그는 원래 의지가 강하고 성품이 강직한데다가 인정이 깊고 도량이 넓어 뜻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던것이였다. ...

이날 대조영은 자기 부하 몇사람에게 불쌍한 보해(무덤가에서 만난 처녀) 부녀에게 집간을 잘 꾸려주고 그들이 당분간 살아갈 량식도 모아주라고 당부하였다. 이리하여 산에서 기동감과 서까래감을 찍어내리고 수수산자에 석비례와 진흙을 섞어바른 아담한 두칸 동기와집이 이틀사이에 번

뜻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된데는 보해의 알뜰함에 반한 젊은 군사들이 서로 승벽내기로 땀을 흘린데도 까닭이 있었다.

새집들이한 날 밤 아직도 토벽냄새가 풍기는 방에서 밥상을 놓고 마주앉은 보해 부녀는 눈물이 글썽하여 수저를 들지 못했다.

《참, 우리가 귀인을 만났구나.》

아버지의 말에 보해도 눈굽을 흘렸다.

《아버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조영장군을 잘 돕자요. 설사 죽더라도...》

폭동준비는 착착 진척되였다.

대조영은 거란인추장 리진충과 의논하여 폭동일을 영주도독인 조문해의 생일날로 정하였다.

조문해의 생일날이 다가오자 진상봉물짐을 진자들이 대문이 닫길새없이 들락날락하였다.

물욕이 강한 조문해는 자기 집 가병들을 동원시켜 집안팎에 대한 경비를 엄중히 하도록 단속하였다.

생일을 하루 앞둔 날 저녁이였다.

거란인추장 리진충의 집에 한 고구려처녀가 나타났다. 어여쁜 용모에 몸매가 날씬한 처녀는 자기는 고구려사람인데 자기가 먼저 영주도독 조문해의 생일놀이에 참가하여 검무를 추다가 그놈을 죽일테니 그 혼란된 틈에 영주성을 공격하라고 하는것이였다. 거란인추장은 저으기 놀란 눈길로 보해를 바라보았다.

《영주도독을 죽이면 랑자도 무사치 못할텐데...》

《한목숨 내대지 않고서야 어찌 나라를 찾을수 있겠소이까.》

감동된 거란추장은 한동안 말없이 거닐었다.

《참, 고구려엔 충신열녀들이 많소그려. 아녀자들까지 이러니 어찌 당나라놈들이 고구려를 당할수 있겠소.》

보해는 추장의 집을 떠나면서 그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추장님, 이 일은 꼭 저와 추장님만의 비밀로 되여야 합니다.》

《알겠소, 랑자.》

새날이 밝아왔다.

영주성은 아침부터 들끓었다.

한쪽에선 조문해의 생일준비로 사람들이 붐비었고 사방에서 광대며 풍악쟁이들이 모여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사군이나 농사군으로 가강한 폭동군사들이 성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덧 저녁녘이 되였다.

아침부터 심복졸개들속에 틀고앉아 거나하게 취해있던 조문해는 문득 자기앞에 나타나 남신절을 하는 처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보해가?!...)

조문해는 깜짝 놀라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너… 저보해가 아니냐?》  
 《그렇소이다, 도독나오리.》  
 《그… 그런데 어…어떻게?...》  
 보해는 방실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나리님의 생신날이 아니오이까. 그래서 미숙하나 제 촌가락을 펼쳐보이려고...》  
 이렇게 말한 보해는 조문해의 귀에 바투 다가 아양스럽게 속삭거렸다.  
 입이 귀밑까지 찢긴 조문해는 그저 반병어리소리였다.  
 《그… 그야 물… 물론 내것이 다 네것이 되지 않으리. 하지만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야 한다.》  
 《알았사와요, 나오리.》  
 보해를 완전히 믿어버린 조문해는 기분이 하늘에 닿은듯싶었다.  
 어느덧 날은 어두워지고 곳곳에 화토불이 타올라 사위가 대낮처럼 밝았다. 풍악쟁이들이 음악을 울리기 시작하자 보해는 량손에 짧은 칼을 갈라들고 검무를 추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촌가락보다 그 아름다운 용모며 버들가지같은 몸매에 더 눈길을 박았다.  
 조문해는 너무 좋아 손뼉을 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잘한다, 잘해. 내가 보던 검무중에 제일이다.》  
 보해는 눈웃음을 흘리며 점점 조문해결으로 다가갔다. 몇놈의 관리가 보해의 태도에서 수상쩍은 기미를 느꼈으나 미처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보해는 두손에 쥔 칼로 철천지 원수의 가슴을 찔렀다.  
 《으악! —》  
 《도독님이 잘못되셨다!》  
 《저년을 당장 잡아라!》  
 당나라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보해를 묶었다.  
 한편 이때 약속한대로 봉화가 타고르고 거란군사들과 고구려군사들이 영주성내로 쳐들어갔다.  
 술놀이에 빠져있던 당나라관리들과 군사들은 당황하여 갈광질광거리다가 모두 잡혀죽고 영주성은 순식간에 거란군과 고구려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대조영은 거란추장 리진충의 손을 잡아흔들며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런데 거란추장 리진충은 기뻐할 대신에 대조영에게 근심스럽게 묻는 것이었다.  
 《조문해놈을 죽인것은 우리가 아니라 고구려 처녀인데 장군은 알고있소?》  
 《그게 무슨 소리요?》  
 리진충은 어제 자기를 찾아왔던 고구려 처녀 보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이렇게 물은 대조영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연회장안으로 달려들어갔다.  
 한차례 전투가 벌어진 연회장바닥은 쓰러진 당

나라놈들의 피로 질벅했다.  
 《보해! 어디 있느냐. 보해?!》  
 대조영은 성난 호랑이마냥 연회장의 여기저기를 헤집으며 뛰어다녔다.  
 그는 연회장의 구석에서 오라에 묶이운채로 가슴을 칼에 찔리운 보해를 발견했다.  
 그는 얼른 보해를 묶은 바줄을 끊어버리고 그를 안아일으켰다.  
 보해는 마지막숨을뿜고있었다.  
 대조영은 분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해를 흔들며 소리쳤다.  
 《누가 너더러 이런짓을 하라더냐?! 너 아니래도 영주도독놈쫘은 얼마든지 죽일 사람이 있다.》  
 보해는 가가스로 입을 열었다.  
 《전… 대장님을.. 조금이라도 돕고싶었어요. 꼭 우리 고구려를 찾아주시와요.》  
 이렇게 마지막말을 남긴 보해는 영원히 눈을 감아버렸다.  
 《보해야!...》  
 대조영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흐르고 흘러내렸다.  
 폭동군은 영주성의 당나라강점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주변의 여러 성들을 탈환하였는데 폭동군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폭동을 시작한지 10여일만에는 수만명에 이르렀다.  
 당나라침략자들은 몹시 당황하여 즉시 류관(지금의 화북성 립유)에 도안무대사영(《토벌》사령부)을 설치하고 수만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폭동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토벌》부대는 폭동군에게 거의 전부 섬멸당하였다.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폭동에서 주력을 이룬것은 고구려인부대였다.  
 그들은 말갈인들과 연합하여 폭동 첫시기부터 맹활약을 벌리었다. 이때 고구려인부대를 지휘한 사람은 이전 고구려국가의 귀족이며 유능한 군사지휘관이었던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 대종상이었으며 말갈인의 추장은 결사비우였다. 이들은 거란인폭동군들이 서쪽으로 나가는 유리한 기회를 타서 고구려의 옛강토를 수복하기 위해 동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들은 수개월간의 싸움끝에 영주의 동쪽과 동남쪽의 여러 성들을 탈환하였다. 이무렵 서쪽의 거란인폭동부대는 당나라침략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이듬해 697년 3월 동협석곡의 전투에서는 17만명의 당나라침략군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이어 유주(오늘의 베이징부근)와 그 주변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켰다.  
 거란인폭동군부대의 전파는 고구려, 말갈인부대들의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697년 4월경에 이르러 전반적정세에서는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당시 당나라의 북쪽에 있던 돌궐족이  
폭동군의 투쟁에 간섭해나선데 있었다. 오늘의  
내외몽골을 포괄한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있던  
돌궐왕 목철은 당나라에 접근하면서 동방의 폭동  
군들을 진압해주겠다고 제의해나섰다.

돌궐족은 커다란 야심을 가지고 거란의 후방인  
영주서북쪽으로부터 진격해오면서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많은 주민들을 랍치해갔다.

돌궐군대의 급속한 침공은 거란인들뿐아니라  
그 서쪽 해족들에게도 큰 동요를 일으키게 하였  
다. 거란군은 크게 혼란에 빠졌고 남은 거란군은  
돌궐군에 투항하였다. 폭동이후 만 1년어간에 큰  
전과를 거두었던 거란군은 돌궐의 불의의 공격으  
로 말미암아 폭동에서 실패하고말았다.

거란군의 붕괴로 하여 비로소 숨을 돌리게 된  
당나라침략자들은 다시 동쪽으로 대군을 파견하  
여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의 봉기를 진압하려고  
획책하였다. ...

마가울의 찬비가 축축히 내리고있었다.

병영을 나선 대조영은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여기저기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고구려군사들  
과 그들을 따라나선 고구려유민들이 모닥불결에  
쓰러져 잠들고있었다.

대조영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이 사람들을 장차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간단  
말인가?)

문득 비가 멎었다. 그러자 동쪽하늘에서 새별  
이 유난스레 반짝이는것이 보였다.

대조영의 머리속에는 신의 계시와도 같은 생각  
이 번쩍 떠올랐다.

(그렇다, 저 새별이 빛나는 동쪽으로 가자. 그  
곳에는 조종의 산 태백산(백두산)이 있지 않은가.  
이 땅의 모든 지맥은 저 태백산에 뿌리를 두고있  
으니 우리 거기로 가서 그곳에 도움을 청하자.  
오, 조종의 산 태백산이여, 당신의 겨레들을 보살  
펴주소서.)

대조영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가 북  
받쳐올랐다.

날이 흰해지자 사람들이 잠자리를 털고 일어났  
다. 대조영은 그들에게 열정에 넘쳐 소리쳤다.

《여러분, 우리 조종의 산 태백산으로 갑시다.

그곳에 도움을 청하고 강건한 새 고구려국을  
세웁시다.》

고구려군사들과 유민들속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올랐다.

《웁소, 태백산으로 갑시다.》

《조종의 산이 우리를 보살펴줄것ियो.》

때마침 말갈인부대 대장인 추장 결사비우가 화  
려한 마차를 타고 대조영을 찾아왔다. 그를 수행  
하여 몇명의 말갈인장수들이 말을 타고 왔다.

대조영은 반가움에 넘쳐 결사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추장, 마침 왔소이다. 그러지 않아도 추장한테  
로 사람을 띄우려던 참인데... 허허.》

그런데 결사비우의 기색은 밝지 않았다.

대조영과 폭동전부터 교제하여 친분이 깊은 말  
갈인추장 결사비우는 키는 작아도 뚱뚱한 몸통과  
엄한표정으로 하여 무게있어보이는 사람이였다.

《장군!》

결사비우가 입을 열었다.

《형국이 변했소.》

《변하다니?...》

대조영은 의아한 기색으로 결사비우를 바라보  
았다.

《돌궐놈들이 당나라에 붙어 거란인부대를 치는  
바람에 거란인들은 수태 죽거나 남은 놈들은 적  
들에게 투항하였다고 하외다.》

《추장, 그게 적실한 일ियो?》

《이제는 거란인부대란 없소이다.》

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대조영의 표정도  
침중해졌다. 이것은 참으로 큰 사변이였다. 거란  
인들을 격파한 당나라침략세력은 자기들, 고구려  
부대와 말갈인부대에게 총력량을 집중하여 공격  
해울것이 아닌가.

그는 저도 모르게 동쪽으로, 태백산이 솟아있  
는 조종의 산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온몸  
이 혹 달아오름을 느꼈다.

《추장, 형세는 변하기마련ियो. 좋게도 나쁘게  
도... 우리는 전국이 어떻게 변하든 초지를 굵히  
지 맙시다.》

《그야 여부있소이까?》

《추장, 고맙소. 추장이 그러니 내 배심도 더 든  
내지외다. 허허...》

엄숙한 형세속에서도 웃음을 터뜨리는 대조영  
을 바라보던 결사비우의 얼굴에도 웃음발이 어렸  
다.

《추장, 우리는 조종의 산, 태백산쪽으로 나가려  
고 결심하였소. 추장은 어쩔테요?》

《예로부터 우리 말갈인들은 고구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으니 우리도 그대들의 뒤를 따르겠  
소이다.》

《그러리라 믿었소이다. 우리가 먼저 떠날테니  
추장도 어서 뒤따라 료하를 건느고 휘발하(송화  
강상류)를 건너 태백산쪽으로 나오시오.》

《알았소이다. 그대들과의 연락은 이 내 아들을  
시키겠소이다.》

결사비우는 자기곁에 조금 비켜서있는 칼칼하  
게 생긴 젊은 장수를 가리켰다.

결사비우의 아들은 대조영에게 고개를 숙여 경  
의를 표시했다.

《추장, 고맙소이다. 그 위험한 일에 아들을 내  
세우니...》

대조영은 진정으로 감동되었다. 연락장수의 일이란 항상 위험이 뒤따르기마련 아닌가. 그는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 말갈인들이 옛적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던 고구려사람들과의 동맹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떠나가자 대조영은 곧 행군을 명령하였다. 고구려군사들과 유민들은 기세드높이 조상의 땅을 찾아 동쪽으로 태백산으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그 길은 수월치 않았다. 높고낮은 산을 넘고 깊고얕은 강을 건너야 했으며 굶주림과 피로를 이겨내야 했다. 태백산으로의 진군길은 근 2천리에 달하는 길고긴 시련과 수난의 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앞장에서 준마를 타고가는 대조영을 기발마냥 바라보며 기운을 내군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드디어 료하를 눈앞에 둔 들판에서 숙영하였다. 하늘에서 해가 비치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초봄이었다. 새초가 무성하던 들판은 고구려군사들과 유민들의 발길과 말발굽에 다스려지고 그 누군가가 부르는 구슬픈 노래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향수와 우수에 젖게 하며 저 멀리 고구려의 하늘가로 은은하게 고요히 울려갔다.

행군에 지친 군마들이 고개를 짓속이고 마른 새초들을 서걱서걱 씹었고 화토불주위에 둘러앉은 군사들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고구려녀인들이 동이에 더운 물을 담아 이고다니며 추위에 얼고 행군에 지친 그들의 몸을 덥혀주었다.

30여년의 세월 망국노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낀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고향으로 간다는 기쁨이 어려있었다. 행군기간 당나라침략군과의 싸움에서 고구려군사들은 많은 경험도 쌓았다.

이때 먼지를 뽀얗게 일쿠며 누구인가가 탄 말한필이 고구려사람들의 숙영지로 달려오고있었다.

숙영지에 다달은 땀이 번들거리는 가라말에서 갑옷은 입었으나 투구없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인 젊은 장수 하나가 뛰어내리며 성급히 물었다.

《대조영장군이 어디 있소?》

의아하게 그를 쳐다보던 사람들중에서 누군가가 대조영의 장막이있는 쪽을 가리켜주었다.

대조영은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서는 피투성이 젊은 장수를 보고 흠칫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순간 그가 말갈인들의 추장 결사비우의 아들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자네가 어떻게?!...》

결사비우의 아들은 대조영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울음섞인 목소리를 터뜨렸다.

《고구려군 대장군께 아뢰오. 오늘 아침 우리 말갈군은 당나라대군과 맞다들려 죽기로 싸웠으

나 중과부적으로 참패를 당하고 아버님께서도 고구려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셨소이다. ...》

《영?! 결사비우추장님이?》

대조영의 눈에서 섬광같은 불꽃이 번쩍하였다. 결사비우의 아들은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만 하였다. 주먹권 두손으로 뒤집을 쥐고 성난 걸음으로 잠시 장막안을 오락가락하던 대조영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도대체 무슨 연고인지 자세히 말하게나.》

《뒤쫓아오던 당나라대군이 어제 밤 우리가 잠시 숙영하는 사이에 우리를 에워싸고 새벽녘에 들이쳤소이다. 놈들의 활에 맞으신 아버님께서는 눈을 감으시면서 기어이 살아서 대장군께 이제 당나라군이 고구려군에게도 달려들것이니 미리 방비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했소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말갈사람들을 대장군께 맡긴다고 절절하게 당부...》

그는 목이 메여 뒤말을 잊지 못하였다.

《으—음.》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대조영은 다시 입을 열었다.

《당나라놈들의 두목이 대체 어떤 놈이더냐?》

《당나라에 투항한 이전 거란군장수 리해고옵나다.》

《리해고?... 이노옵! 더러운 배신자!》

대조영의 입에서 추상같은 절규가 뿜어나왔다. 얼마후 대조영의 장막에서는 고구려장수들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그들은 조성된 긴박한 정황을 두고 성급하게 떠들어댔다.

《거란군과 말갈군을 격파한 당나라군이 이제 우리에게 무서운 기세로 덮쳐들것시오이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급행군하여 료하를 건너가야 하오이다. 살길은 그 길밖에 없는줄로 아뢰오.》

모두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우겨댔다.

하지만 말없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는 대조영의 기색은 그들과는 너무나 판이하였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짓군 하는 그런 동정과련민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라있었다.

이윽고 그는 낮으나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군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요? 짐승은 먹이를 따르지만 사람은 의리를 따르는것이 아니겠소. 우리를 따라 여기까지 함께 온 말갈인들이 지금 당나라군에게 쫓겨 산지사방 흩어져 살길을 찾아 헤매고있는데 그들을 버리고 우리만 살겠다고 료하를 건너간다면 우리가 무슨 사람이며 대고구려의 후에들이겠소. 우린 결사비우의 유언대로 불행에 빠진 그들을 꼭 구원해야 하오.》

이렇게 말하는 대조영의 눈굽에서 물기가 번뜩이는것을 모두가보았다.

그의 말에 지금껏 함정에 빠진 짐승마냥 욱욱 거리던 장수들이 고개를 떨구었다.

바위처럼 무겁게 앉아있던 대조영은 움쭉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버지인 대장군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서 말했다.

《저는 말갈사람들을 데리러 갔다올테니 그사이 아버님께서 여기 일을 주관해 주사이다.》

《장허다, 어서...》

가슴우에 드리운 수염발이 흰구름같은 대장군이 아들을 고무하였다. 고구려왕조의 장군으로서 수만대군을 호령하던 그때처럼 아직도 그의 기개는 현현하였다.

대조영은 자기를 숙위(호위)하여 동행하겠다는 여러 장수들을 물리치고 홀로 결사비유의 아들만 데리고 떠나려 하였다.

이때 그의 앞에 한 로인이 나타나 넙죽 엎드리며 아뢰었다.

《대장군, 소인이 비록 몸은 늙었사오나 아직도 말을 부리던 솜씨는 여전하오니 부디 대장군의 마부로 데려가주소서.》

《로인은 도대체 뉘시오?》

《제 보해의 아버지다.》

《보해?...》

그제야 대조영은 그들부녀를 처음 만나던 생각이 떠올랐다. 웬일인지 장수도 아닌 평범한 늙은이인 그를 데리고가고싶은 마음이 동했다.

이리하여 그들셋은 말을 채찍질하며 말갈인패 잔부대가 은둔해있는 여러곳을 다니며 그들을 고구려인부대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가 말갈인들이 있는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 말갈인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다.

《대장군, 소인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어 정말 고맙소이다. 하지만 한가지 권할 말이 있소이다.

이제 가시려는 그쪽에는 당나라군이 진을 치고 있사오니 놈들이 날리는 화살이 비발치듯 할텐데 부디 마차를 타고 가시면 좋겠소이다. 벽이 든든한 마차여서 그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오이다.》

대조영은 이곳으로 오는 도중 놈들의 화살세례를 여러번 겪던 생각이 떠올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마차안에 그가 타고 마부석에는 자청하여 따라온 보해의 아버지가 앉았다.

아닌게 아니라 어느 한 산골길을 가고있는데 멈춰서라는 당나라군사의 웨침소리와 함께 화살이 비발치듯 날아왔다. 마차벽에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화살가치들이 박혔다. 그런데 놈들은 기어이 마차를 사로잡으려는 심산으로 악착스럽게 추격해왔다.

《서라!》

《서지 않으면 죽는다!》

놈들의 악청이 점점 가까와졌다. 마부석에 앉아있던 보해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소리쳤다.

《내가 마차를 그냥 물고 갈테니 대장군께서는 길옆에 뛰어내려 몸을 숨기시오이다. 빨리!》

《일없네.》

《아니되오이다.》

추격하는 당나라놈들은 백명이나 될듯싶었다.

혼자힘으로 당하기는 어려울것 같았다.

어느새 마차안으로 뛰어들어 보해 아버지가 마차문을 열고 대조영을 길옆의 풀덤불속으로 밀어던졌다. 길가의 풀숲에 떨어진 대조영은 어쩔수없이 몸을 숨겼다. 자기 눈앞의 길우로는 장창을 든 당나라놈들이 먼지가 뽀얗게 일도록 말을 쳐몰아대며 마차를 뒤따르고있었다.

《고맙소이다, 로인!》

속으로 이렇게 뇌이는 그의 눈곱에 눈물이 고였다. 날이 어두워진 후 대조영은 놈들의 말을 하나 잡아타고 고구려군의 숙영지로 돌아왔다.

숙영지에는 이미 술한 말갈인부대 사람들이 모여와있었다. 그들은 대조영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올었다.

《고구려대장군, 저희같은것들을 위해 그 사지관속으로...》

패주하던 말갈인군사들까지 소속된 고구려군사들은 동쪽으로 다시 행군을 시작하였다. 낮에 밤을 이어 계속되는 간고한 행군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당나라군이 바짝 뒤를 따르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대조영은 배심든든히 동쪽으로 동쪽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천문령을 넘은 대조영은 군사들을 유리한 지점에 매복시켜놓고 적들을 기다렸다. 이를 알리없는 리해고는 말갈군을 격파하여 기세등등해진 줄개들을 빨리 추격하라고 내몰기만 하였다.

놈들이 매복권안에 들어서자 대조영은 칼을 힘있게 뽑아들었다.

《출전복을 울려라!》

등! 등!

복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고 돌격전에 나선 고구려군사들과 말갈군사들의 함성소리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된 당나라침략군은 대조영의 칼날아래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거의 일망타진 당하였다.

적장 리해고는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치고말았다.

698년초에 있는 이 천문령전투는 오늘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있다.

이 전투가 있는 이후로 당나라침략군은 더는 고구려군을 추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대조영은 고구려사람들과 말갈사람들을 이끌고 룡하를 건넜다. 그리고 그 기세로 행군을 계속하여 송화강상류의 휘발하를 건너 부이령산줄기의 동쪽기슭 동모산에 일단 자리를 잡고 정착하였다. 동모산은 오늘의 돈화현 성산자산성자리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 자리를 잡은 대조영은 여러 종족들과의 연합을 강화하는 한편 적들의 침입에 대처하여 방위에 힘을 넣었다.

각지의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으며 이곳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드디어 고구려가 멸망한지 30여년이 되는 698년에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진국이라고 칭했던 대조영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얼마후에 발해라고 나라이름을 고쳤다.

이것은 단군조선이래로 태양신을 숭상한 고구

려유민들의 희망대로 밝은 해와 같은 나라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발해국의 1대왕으로 된 대조영은 지난날 력사에서 《고왕》으로 불리워왔다.

대조영에의해 창건된 발해는 그후 경제적발전과 찬란한 문화로 하여 《해동성국》으로 널리 칭송되었다

## 불살라버리자 리명박패당을

김용업

피고있었다

봄날의 화원에 꽃이 피듯

6.15의 통일화단에

우리 민족의 뜨거운 마음의 꽃들이

화해의 꽃이었다

협력의 꽃이었다

단합의 꽃이었다

60여년 분렬의 동토대 녹여버리며

온 겨레가 마음합쳐 가꾸어 피우던

아 통일, 통일맛이 꽃송이들

헌데 어느놈이나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겨레의 기쁨

겨레의 희망

민족의 넋이 피어나던 통일맛이화원에

감히 찬서리를 들쑤우는 놈들이

네놈이다

바로 네놈들이다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이라 지껄이며 6.15 공동선언 칼질한 놈

승냥이 미제와 복침에 날뛰며

온 남녘땅을 미친 소고기 시장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리명박패당 미치광이들

오, 온몸의 피 증오로 솟구친다

사대매국광신자

반통일광신자

반북대결광신자

반민족광신자

《한나라당》리명박패당 미치광이들

그야말로 네놈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

민족의 량심이란 한조각도 없는

역적도 가장 특등역적

매국도 가장 특등매국

반동도 가장 특등반동

천추만대에 용서 못할 특등반역자

날쳐보라 미친개, 미친 소무리들아

아무리 물고 뜯으며 광기를 부려도

통일은 자주의 흐름 력사의 법칙

동이 트면 해가 솟듯이

만발하리라 삼천리 이 강산에

향기그윽한 통일꽃들이

똑똑히 알거라

우리의 6.15 공동선언, 10.4 선언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의 머리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

7천만겨레를 감싸안은

따스한 봄날의 햇빛

우리 용서치 않는다

동족을 배반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매국에 미친 사생아무리

리명박패당 민족반역자들을

민족이 살길도 통일민족의 번영도 통일

펼쳐나서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여

《한나라당》리명박패당 불살라버리는 투쟁에

신성한 이 땅 이 하늘아래

통일의 꽃들만이 만발하도록

## 영국이 죽인 영국의 두 아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보적인 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나날 진보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였다.

인류문학사는 진보적인 시로써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한 이름난 시인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19세기 영국진보적 랑만주의시인 바이런과 셸리도 그들중에 속한다.

1812년 영국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바이런의 서사시 《차일드 해럴드의 편력기》가 출판되었을 때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물론 유럽대륙전체가 바이런의 이름으로 뒤흔들렸다.

뒤따라 1813년 영국의 귀족부르조아사회를 반대하는 작가의 립장을 단호하게 선포한 셸리의 서사시 《매브너왕》이 발표되었다.

셸리는 《매브너왕》에서 발휘된 작가적능력으로 하여 셰익스피어, 스코트, 바이런과 함께 영국문학사에 새겨질 당당한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두 문호의 운명은 똑같이 비참하였다. 문학사는 그들을 19세기 유럽최대의 시인이라고 기록했으나 그 영광과는 상관없이 두 문호의 인생은 비극적이었다.

바이런은 셸리보다 4년 먼저 1788년에 태어났다.

그는 일찌기 고향땅인 스칸디나비아반도를 떠나 윌리엄1세와 함께 영국의 소왕국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하는 정치적사변을 이룩한 력사적 인물들의 후손이었다.

바이런의 조상들의 매력과 사적은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고 오래 된 력사책인 《도움스디기》에 기록되어있다. 하기에 그는 자기의 조상들을 자유롭고 용감한 영웅으로 우러렸으며 그들이 일떠세운 자기의 조국 영국을 더없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극도로 부패타락한 귀족부르조아왕국이었던 《대영제국》은 바이런의 존경과 사랑을 오래도록 받을수 없었다.

바이런은 어린시절에 벌써 위선적이고 반인민적이고 침략적인 《대영제국》에 대한 의심과 환멸로 하여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조국을 자랑스럽게 나의 조국이라 부르지 못했다.

인류는 그때 벌써 영국을 《침략의 원흉》이라고 불렀다.

바이런의 초기 시들에 애수와 염세의 그림자들이 그 간고한 나날에 바이런은 유럽나라들의 형편

이 질게 드리운것도 날적부터 절름발이라는 설음과도 관련이 되지만 보다는 자기가 살고있는 세상에 대한 회의와 허무때문이었다.

《나의 성격속에는 스스로 버릴수 없는 2중적인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나의 실체가 나온다. 나는 아무것도 부정하지 못하면서 모든것을 의심한다. 이것이 나 바이런이다.》

바로 이 처절한 고백속에 자기의 조국을 조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시인 바이런의 고뇌가 깊이 어리어있다.

바이런은 끝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회의와 허무를 잊기 위하여 바다기슭을 따라 끝없이 가고 또 가는 려행길에 나섰다.

첫시작은 방황이었다. 그러나 하로게이트까지 가는 먼길에서 소년시인은 자연의 장엄함과 인간세계의 진상을 알아보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었다.

자연은 어린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가면서 본 그대로였으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몰라보게 변했었다.

당장 첫 시집을 내려고 서두르는 소년시인의 눈에 비쳐드는 《대영제국》의 인민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것이었다. 그러나 바이런은 그들의 생활속에 깊이 뛰어들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심정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는 삶을 체험해볼수는 없었다.

바이런은 귀족이었다. 그는 귀족계급에게 예측된 인민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함께 할수 없었다.

아직은 더 많은체험을 해야 했고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다음해 1월 바이런은 자기의 첫 시집인 《어린시절의 시들》을 내놓았고 뒤이어 3월에는 《라태의 시간》을 발표했다.

바이런의 이름이 드디어 런던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시집을 놓고 좋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나쁘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시집 《라태의 시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의주의와 염세주의로 일관되어있었다. 하기에 그 어떤 력사적인 사변을 바라는 영국의 청년들과 각계층의 독자들한테는 충격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바이런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시적령감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려행길에 나섰다.

1809년 6월 11일 이란과 인디아를 최후의 목적지로 정하고 런던을 떠난 바이런일행은 1811년 겨울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볼수



있었으며 서사시 《차일드 해럴드의 편력기》를 2권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바이런이 거둔 성과는 전적으로 려행덕이었다.

그가 려행광이라고 할만치 려행을 중시하고 즐긴데는 리유가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그의 랑만주의적경향의 발로였다. 즉 자기의 내적느낌과 내적충동을 끝없이 밖으로 터치고 확대하려는 랑만주의자들의 열렬한 의욕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게 하였던 것이었다.

둘째로는 랑만주의자들의 자유에 대한 사랑이 더 넓고 더 먼곳을 찾아 방황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었다.

랑만주의의 지평선은 지구의 끝에 있었다. 바이런은 《세계시민》, 《인류의 시민》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바로 그 국가와 계급을 초월한 인간적자유, 인간적평등이 가능하며 그 가능성의 기초가 신분에 관계없는 인격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이런랑만주의의 사상적바탕이었다.

바이런의 그 비현실적인 리상이 19세기 한때 유럽사람들을 흥분시켰으며 랑만주의문학의 기치 밑에 작가들을 모여들게 하였다.

고전주의가 리상으로 내세운 인격은 귀족적인 인격이었다.

랑만주의는 그와 달리 인간의 미와미덕, 인간적인 고결한 정신, 자유롭고 관대하고 인자한 인격을 천민들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새로운 관점으로 고전주의를 무너트렸다.

《추한것이 미다!》라고 웨친 랑만주의의 리상으로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바르장과 《노프르담대사원》의 주인공들인 에스메랄드와 까지모도가 태어났으며 해적들의 두령 콘래드가 솟구쳤다.

랑만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그 랑만적리상이 랑만주의의 우점이고 약점이었으며 그 약점으로 하여 랑만주의는 사실주의의 출현과 함께 자기의 운명을 끝마쳐야 했다.

바이런은 인민대중의 인격은 자기가 주인이 될 새로운 제도를 일떠세울 력사적사명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바이런의 서사시들속에서 오래도록 가셔지지 못한 회의와 허무의 흔적은 바이런적리상과 반인민적전제제도인 《대영제국》이라는 현실간의 모순이 빚어낸 것이었다.

1812년 1월 29일 《차일드 해럴드의 편력기》 제1장과 제2장이 발표되었다.

서사시는 높은 예술성과진보적인 사상성으로 하여 18세기와 19세기를 합하여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집은 4주일동안에 7권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

웠다.

영국과 유럽대륙의 수많은 독자들의 눈길이 예상처럼 나타난 바이런이라는 시인에게 쏠렸다.

세계적인 명망을 얻은 작가를 둘러싼 사람들속에는 바이런과의 친분관계를 배경으로 만들어 자기의 인격을 돋구려는 정치가들과 실업계인물들이 절대다수였다.

일류급의 극장들도 저마끔 바이런을 끌어당겼고미모의 녀배우들이 추파를 던지며 자기를 위한 시를 써달라고 졸라댔다.

영국랑만주의문학의 《기발》 바이런에게는 상원의원이라는 직위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으며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시를 짓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다. 게다가 회의와 허무에 지친 어둡고 근엄한 모습속에는 뜻모를 신비로움이 어려있었다.

바이런이 죽은 후에 출판된 프랑쎄스 안 켄블이라는 녀인의 회상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줄이 있다.

《나는 바이런의 시를 처음으로 읽고나서 대뜸 미칠듯이 흥분하였다. 나는 쇠사슬에 묶이운것처럼 시집에 유혹되어 잠잘 때에도 베개밑에 깔고 잤다.

바이런의 시는 독약처럼 나에게 작용하였으며 나의 전 생명과 육체를 흥분으로 떨게 했다. 그 리하여 나는 그 견딜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호하게 바이런의 시집을 집어던졌다.

그 매혹적인 시를 읽는것을 중지하고 그 강한 힘으로 잡아끄는 주문에서 탈출하여야 했기때문이다.》

바이런을 숭배한 수많은 녀인들속에는 멜본이라는부인도 있었다.

아홉살때에 벌써 번즈의 시를 모방하여 사랑의 시를 썼다는 그 녀인은 바이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바쳤다. 그러나 바이런은 런던의 제1미녀라고 자처하는 멜본부인의 애뜻한 시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멜본부인은 바이런을 만나기 위하여 심부름하는 하녀로 가장하고 시인의 방에 숨어들었다. 그 녀인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가위로 자살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그렇게 무섭게 굴었으나 바이런은 멜본부인의 결으로 오지 않았다.

미칠지경에 이른 멜본부인은 바이런을 매장해 버릴 계획으로 《그레날반》이라는 소설을 써서 발표했다.

소설의 주인공은 바이런이었는데 그 바이런은 협잡군이며 난봉군이었다.

멜본부인의 소설은 사랑의 원한을 풀려고 씌여진것으로 알려졌기에 바이런의 인격을 허물기에는 적합치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어느날 멜본부인은 마차를 타고 어데론가 가다가 장례행렬을 만났다.

마차를 멈추고 누가 죽었는가고 물어보던 멜본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은 바이런이었던것이다.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멜본부인은 어린시절의 동무인 물강부인에게 한평생 가슴속에 품고있던 바이런의 초상화를 넘겨주고 숨을 거두었다.

런던의 너인들이 애간장을 흘릴 때 《대영제국》의 정치가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들은 바이런이 자기의 어머니조국 영국을 《자유의 천국》이라고 노래하기를 바라고있었다.

드디어 영국국왕의 섭정이 바이런에게 온갖 수식사를 다 써가며 찬사를 보내고나서 왕궁에 초청하였다.

그러나 《대영제국》을 증오하는 유럽과 동방인민들의 마음을 아는 바이런은 왕궁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런던의 귀족들과 부르주아지들은 사회의 열광에 떠밀리워 바이런의 시를 극구 찬양하는척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혜성처럼 솟구친 시인을 이단자라고 단정하고 언젠가 때가 오면 영국땅에서 내쫓을 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그들은 외래침략자들의 략탈과 예속정책으로 신음하는 피압박인민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바이런의 열렬한 호소를 무서워했던것이다.

당시 바이런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있었다. 조상들이 물려준 저택마저 팔아야 할 형편이었다.

오랜 려행의 나날그가 진 빛이 엄청나게 많았던것이다.

그 어려운 처지에서 풀려나 다시 창작의 세계로 돌아가자면 돈많은 처녀와 결혼하는수밖에 없었다. 결에서들 모두 그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바이런의 친구들이 서둘러 신부감을 고르기 시작했다. 첫 청혼을 받은 처녀는 밀뱅크였다.

결보기에도 우아하고 재능도 뛰어난 밀뱅크는 바이런의 시를 열렬히 숭상하는 처녀였다. 하지만 그 처녀는 바이런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몰락한 귀족과 결혼하면 한평생 가난에 시달려야 한다는것을 알기때문이었다.

힘겹게 결혼을 결심한 바이런이었기에 어쩔수 없이 다른 처녀에게 또 한번 청혼을 했다. 그 처녀 역시 거절했다.

런던의 상류사회 처녀들모두가 바이런을 사랑했으나 그들모두가 바이런의 안해가 되려고는 하지 않았다.

바이런은 다시한번 영국이라는 자기의 조국에 한말을 느끼었다.

분노한 바이런은 밀뱅크에게 다시 청혼했다.

바이런은 자기의 시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밀뱅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가 쓴 편지를 본 친구들은 하늘의 천사를 지상의 오막살이에 데려올 걸작이라고 하면서 당장 보내자고 법석을 떨었다. 이리하여 밀뱅크는 바이런부인이 되었다.

결혼식은 1815년 1월 2일에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바이런은 자기가 그릇된 결혼을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자기가 밀뱅크를 사랑하지 않으며 앞으로 사랑할수 없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바이런의 결혼은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를 찬시하는 영국의 상류사회에 대한 도전이였고복수였다.

밀뱅크 역시 어두운 마음으로 결혼에 응했다.

허영심에 들뜬 그한테는 바이런이라는 이름이 필요했고 그 이름과 나란히 력사에 새겨질 밀뱅크라는 이름이 귀중했다.

그 처녀는 바이런의 자유주의적성격과 비귀족적인 인격을 바로잡아 영원히 자기결에, 영원히 영국땅에 얹어매놓을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들 두사람이 결합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816년 1월 15일 갑자기 밀뱅크가 태어난지 5주일밖에 안되는 딸애를 안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밀뱅크가 탈가한 리유는 단순한듯 하면서도 심각했다.

그 녀인의 말에 의하면 바이런은 거칠고 사나운 막사람이었으며 가정에 애착을 느낄수 없는 방랑자형의 불량배라는것이였다. 그는 찍하면 런던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불평을 부리면서 자기의 조국인 영국을 더럽고 증오스러운 나라라고 욕하곤 했다.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귀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밀뱅크로서는 한뼘 바다에서 산 배사람처럼 진정을 못하고 사납게 설레이는 바이런을 남편으로 섬길수가 없었다.

바이런은 인생의 시시각각이, 인생의 전과정이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럽고 고결한 투쟁으로 격렬하게 파도치기를 갈망하는 투사형의 사나이였다. 하기에 그는 부패한 생활속에 한시도 머물러있을수가 없었다. 그런 구속이 오래동안 지속되면 그는 참기 어려운 권태를 느끼곤 했다. 그 권태에서 자기 생활과 자기자신에 대한 분노가 이루어지고 그 분노가 쌓이면 무섭게 격노하여 현재의 생활을 산산이 깨버린다. 하기에 《대영제국》이 보호해주는 귀족의 보금자리를 귀중히 여기는 녀자들은 바이런과 절대로 운명을 함께 할수 없었다.

바로 그 안정을 모르는 폭풍같은 성격,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로의 지향이 랑만주의문학, 바이런문학의 핵심이였다.

바이런의 결혼생활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던듯 영국의 상류사회와 반동적인 문단이 바이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이런을 추악한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그의 작품들도 력사의 무덤속에 묻혀버리리라 타산한 그들은 19세기 유럽의 첫손가락에 꼽히는 시인을 케차르와 네로 같은자라고 규탄하다가 나중에는 악마라고 험악하게 모욕하였다.

바이런을 숭상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바이런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린 말단부인을 비롯한 런던 일류배우들이 극장에서 밀려났다.

신문들과 잡지들이 바이런의 행적을 날날이 뒤져 추악하게 날조했고 바이런을 규탄하는 시위행렬의 함성이 런던의 거리를 뒤흔들었다.

바이런은 런던의 살벌한 분위기때문에 자기를 변호할 연단을 마련할수 없었다.

1819년 8월에 런던시절을 회상하여 쓴 바이런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나의 가문의 명예, 나의 조상들이 윌리엄1세를 도와왕국을 일떠세운 이후 무사의 피로 지켜온 고결한 가문의 명예는 더럽혀졌다.

나는 그때 나라는 인간은 영국에서 살기엔 적합치 않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

로 영국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바이런은 1816년 8월에 조상들의 유골이 묻힌 조국땅을 떠났다.

1818년 8월 바이런은 이탈리아에서 셸리를 만났다.

셸리 역시 영국에서 쫓겨나 이역땅에서 방황하고있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들인 그 두사람은 조국땅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채 이국의 하늘밑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들의 운명은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와 타협할수 없는 정의로운 작가들의 비참한 운명이였다.

일제통치시기 조명희, 최서해, 강경애를 비롯한 우리 민족이 낳은 우수한 작가들의 운명 역시바이런의 운명과 다름없이 비참하였다.

해방전 《카프》문학이 낳은 《락동강》의 필자인 포석 조명희는 일제의 탄압으로 이역땅으로 떠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니 영국이 바이런과 셸리를 낳았고 영국이 바이런과 셸리를 죽였던것이다.

송혁철

## 작가일화

### 아침에만 일하는 리유

레브 톨스토이는 아침에만 일하였다.

어느날 이른아침에 그의 서재를 찾았던 한 작가가 물었다.

《선생이 아침에만 집필하는 리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평론가가 그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있기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깊이 생각해볼새없이 하는 말이였다.

《?》

상대가 머리를 기웃거리자 톨스토이는 빙그레 웃었다.

《어느 작가나 그의 심장속엔 그자신이라는 평론가가 들어앉아있소. 이 평론가가 가장 날카로와질 때는 아침이요. 밤에는 잠을 자거던. 때문에 밤시간에 작가들이 평론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면 제멋대로 행동하고 꺼리낌없이 말하면서 어리석고 쓸데없는것을 많이 쓰게 된다고. 아침에만 일한 프랑스의 루소나 영국의 디킨즈와는달리 밤에만 일하기 좋아한 도스토옙스끼나 바이런은 그때문에 자기들의 재능을 그르쳤거던.》

《예, 알만 합니다. 헌데 선생이 심한 란필인것

도 아침에만 일하면 절대시간이 모자라기때문은 아닌지요?》

《내가 좀처럼 알아보기 어렵게 글을 쓰는건 사실이요. 그건 예, 폭포처럼 흐르는 사상이나 말을 옮겨쓰는데 손이 미쳐 움직여주지 않기때문이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톨스토이는 일단 붓을 들면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써나갔다. 어느날엔가는 《나는 오늘 하루동안에 한리스트(120페이지정도)를 썼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에게서는 사상과 말이 번개처럼 번뜩이였다. 그때 마침 서재로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야 안드레예브나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끝게 정서한 원고지가 들려있었다. 사실 부인은 남편이 넘겨주는 란잡한 원고를 밤새껏 정서하여 아침이면 어김없이 남편의 책상우에 가져다놓곤 하였다. 그러면 톨스토이는 정서한 원고지를 다시금 새까맣게 교쳐놓곤 한다. 교정지도 마찬가지로 지였다. 끊임없이 수정하여 빈자리가 없이 빼곡이 교쳐놓았다. 그래서 남편의 건강을 넘려한 부인이 교정지를 억지로 빼앗아 출판사에 가져가곤 한다고 했다. 만일 교정지를 스무번 가져다주면 그때마다 교쳐을것이다.

## 시에서 울리는 전선편지의 구절구절들

남해역

### 봉투속엔 편지와 작은 사진

니콜라이 킬렌코브(이전 쏘련)

봉투속엔 편지와 작은 사진  
안해의 주소가 푹푹히 썩여있네  
전투를 한두번만 치르지 않은 전사  
죽음을 각오하고 써놓은것이라네

(1943)

### 첫 사랑

와짐 셰프네르 (이전 쏘련)

포탄은 안드레이 뻬프로브를 쓰러눕혔다  
방금 파헤쳐진 포탄자리옆에서  
...  
군복은 폭발에 갈가리 찢기였다  
뻬프로브의 피자박된 주머니에서  
우리는 그의 증명서들을 꺼냈다

편지를 보내오던 사람들에게  
뜻밖의 죽음을 알려주고저  
주소들이 적혀있는 그의 수첩과  
달아빠진 봉투속의 다섯장 사진도

여기선 그가 얘기, 이진 어린 형제들  
이 사진은 누이와 별장마을 역전에서...  
그런데 수첩에서 떨어지는 또 한장  
투명한 비닐로 정히 싼 사진

이 사진은 우리에게 보여준적 없었거니  
새벽의 운무서린 이 벌판에서  
우리는 이 처녀를 처음으로 보았다  
밝은색 샤쓰 입은 발랄한 처녀를

전이 넓은 밀짚모자 곁에 쓰고서  
정답고도 숫저웁게 웃어보이며  
저 멀리로 산길이 내뻗은  
넋직한 공지에 처녀는 서있다

우리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뜻밖에도 그가 전사했다고

위문금도 보내주고 사진들도 돌려주리  
우리는 봉투마다 주소를 쓰리라

허나 우리 어이 포탄구덩이와 탄우를 헤치며  
알지 못할 그곳, 숲속의 공지로 가랴?  
그는 처녀의 주소를 기억했을뿐  
수첩엔 써놓지도 않았으니

처녀에게 가는 길 우리에게겐 없다  
신작로도 오솔길도  
우리는 처녀를 찾을수 없다...  
허나 우린 알았나니  
해를 두고 이 사진 가슴에 품고 싸운  
바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함을

풀잎들이 려명향해 키돋움하고  
거뭇한 구덩이가 언덕우에 생겼을 때  
그 시각에 우리는 세번의 일제사격—  
사진은 뻬프로브의 군복주머니에 넣어주었다

(1942)

### 우편엽서

쎄르게이 스미르노브(이전 쏘련)

우편국은 두주일이나 찾곤했다  
야전우편대호의 천단위번호를  
어두운 밤 기통수는 전해주었다  
불타버린 숲속 중대에 우편엽서를

허나 받을 사람 도하장에서 전사하여  
중대의 서기는 한구석에 써넣었다  
《전할수 없으므로 돌려보냄》  
하여 기통수는 밤안개속으로 떠났다

엽서는 끝내 되돌아왔다  
수림속 엄폐호에 있는 우편취급원  
묵묵히 다른 구석에 써넣었다  
《돌려보낼 사람에게 전할수 없음》

그는 생각했다  
《그는 불과 한시간전에 죽었는데...》  
글줄들을 한눈에 훑어보고 일어섰다

엽서에는 모든것이 다 담겨있었으니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삶에 대해 쓴것이...

(1943)

## 그대는 나에게 편지를 쓰오

이오씨프 우뜨킨(이전 쓰련)

밖은 야밤 초불은 가물가물  
높이 뜬 별들이 보이오  
그대는 나에게 편지를 쓰오, 귀중한이여  
떠홀러다니는 야전우편대호로  
무얼 그리 오래 쓰나, 내 사랑이여  
어서 빨리 끝을 맺고 또다시 시작하오  
그래도 나는 믿소, 그런 사랑은  
최전연도 뚫고나간다는것을!

... 집떠난지 오래오  
우리 방의 불빛은  
포연에 가리워 보이지 않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잊지 않는 사람은  
전쟁의 포연속도 제집처럼 여긴다오

다정한 편지 읽느라면 전선에서도 아늑하오  
그 하나하나의 글줄너머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오  
얇다란 종이장건너에서 들려오는  
고향의 목소리를 듣소...  
우리는 곧 돌아가리다,나는 아오,나는 믿소  
그때엔 그런 순간이 오리다  
슬픔과 리별은 문밖에 남고  
집으로는 기쁨만이 들어오는 날이

아무때든 저녁에 그대와 함께  
어깨를 가지런히 맞대고앉아  
전투의 기록인양 사랑의 년대기인양  
편지들을 읽고 또 읽으리다

(1943)

## 추억

이리나 니끼찌나(로씨야)

이젠 벌써 지난 세기에 흘러갔어도  
우리는 그 전쟁을 잊을수 없네  
로씨야의 매 사람이 다 겪었듯이  
그것은 나에게,그것은 그대에게 찾아들었지

마치도 피에 섞여 유전되듯이  
그 추억은 남아있네, 우린잊지 않으리  
가렬한 전투를 어떻게 치르었던가를  
승리로 가는 길 얼마나 힘겨웠던가를

병사의 어머니가 어떻게 눈물지었던가를  
봉쇄속에 움푹 꺼져들었던 뺨들을...  
후대에게 이 추억을 넘겨주어야 하리  
우리는 반드시 넘겨주리라

오늘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따스함과 안락속에 잊지 않도록  
준엄한 그날, 준엄한 그 시각에  
전쟁의 북소리가 어떻게 울렸던가를

(2005)